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 됩니다.

☎ 031-257-1841

제176호 2020년 07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328-0211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외국인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소식, 이제 이주민이!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도내 외국인주민 24명을 SNS기자단으로 위촉했다. 경기도와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원장 김용국)은 지난 6월 16일 연구원 교육실에서 제1회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련기사 15면> 송하성기자

“한국 사회에 여전한 차별, 장애인-이주민-노인-여성 순서로 많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 다음으로 심한 것으로 인식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첫 결과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지에 관한 질문에 '매우 심각'이 13.7%, '다소 심각'이 55.4%로 69.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29.2%,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6%였다.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해서는 54%가 '심각하다', 46%가 '심각하지 않다'로 답

했다. 한국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장애인(29.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이주민(16.4%), 노인(13.4%), 여성(13.2%)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기 쉬운 조건에 대해서는 빈곤층(29.6%)이 가장 많이 꼽혔고,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8.9%), 전과자(16.2%), 비정규직(12.9%)이 뒤를 이었다. 과반수 응답자가 국내 차별·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지만, 본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대체로 존중받는 편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71.3%가 존중받는다(매우 존중

3%, 존중받는 편 68.3%)고 답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28.7%(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2.3%, 존중받지 못하는 편 26.4%)였다.

응답자의 학력이나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답하는 비율도 높았다.

국내 인권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2.4%가 한국의 인권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고, 나빠진다는 15.4%, 비슷하다고 22.1%였다. 인권위 주관으로 통계청이 지난해 8~9월 수행한 실태조사에는 전국 성인 남녀 1만3천77명이 참여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향후 인권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도 매년 실태

태조사를 진행해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주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또한 재난으로 인하여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때, 해당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취약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어 42면, 일본어 8면> 이지은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21, 29, 33, 42 일본어(Japanese) 日本語 8, 13 영어(English) 25 네팔어(Nepali) नेपाल 5 인도네시아어(Indonesian) 14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8 캄보디아어(Khmer) ខ្មែរ 19 몽골어(Mongolian) Монгол хэл 31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9, 17, 29, 30



섹션별 지면 안내

생활정보 Information 2, 5, 20 육아 Child Care 17, 19, 29 인권 Human Rights 1, 8, 31, 42 복지 Welfare 3, 18 코로나19 Corona19 8, 26, 35, 39, 46 인터뷰 Interview 11, 23 경제 Economy 14, 40 기본소득 Basic Income 21, 22 기고 Column 27 이주배경청소년 12, 15 금융 Finance 2, 9 도서관 Library 4 보건 Health 6, 13, 25, 33, 36, 45 교육 Education 7 정책 Policy 9, 16, 24 나의 학습 My Study 30

Gyeonggi Resumes Supply of Fruit to Childcare Centers Various news provided by GTV that helps multicultural families



1. Gyeonggi Forms Taskforce to Prevent Anti-North Korean Leaflet Launches

Gyeonggi Province has formed a task force to prevent the launch of anti-North Korea leaflet balloons, deeming it to be an act that jeopardizes the lives and safety of local residents.

The province also established an emergency network encompassing police offices and border regions as well as southern provincial regions so as to facilitate swift reports of and responses to balloon-launching activities.

Potential balloon-launching areas will be closely monitored and those who launch such balloons will be arrested.

2. Gyeonggi Designates Summer Heatwave Response Period

Gyeonggi Province recently designated the period until September 30 as a "Heatwave Response Period", during which special response measures will be implemented by the Gyeonggi Disaster and Safety Headquarters.

During this period, the province will allocate a total of KRW 12.6 billion for the installation of heat shelters, such as smart tents and parasols, as well as for the planting of shade trees at more than 2,000 location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during this period, indoor heat shelters will remain closed while the use of artificial mist facilities and fountains will be discouraged.

Kim Nam-geun, Director, Gyeonggi Province Natural Disaster Division said "We have increased the number of heat shelters from 3,610 to 5,615 this year. We will maintain heat response capabilities through the proactive operation of the heatwave management taskforces and via the Gyeonggi Disaster and Safety Headquarters."

3. Gyeonggi Uncovers Large Number of Bad Egg Sellers and Users

During a recent crackdown in Gyeonggi Province on the distribution and usage of bad eggs, including those with broken shells, a large number of violators

were apprehended. The Gyeonggi Province Special Judicial Police announced that among the 424 egg distributors and restaurants it investigated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27 to May 8, a total of 68 violations were uncovered at 65 locations.

Gyeonggi Province Special Judicial Police Superintendent In-Chi-gwon said "Distributors purchase the (bad) eggs from egg farmers, usually for KRW 400 (per packet). They then sell these eggs to restaurants for KRW 1,000. Compared to their normal purchase prices, which range from KRW 3,500 to 3,800, restaurants save more than KRW 2,000."

4. Gyeonggi Resumes Supply of Fruit to Childcare Centers

After a long COVID19-induced suspension period, Gyeonggi Province resumed the regular supply of fruit to childcare centers from June 15.

From last year, the province had been supplying a variety of fruits once or twice weekly to 367,000 children at all childcare centers, local children's centers and children's homes in the province.

In order to promote healthy dietary habits among children, the province will supply free locally produced fruit to these facilities a total of 43 times this year.

GTV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300만원까지 대출...연이자 1%

경기도, 7월 15일부터 2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 시작, 다문화가족에도 도움될 듯

최근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사업을 신설해 화제다.

경기도는 오는 7월 15일부터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기존 무심사, 심사 대출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1% 이자율에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도 기준에 해당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신용 7등급 이하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지원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계가 어려운 극저신용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올해 4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은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심사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또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심사 대출(50만 원) 및 심사 대출(300만 원 한도)은 오는 7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사군별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출은 구체적 상담과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결정된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적은 돈을 빌리게 위해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 1차 사업 결과 총 3만6,393명에게 대출금 지급
경기도는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추진한 결과,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248명 등 총 3만6,393명에게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사업 규모는 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3차 추가 접수를 계획 중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업 미끼 던지면 덥석, 20대 청년 노리는 대출업자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경기도로 신고해 주세요 불법 대출 반드시 잡겠다. 불법 대출 피해자에게 연 1%로 대출하는 사업도 7월에 시작한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고양다가 "코로나 극복 의료진, 감사해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와 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시작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고양시자살예방센

터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었으면 다음 참여자로 ‘두레치과’, ‘보들미역’ ‘화정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목했다.

임유진 센터장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모든 국민이 함께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의 동참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고양시, 2020년 발달장애 조기발견 교육 '아람키움' 실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2020년 7월 2일(목) 오후 4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의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 보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발견 교육 '아람키움'을 실시한다.

발달장애 조기발견교육 '아람키움'은 가정 및 보육 관련 기관에서 영·유아기에 관찰될 수 있는 발달 지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를 조기 발견해 재활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 완화와 2차 장애 예방, 그리고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금번 교육은 '발달장애 조기발견 및 장애가족의 이해'를 주제로 노석원 前경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의 강의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및 가족이 처한 상황의 전반적인 이해와 영·유아보육기관에서의 역할과 의미를 되짚어 볼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 장애인복지과는 올해 고양시 관내 영·유아기 부모와 보육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총 4회 실시 예정으로 발달장애 인식개선과 조기개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학생 가정에 안전한 농산물 꾸러미 배송, 생산 농가-가정에 도움

고양시, 자녀 있는 다문화가정에도 배송, 5만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이라면 고양시가 보낸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5만여 명의 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고양시 농산물 꾸러미 배송에 나섰다.

고양시는 지난 6월 24일부터 관내 학생 가정에 쌀과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농산물 꾸러미 공급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와 등교일수 축소로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이 증가한 가운데 학교 급식비 예산을 활용해 농가를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고양시 농산물 꾸러미는 GAP 인증쌀 5kg과 친환경 농산물 11여 품목과 GAP 파프리카로 꾸러졌다. GAP 인증쌀은 고양시에서 100% 생산한 학교급식용 쌀이며, 농산물은 작기가 맞지 않아 고양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채류 등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고양시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다.

특히, 고양시에서는 경기도 일부에서 문제가 되는 꾸러미 취지 맞지 않는 가공식품은 포함하지 않고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먹거리로 식재료 꾸러미를 구성해 학생 가정에 공급한다.

농산물 꾸러미 배송은 6월 24일을 시작으로 26일, 30

일, 7월 2일, 4일, 7일, 10일, 14일 등 7월 중순까지 총 8~10차에 걸쳐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배송할 계획이다.

우천 시에는 농산물을 우선 배송하고 쌀은 품위가 저하되지 않도록 일기 상태를 보아 1~2일 이후에 따로 배송한다.

또한, 농산물 꾸러미가 무더운 날씨와 장마 기간에도 안전하고 신선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와 고양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배송 직전에 농산물 상태를 철저히 검수할 예정이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양시 농산물 꾸러미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산물 꾸러미 배송으로 운영이 중단되다시피 한 학교급식체계가 유지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고양시 농산물 꾸러미를 신속하고 원활히 배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고양시청 031-909-9000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38-9801 고양이민자통합센터 031-970-3000 누리다문화학교 031-919-4025 (사)밝은미래 경기도지부 031-925-0400 고양교육지원청 031-900-2800 고양파주여성민우회 031-907-1003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912-8555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20-3937 범죄신고 112 고양경찰서 031-974-4311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고양 다문화가족, 코로나19 속 슬기로운 집콕생활 즐겨요”

고양시 도서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집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도서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비대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집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독서생활

고양시(시장 이재준) 도서관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을 위한 비대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인 온라인 독서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센터에서는 여름을 맞이해 집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문학, 그림책, 심리학, 과학소설 등 다양한 주제로 13개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7월 5일 풍동도서관 ‘환상 세계로 떠나는 여행’ 독서토론 모임을 시작으로 대화도서관에서는 7월 6일부터 각자의 속도로 꾸준히 읽어가는 ‘8주간의 독서일주’를, 7월 7일부터 아람누리도서관 주관으로 이영주 교수의 현대시 관련 강의와 신청자 사연 소개, 시 해석과 함께 감상하는 ‘이럴 땐 이런 시’를 준비했다.

풍동도서관 ‘환상 세계로 떠나는 여행’은 아동, 청소년 문학에서 창조한 환상 세계로 떠나는 가상 여행 모임으로, 7월 한 달간 일요일마다 한 곳씩을 주제로 SNS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토론할 예정이다.

사서가 여행 가이드로 진행하며, 책을 읽고 온 신청자들이 그날의 여행지에 관해 각자 소감을 나눌 예정이다.

1주 차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윈더랜드’, 2주 차는 ‘오즈의 마법사’의 ‘오즈’, 3주 차는 ‘어스시의 마법사’의 ‘어스시’, 4주차는 ‘헝거게임’의 ‘판엠’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네 작품 모두 여러 권의 전집이지만 첫 1권만 읽고 참여해도 무방하다.

7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8~9시에

진행하는 본 모임은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서관별 온라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화정도서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줌’을 활용해 자신의 글을 첨삭 받고 퇴고하여 글쓰기 공모전에 도전하는 강좌가 7월 10일부터 열린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방식 변화에 따라 도서관 담당자들의 교육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18일에는 시립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해 코로나 이후 도서관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줌, 유튜브 등 실시간 온라인 강의법, 밴드나 카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다문화가족도 고양시의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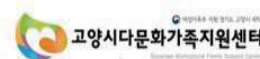
도서관별 온라인 독서프로그램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센터 홈페이지(www.goyanglib.or.kr) 문화행사를 참고하면 된다. 031-8075-9019

김영의 기자

7월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사업일정	장소	내용	대상	담당자
취업교육지원-운전면허교실	7월 중	센터 별관 교육실	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비 문제풀이, 교통안전수칙 등	결혼이주민 15명	오은주
자조모임-도서관활동가 '글로벌가디언스'	7월 7일(화)	센터 및 외부장소	정보공유, 정서적 유대감형성, 잠재능력 개발, 전문가로서 역량강화 등	결혼이주여성 7명 이상	정수정
자조모임-배우자 '훈남들의 토크'	7월 18일 토요일	성석동 방아깨비 주말농장	농작물 가꾸기 및 요리체험, 친교	결혼이주민 배우자 및 가족	박기숙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 생활 요리교실	7월 24일 금요일	대한적십자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한국 생활요리 방법 익히기	결혼이주민 45명	사윤주
자조모임-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씨밀레"	7월 28일 화요일	센터 교육실	2020년 사업안내 및 정보공유	이해교육 강사 30명	정수정
자조모임-다사랑 난타클럽	7월 중 예정	IN난타 연습실	난타교육 및 공연, 친목도모	강사 및 참여자 10명	팜투후연
자녀건강지도-인라인스케이트	7월 중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중산역 타이거야카데미 인라인 하키장	인라인 기본 동작 배우기, 인라인 하키 경험을 통한 건강증진	다문화자녀 10명	정소영
자녀건강지도-무지개리틀야구단	7월 중 둘째, 넷째 주 토요일	고양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	야구훈련, 프로야구 관람	다문화자녀 22명	정소영

문의 031-938-9801



무더운 여름에 가보는 행주산성 고양시, 매주 토요일 야간개장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시민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고 힐링할 수 있도록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 행주산성 야간개장을 한다.

행주산성 야간개장 관람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입장 마감은 오후 9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 및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두기 등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장맛비, 태풍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야간개장이 취소 또는 축소 운영되므로 우천 시에는 사전에 전화 문의(301-8075-4642)하고 방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주산성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다문화가족도 무더운 여름 밤에 행주산성을 이용해 보자. 김영의 기자



고양시청 031-909-9000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38-9801 고양이민자통합센터 031-970-3000 누리다문화학교 031-919-4025 (사)밝은미래 경기도지부 031-925-0400 고양교육지원청 031-900-2800 고양파주여성민우회 031-907-1003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912-8555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20-3937 범죄신고 112 고양경찰서 031-974-4311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3. विधार्थी कल्याणकारी सेवा

सहयोगको आधार भौगोलिक क्षेत्र एवं शिर्षक अनुसार फरक पर्न सक्दछ।

(1) प्राथमिक, माध्यमिक र उच्च माध्यमिक विद्यालयमा निम्न आय परिवारका विद्यार्थीहरूले शिक्षा खर्च प्राप्त गर्छन।

● मापदण्डहरू

- गाउँपालीका सामुदायिक केन्द्र वा वडा कार्यालयमा शैक्षिक अनुदान प्राप्तकर्ता, सामाजिक सुक्षा प्रदान गर्नुपर्ने परिवारको रूपमा दर्ता भएका परिवारक विधार्थीलाई शैक्षिक सामग्री, विधालय भर्ना, मासिक भर्ना शुल्क आदि सहयोग लिएका विधार्थी (आधारभूत जीवन सुरक्षा प्राप्त गरेका परिवार तथा कानूनी रूपमा परिभाषित एकल अभिभावक परिवार आदि)
- गाउँ वा शहर (उप, म्योङ्ग, डोङ्ग) का सामुदायिक केन्द्रबाट गरीबी तहमा भएको पुष्टि भएका परिवारका विद्यार्थी
- आय र सम्पत्तिको छानबिनबाट मध्यम आय 50~60% भित्र पर्ने परिवारका विद्यार्थी। (नगरपालिका, प्रदेश तथा शिर्षक अनुसार शैक्षिक खर्च फरक पर्न सक्छ)
- शिक्षा खर्चकोलागी आवेदन दिएर पनि आय सम्पत्तिको छानबिन पछि अयोग्य ठहर भएका विद्यार्थी। आफ्नो आर्थिक संकटको प्रमाण पेश गर्न कठिन भएको कारण विध्यालयको प्रधानाध्यापक द्वारा सिफारिश गरेका निम्न आय विद्यार्थी।

● सहायता दिने क्षेत्र

- उच्च मावि शुल्क, उच्च मावि भर्ना शुल्क, शिक्षा शुल्क, विद्यालय व्यवस्थापन शुल्क आदि।
- (खाजा खर्च) प्राथमिक, माध्यमिक र उच्च माध्यमिक विद्यालय पुरा खाना खर्चको व्यवस्था। (वार्षिक 180छाक, निशुल्क खानाक्षेत्र बाहेक)
- (विध्यालय छुट्टि पछिको कार्यक्रमको भाउचर) प्राथमिक, माध्यमिक र उच्च माविको विध्यालय छुट्टि पछिको कार्यक्रमको भाउचर वार्षिक 600,000 वनको व्यवस्था।
- (शैक्षिक सूचना) इन्टरनेट प्रयोग खर्च प्रति महिना 17,600 वन, हरेक न्यून आय भएको घरमा एउटा पर्सनल कम्प्युटरको सुविधा प्रदान गरिने।

विषयहरू	आधारभूत जीवन खर्च पाउनेवाला	कानूनीरूपमा एकल अभिभावक	कानूनीरूपमा अति निम्न आय भएको परिवार	आय तथा सम्पत्ति विवरण लिने व्यक्ति	प्रधानाध्यापकको सिफारिस
माध्यमिक विधालय शैक्षिक खर्च	○	○	○	△	△
खाजा खर्च	○	○	○	△	△
विद्यालयपछिको कार्यक्रम खर्च	○	○	○	△	△
इन्टरनेट तथा पर्सनल कम्प्युटर	△	△	△	△	△

○ : आवेदन दिएमा पूर्ण सहायताको व्यवस्था, △ : आवेदन दिएपछि सहयोग मापदण्ड अनुसार छानबिन पछि दिने नदिने निर्णय
 ※ विस्तृत शैक्षिक खर्चको विषयमा सम्बन्धित गाउँपालीकाको वडा कार्यालय तथा शैक्षिक खर्च एक क्लिक आवेदन प्रणाली मार्फत जानकारी लिन सकिन्छ।
 (छ सम्पर्क नंबर : केन्द्रिय शैक्षिक खर्च सहायता परामर्श केन्द्र 1544-9654)

● आवश्यक कागजात

उम्मेदवार	आवश्यक कागजातहरू
राष्ट्रिय आधारभूत जीवन सुरक्षाको सुविधा प्राप्त गर्ने व्यक्ति, एकल अभिभावक परिवार सुरक्षा प्रणालीमा दर्ताभएका सदस्य, कानूनी मान्यता प्राप्त निम्न आय सुरक्षाका हकबाला, आय तथा सम्पत्तिको छानबिनमा परेकाहरू	① सामाजिक सुरक्षा सुविधा आवेदन फारम ② अम्दानी तथा सम्पत्ति विवरण पेश गरेको प्रमाणपत्र ③ वित्तिय कारोबारको विवरण तथा स्वीकृति पत्र ④ आय तथा सम्पत्ति विवरणको प्रमाण पत्र
प्रधानाध्यापकको सिफारिस	① कक्षा शिक्षक तथा सम्बन्धित व्यक्तिको लिखित पत्र (सिफारीस पत्र) ② अन्य कागजात (जवाफदेहिता, मृत्यु, जागीर छोडेको, ब्यापर टाट पल्टिएको र सम्बन्ध विच्छेद भएको अवस्थामा) ※ कक्षा शिक्षक वा सम्बन्धित व्यक्तितबाट अनिवार्य रूपमा लिखित पत्र

● आवेदन प्रकृया

- प्रत्येक वर्षको सुरुवातमा विशेष आवेदन अवधि सञ्चालन (बर्षभरी कुनैपनि बेला आवेदन दिन सकिन्छ, विधालयबाट आवेदन प्रकृया सम्बन्धी छुट्टै सूचना जारी गरिनेछ (परिवारमा समेत सूचित गर्दछ)
- आमाबाबुले अनलाइन (शैक्षिक खर्च एक क्लिक आवेदन प्रणाली) वा उप, म्यन वा दोड सामुदायिक सेवा केन्द्रमा गएर शिक्षा खर्चका लागि निवेदन दिन्छन्। आय र सम्पत्तिको आधारमा विद्यालयले प्रापक छनौट गर्दछ।
 - प्रापकले विद्यालयमा भुक्तानी गर्नुपर्ने शुल्क छुट पाउछ।



05 विश्वविद्यालय शिक्षा

कोरीयामा चारवर्षे विश्वविद्यालय तथा 2~3वर्षको व्यवसायीक कलेज रहेको शिक्षा प्रणाली दुवै छन् । चार वर्षे विश्व विद्यालय शिक्षा प्रणालीले सामान्यतया विशेष विधाको अध्ययनमा केन्द्र हुन्छ भने दुईवर्षे कलेज शिक्षा प्रणालीले व्यवसायिक दक्षताका लागि तालिम कार्यक्रम प्रदान गर्दछन् । विश्वविद्यालय वा कलेजमा भर्ना हुनकालागि आवेदकले विशेष प्रवेश परीक्षामा सामेल हुनुपर्दछ । सो परिक्षामा विद्यार्थीको विद्यालयको रेकर्ड, निबन्ध लेखन, भाषा दक्षता आदि विषयमा अथवा आधिकारिक विश्वविद्यालय प्रवेश परिक्षाको नतिजामा केन्द्रित हुन्छ । विश्व विद्यालय वा विधा तथा भर्ना संख्या

अनुसार यस्ता परीक्षा प्रणाली फरक हुन्छ । विद्यार्थीहरूले कलेज तथा विश्व विद्यालयका भर्ना हुने मापदण्ड ध्यान दिएर पढ्न पर्दछ र कलेज र विश्व विद्यालयले माग गरेका योग्यताहरूका लागि तयारी गर्नु पर्दछ । केही विश्व विद्यालयहरूले बहुसांस्कृतिक परिवारका बच्चाहरूको सहयोगार्थ विशेष भर्ना प्रणाली संचालन गरेका छन् भने, आमा बुवा दुवै विदेशी नागरीक भएका विदेशी, विदेशबाट विधालय तहको शिक्षा पूरा गरेका कोरियन मूलका विदेशी नागरिक, विदेशी नागरिक, वैवाहिक आप्रवासी आदिको लागि ' कोरियन मूलका विदेशी तथा विदेशी नागरिक विशेष भर्ना प्रणाली ' मार्फत आवेदन दिन सकिन्छ।

1. विभिन्न किसिमका विश्वविद्यालय

विश्वविद्यालय - चार वर्षे, औद्योगिक कलेज, शिक्षा कलेज, प्रसारण तथा संचार कलेज, साइबर कलेज र 2~3वर्षको व्यावसायिक कलेज र प्राविधिक कलेजमा वर्गीकरण गरिएको छ ।

प्रकार	विवरण
विश्वविद्यालय	विभिन्न विधामा कक्षा सञ्चालन हुन्छ, अधिकतम रूपमा उच्च माध्यमिक विद्यालय उत्तिर्ण विधार्थी भर्ना हुन्छन
व्यवसायिक कलेज	औद्योगिक इन्जीनियरहरू विकास गर्ने शिक्षा
शिक्षा कलेज	प्राथमिक तथा माध्यमिक तहका विद्यालयहरूका लागि शिक्षकहरूको उत्पादन गर्ने विश्वविद्यालय
विशेष कलेज	विविध विषयका विशेषज्ञहरूको निर्माण गर्ने विश्वविद्यालय
प्रसारण, संचार एवम् साइबर कलेज	दुर्गम ठाउँमा टेलिभिजन र कम्प्युटर जस्ता दुरसंचारहरू मार्फत कलेज शिक्षा प्रदान गरेर जहाबाट पनि शिक्षा दिने कलेज
प्राविधिक कलेज	औद्योगिक कारीन्द्राहरूले औद्योगिक परिवेशमा व्यावसायिक ज्ञान र सिप हासिल गर्न सक्ने विश्वविद्यालय

2. छात्रवृत्ति

विश्वविद्यालयको मासिक शुल्क सरकारी विश्वविद्यालय, सार्वजानिक विश्वविद्यालय, निजी विश्वविद्यालय अनुसार फरक हुन्छ र विद्यार्थीले शुल्क तिर्नु पर्ने नियम छ। आर्थिक कठिनाई भएका विद्यार्थीहरूको सहायताका लागि भनेर सरकार तथा विश्वविद्यालयले विभिन्न छात्रवृत्ति कार्यक्रमहरू संचालन गरेका हुन्छन् ।

सरकारले दिने मुख्य छात्रवृत्तिमा राष्ट्रिय छात्रवृत्ति, राष्ट्रिय शिक्षाकाम छात्रवृत्ति कार्यक्रम आदि छन्, वर्तमानमा कोरियन विश्वविद्यालयमा आबद्ध कोरियन नागरिकले राष्ट्रिय छात्रवृत्ति कार्यक्रमका लागि आवेदन दिन सक्छन् । विस्तृत विवरण कोरियाली विद्यार्थी सहयोग फाउन्डेसनको वेवसाइट www.kosaf.go.kr मा छ ।

विश्वविद्यालय तथा वाह्य संघसंस्थाहरूले प्रदान गर्ने छात्रवृत्तिका लागि विश्वविद्यालयको छात्रवृत्ति साखामा सम्पर्क गरे विभिन्न प्रकारका छात्रवृत्ति, आवेदन दिने तरीका बारे जानकारी पाइन्छ ।
 ※ '17सालको भर्ना शुल्क(4 वर्ष विश्वविद्यालय, विश्वविद्यालयले जारी गरेको सूचनामा आधारित): (सरकारी.सार्वजनिक विश्वविद्यालय) 4,130,000 वन, (नीजि विश्वविद्यालय) 7,400,000 वन।

(1) राष्ट्रिय छात्रवृत्ति सम्बन्धी सूचना

- **योग्यता:** कोरियाली नागरिक भएर कोरियाको विश्वविद्यालयमा अध्ययनरत विधार्थी जसको आयस्तर 8 औं तहभन्दा कम छ।
 • सामाजिक सुरक्षा सूचना प्रणाली (पारिवारिक आय, सम्पत्ति, वित्तिय सम्पत्ति तथा कर्जा, पारिवारिक ऋण आदि सबै प्रतिबिम्बित गरिन्छ) अनुसार निर्धारित पारिवारिक आय अनुसार आय स्तर निर्धारण गरिनेछ।
- **सहायता रकम:** आयस्तर 8 औं तहभन्दा कम भएका परिवारका विधार्थीलाई आय स्तर अनुसार स्वतः सहयोग (वर्षमा अधिकतम 5,200,000वन)

2018 सालको राष्ट्रिय छात्रवृत्ति प्रकार । आय स्तर अनुसार वार्षिक सहायता रकम

(एकाइ: कोरियन वन 10,000)

विषय	आधारभूत, अन्य तह	पहिलो न्यून तह	दोश्रो तह	तेस्रो तह	चौथो तह	पाँचौ तह	छैठौ तह	सातौ तह	आठौ तह
छात्रवृत्तिको राशि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 **आवेदन दिने तरीका:** कोरियाली विद्यार्थी सहयोग फाउन्डेसनको वेवसाइट www.kosaf.go.kr
- **आवेदनको समायवधि:** हरेक वर्ष सेप्टेम्बरको अन्त्य तथा नयाँ सेप्टेम्बरको शुरु वा अन्त्यमा
 ※ '18 साल पहिलो सेप्टेम्बर आवेदन मिति: (पहिलो चरण) '17 11. 17~12. 12, (दोश्रो चरण) '18. 2. 12~3. 8
 ※ '18 साल दोश्रो सेप्टेम्बर आवेदन मिति (अनुमानित): (पहिलो चरण) '18. 5 औं महिनाको अन्त ~6 औं महिनाको मध्य, (दोस्रो चरण) '18. 8 औं महिनाको मध्य ~ 9 औं महिनाको शुरु

(2) राष्ट्रिय कार्यकारी छात्रवृत्ति कार्यक्रम

- **आवेदन मापदण्ड:** विश्वविद्यालयमा आबद्ध आय 8वर्ग भन्दा तल भएको विधार्थी, न्यूनतम स्कोर C0भन्दा माथि - (100 मा 70 भन्दा माथि)
- **सुविधाहरू:** कलेजमा भर्ना भएका विद्यार्थीहरूको निरन्तर शिक्षा एवम् काम गरेको अनुभव संगाल्ने मौका दिन शिक्षा शुल्क तथा बसोबास खर्चका लागि वित्तिय सहयोग काम गरेकोसमय अनुरूप प्रदान गरिन्छ ।
 - प्रतिघण्टा प्रदान गरिने रकम - कलेज भित्र) कोरियाली वन 8,000 तथा कलेज वाहिर 9,500 वन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해!**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 준비하세요!**

2020.6.8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연령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9세	443	984	1,189	556	1,056	2,425	1,574	1,941	4,526

고령일 경우 온도에 대한 신체적응능력이 낮고,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

5 / 9

2020.6.8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온열질환자도 증가 추세**

443, 984, 1,189, 556, 1,056, 2,425, 1,574, 1,941, 4,52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출처: 질병관리본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온열질환자수

2 / 9

2020.6.8

어린이, 학생도 주의!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운동장·공원에서 야외활동은 피하고, 특히 어린이는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6 / 9

2020.6.8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 주의!**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 (열사병, 열탈진이 대표적)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내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움

3 / 9

2020.6.8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119 구급대 요청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시원한 장소로 이동
수분섭취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금지

7 / 9

2020.6.8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논밭, 작업장 등 실외에서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
폭염 시 햇볕이 강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4 / 9

2020.6.8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양산, 모자) - 팔랑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더운 시간대 (낮 12시~오후 5시)에는 휴식 취하기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펴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8 / 9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
김달수 문화체육위원장, 공로패 받아**



경기도의회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 10)이 2020년 6월 9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로부터 헌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위원회를 꾸려오느라 고생하였다는 의미를 담아 “공로패”를 받았다.

김달수 위원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2년간 재임하면서, 상호협약과 토론을 통해서 보다 나은 방법과 결과를 도출하려는 변혁적인 리더십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특히 집행부와는 탈권위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문화, 체육, 관광의 혜택을 광범위하고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등을 함께 고민하는 등 공동체주의를 인식론적 기초에 두는 뉴거버넌스의 조정자 역할로써 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김달수 위원장은 “앞으로 어떤 상임위에 가더라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일순위에 두고 집행부, 공공기관 등과 자유로운 소통을 차곡차곡 쌓아 행복의 크기를 넓혀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6월 9일 열렸다.

이지은 기자

**남운선 의원,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도민 목소리 대변, 우수 의정활동 공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고양1, 더민주) 의원은 17일, 지난 1년간의 우수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운선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이외의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총 55건의 조례안, 건의안 등을 공동발의하였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GSEEK사업 홍보 미흡, 평생교육진흥원의 인건비 투명화, 비법정전출금 결산 절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평생학습체제 법령 포럼, 전 도민 고용보험제 관련 토론회, 대안교육기관 현장 방문 등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이웃들과 함께해요”

GP외국인자원봉사단, 중증장애인 시설서 봉사활동

고양시이민자통합센터(대표 김세영)에서 운영하는 GP 외국인자원봉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30일에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6월 27일에는 장애인직업재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장소를 이전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해 GP외국인자원봉사단에서 적극 참여해 부족한 손길을 채웠으며, 장애인직업재활원에서는 콘서트 조립과 옷걸이 조립 등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들의 작업에 보조역할을 했다.

김세영 센터장은 “GP외국인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무너뜨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생분틴(외국인근로자, 캄보디아)씨는 “시간이 허락되면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했다.

한편 GP외국인자원봉사단은 지난 2019년 발족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지역을 섬기는 일과 지역단체들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사회통합을 이뤄가고 있다.

김영의 기자

"디지털범죄, 제대로 알아 예방해요"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 디지털범죄 예방교육 실시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고양경찰서,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는 디지털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범죄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도입국청소년대상으로 디지털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는 디지털범죄와 관련 청소년 피해자가 늘어남에 디지털 관련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예방하여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대 박중현 경사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SNS를 설명하고 관련 실제 범죄를 사례로 들어 중도입국청소년 이해를 높였고 교육 후 자

신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예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오카나(18세, 몽골)는 “인터넷을 똑똑하게 사용해야 하고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 김세영 교장은 “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는 중도입국의 디지털범죄 예방 교육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외국인자녀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다음 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산장려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변경에 따라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100% 이하에서 12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되며 확대된 기준은 출산(예정)일이 7월 이후인 산모부터 적용된다.

해당 사업의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출산가정에 혜택이 돌아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 일산1동, 저소득 사각 시대 가정에 대한 환경정리 실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동장 김수훈)에서는 지난 22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저소득 사각시대 가정에 대한 환경정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일산1동장을 비롯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여 명, 16·17통장 등은 더운 날씨에도 오후 2시경 저소득 가정에 도착해 침대 매트리스, 의자, 소파 등 대형폐기물 및 오랫동안 고장 난 채 방치된 냉장고, 청소기, TV, 가스레인지, 김치냉장고 등 폐가전과 재활용쓰레기 등을 처리했다.

대형폐기물과 일반쓰레기는 관용트럭을 이용해 선별장으로 보냈고 폐가전은 무료수거업체에 연락해 처리토록 했다. 또한 재활용쓰레기는 분리수거했고 집 내부는 협의체 위원들 모두가 협동해 물청소 및 정리 정돈을 통해 말끔하게 환경정리를 마쳤다.

이번 환경정리 날씨는 6월 일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서 동문1차아파트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재활용분리수거 날’임을 확인하고 정했다.

김수훈 일산1동장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및 환경정리에 참석한 16·17통장님들께 감사사를 표하며, “코로나 재확산 및 무더위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가정을 발굴한 후 솔선수범해 힘든 자원봉사 활동을 함에 뿌듯함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분들을 찾아내어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다문화가족들도 자조모임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정리 등에 나서면 어떨까.

이지은 기자

“감염 취약한 시각지대 경계에 협조” 외국인주민 확진자 발생

안산시, 코로나19 외국인주민 감염 대응 방역대책 등 신속한 긴급회의 개최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역 내 외국인주민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추가적인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윤화섭 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발생하지 않았던 관내 외국인주민 확진자는 지난 6월 4일 서울 관악구의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를 통해 처음 발생한 데 이어 수도권

개척교회, 명성하우징 방문 등으로 전날까지 모두 3명으로 집계됐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9일 외국인의 안전과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민간생활방역단 등을 투입해 중국인동포교회 9개소를 긴급 점검하고 외국인 지원 시설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6월 15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는 윤 시장을 비롯해 외국인주민 기관, 단체장, 종교시설 대표자 등 15개 단체 3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최근 상황을 공유하고 외국인주민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산시는 긴급회의에서 외국인주민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원천 차단을 위해 집단 발생 지역과 유흥시설 등 밀폐, 밀접, 밀집시설의 방문 자제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외국인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고시원, 기숙사,

인력시장 등의 개인 및 사업장 방역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네트워크와 가용 홍보수단을 총동원해 외국인주민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시각지대를 특별히 경계하고 있다”라며 “안산시민이 함께 일궈낸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포용적인 여론이 퍼져 우리 시가 진정한 상호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에 따르면 6월 26일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중이던 외국인주민 20대, 40대 확진자 2명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거주지 및 인근 지역 긴급방역을 했다. 또한, 역학조사 후 안산시홈페이지 및 SNS에 동선을 공개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영의 기자

“韓國社會의差別、障がい者-移住民-高齢者-女性の順で大きいと回答”

10人の韓國人のうち7人は、韓國社會の差別が深刻な水準だと評價している。特に移住民にたいする差別は、障がい者の次に深刻であると認識されている。國家人權委員會が昨年、國民を對象に韓國社會の人權實態を調査した結果だ。

19日人權委によると、昨年初めて實施した2019年國家人權實態調査の結果、韓國では差別が深刻かという質問に、‘たいへん深刻’が13.7%、‘多少深刻’が55.4%、69.1%が深刻だと答えた。‘特に深刻ではない’は29.2%、‘全く深刻ではない’は1.6%。

人權侵害の深刻性については54%が深刻だ、46%が深刻ではないと答えた。

韓國で人權侵害や差別を受ける集團を問う項目では、障がい者(29.7%)がもっとも多く、次に移住民(16.4%)、高齢者(13.4%)女性(13.2%)の順。

人權侵害や差別を受けやすい条件については、貧困層(29.6%)がもっとも多く、學歷・學閥が低い人(18.9%)、前科者(16.2%)、非正規職(12.9%)が後に続いた。

半数以上の回答者が韓国内の差別・人權侵害が深刻だと答えたが、本人の人權についてはおおむね尊重されてい

る方だと答えた。

‘韓国内において本人の人權がどれくらい尊重されていると考えるか’という質問に、71.3%が尊重されている(たいへん尊重3%、尊重されている方だ68.3%)と答えた。尊重されていないという回答は、28.7%(全く尊重されていない2.3%、尊重されていない方だ26.4%)だった。

回答者の學歷や所得など、社會經濟的地位が高いほど、本人の人權が尊重されていると答えた比率も高かった。

國內人權狀況の變化については、肯定的展望が優勢であった。回答者の62.4%が韓國の人權狀況が良くなってきていると評価し、悪くなるは15.4%、同水準は22.1%。

人權委が主管し、統計廳が昨年の8-9月に行った實態調査は、全國の成人男女万3千77人が回答した。

人權委は調査結果を今後の人權政策基礎資料として活用し、今後も毎年實態調査を行い、韓国内の人權狀況に関する基礎資料を蓄積していく予定だ。

一方國家人權委員會は、地方自治團體の災難緊急支援金政策で、外國人住民を除外するのは平等權侵害だという決定を下した。

國家人權委員會は、“外國人登録時に住所を申告している外國人は、地方自治法第12條の住民’に該当し、地方自治法第13條と外國人住民關聯條例に、所屬地方自治團體の財産と公共施設を利用する權利と、その地方自治團體から均等に行政の恩恵を受ける權利を保障するという点において、コロナ19の災難狀況を克服するための地方自治團體の人道主義的支援政策から、外國人住民を異った待遇をする 合理的な根據を探することは困難”だとした。“また災難により脆弱な状態に置かれていることが十分に豫測される狀況で、適切な支援が提供されない場合、該當地域内外國人住民の脆弱性がより悪化す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た。

これに人權委は2020年5月21日第8次全院委員會で、コロナ19による災難狀況で住民の生活安定と地域經濟活性化のための災難緊急支援金政策を樹立・執行し、住民として登録されている外國人住民を異った待遇を行う合理的理由のない差別で、平等權侵害に該当するため、災難緊急支援金政策から外國人住民が排除されることがないように、關聯對策の改善を勸告した。

<한글 기사 1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인구감소 현실로... 이주민이 들어와야 한국의 번영 유지할 수 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15총선 이후 이민정책의 동향과 전망' 포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 사진 왼쪽에서 3번째)는 지난 6월 24일 '2020년 4·15총선 이후 이민정책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이라는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경기도청, 안산시청, 수원과 성남, 시흥, 화성, 김포, 남양주의 외국인복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등 기관에서 모두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오경석 소장은 "온라인이라는 색다른 방식으로 포럼을 진행하게 돼 기쁘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오늘 설동훈 교수님으로부터 총선 이후 이민정책이라는 어려운 주제로 말씀을 듣는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한국의 이민정책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사진 왼쪽에서 첫 번째)는 이날 온라인을 통해 총선 이후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민정책의 다양한 해결과제 등을 제시해 시선을 끌었다.

먼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한국의 인구감소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고 이로 인해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설 교수는 "당초 2028년도에 한국의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그것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이제 내국인만으로는 더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 봉착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의 입국이 줄고 출국이 늘면 인구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민이 인

구감소에 대처하는 유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논란이 된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설 교수는 "한국이 선진국임을 인정한다면 등록된 모든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특히 외국인 중 선별해서 누구만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다만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지급은 세계적으로도 인정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 정책과제로는 ▲이민정책과 이민행정 조직 정비 ▲이주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정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 정비와 종사자 처우개선 ▲재한외국국적동포 포용정책 강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 5가지가 제시됐다.

그는 "한국은 그간 국제이주 압력에 대해 사안별, 이주민집단별, 정부 부처별로 '문제 해결형 단기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이주민정책이 일관성 없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다"며 "이민정책의 비전과 장기·중기·단기 전망을 제시하고, 통합적·체계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직속으로 출입국·이민처 등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설동훈 교수의 강의 이후에는 이날 발표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온라인 포럼이라는 낯선 환경에서도 참가자 모두가 색다른 경험에 집중했다.

오경석 소장은 "설 교수가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이주민 지원 업무를 하는 우리들 모두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환전이 훨씬 간소화됩니다! Обмен валюты упростится в разы!

스마트폰으로 환전 신청하고 ATM, 공항카운터, 면세점, 퀵서비스로 외화 받아오

Процесс обмена валюты постоянно присутствует в жизни иностранца, живущего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В основном данную операцию проводят в банке, как в наиболее надежном месте и с достаточно хорошим курсом. Но не всегда удается попасть в часы работы банка. Бывает так, что иностранная валюта нужна именно здесь и сейчас. Для таких случаев с сентября этого года в Корее произойдут некоторые изменения в системе обмена валюты.

Как только изменения войдут в силу, необходимо лишь будет под

ать заявку в банковском приложении на телефоне. Получить иностранную валюту возможно будет либо курьером, либо в любое время через банкомат, расположенном рядом с круглосуточным магазином (편의점), либо на стойке в аэропорту или в магазине беспошлинной торговли.

Данный способ позволит обменивать валюты бесконтактным способом, что является достаточно удобным также и для туристов, которые испытывают трудности с внутренними счетами. Находясь еще в своей стране можно будет пере

вести деньги онлайн и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в Корею без каких-либо проблем поменять валюту в ближайшем банкомате. Однако существуют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максимальную сумму - до 2000\$ США.

Также в будущем упростится процесс вложения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в ценные бумаги иностранным инвесторам.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ложить в ценные бумаги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необходимо сначала совершить обмен валюты в корейские воны и только после этого возможна покупка.

И ч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теперь при отправке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за рубеж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ином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едоставлять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источник средств, достаточно лишь будет зарплатной выписки.

Конечно, многие изменения в основном касаются бизнеса, инвестиций и инноваций для укрепления экономики во время эпидемии. Однако процесс обмена валюты и для обычных граждан в разы упростится!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경기도 내 고려인 동포 지원과 교육단체 간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국내 거주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이하 너머)는 지난 6월 20일 안산 온누리카페에서 ‘고려인한국어교실 강사, 운영자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과 관련 너머에서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내에서 다양한 지원 및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자,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이번 교육의 목적이라 밝혔다.

고려인 동포의 역사와 체류 현황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이어진 이번 교육에는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택흥사단 ▲안성 로템나무국제대안학교 ▲(사)더큰이웃아시아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박성빈국제학교 등 도내 고려인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개 단체의 운영자, 강사 21여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역량 강화 교육에서 신대광 원일중 수석교사는 ‘고려인의 역사’를, 김준태 동대문외국인정보센터 센터장은 ‘고려인 체류 제도의 현황’을, 김영숙 너머 사무처장은 ‘2020년 현재의 고려인’이라는 제목으로 고려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

충을 소개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의 민원 및 상담 수요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 후에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형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의 경험과 고충을 나누고, 경기도 내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국어교실 현장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 참여가 두드러졌다.

결혼이민자로 (사)더큰이웃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 엘레나 강사는 “고려인들이 국내 생활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를 넘어선 커뮤니티를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너머 김진영 사무국장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고려인마을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도내 고려인 동포 지원, 교육을 위한 시민사회의 자원을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안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지원 및 관리 강화 나선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 내 ‘깜깜이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6월 17일 안산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코로나19 접촉자 68명, 해외입국자 453명 등 521명에 대해 자가격리 앱을 통한 24시간 상시 관리와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2차 감염 예방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안산시는 자가격리 시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14일 이상 자가격리하는 4인 가구에 123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전날까지 모두 205가구에 1억1천800만원이 지원됐다.

또 관내 거주 자가격리자에게는 삼겹살, 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햇반 등 1인당 5만5천원 상당의 관내 농특산물 세트도 지원해 전날까지 231가구에 280세트를 지원했다.

안산시는 앞으로 여름철 기온 상승과 자가격리자 70% 이상이 외국인이고 모텔 등 음식 조리가 곤란한 장소에서 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성품을 즉석밥, 라면, 컵라면, 대부김 세트, 통조림 등으로 변경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안산시는 가을철 버려진 은행나무 열매로 제조한 친환경 천연살충제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지급했다.

안산시 녹지와 산림자원화사업단에서 수거한 은행나무 열매 400kg으로 만든 친환경 천연살충제는 1.5ℓ 병 150개 양으로, 지난 6월 18-19일 단원구 초지동 주말농장과 이남 상록구 한대앞역 인근 농장에서 지급됐다.

안산시는 시민에게 분양되는 도시농업 5개소에서 농약사용이 금지돼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점을 착안, 경작하는 시민이 손쉽게 병해충을 방제하고 친환경 채소와 과일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 외국인주민 대상 비대면 소규모 문화체험 지원한다”

안산 거주 외국인주민 문화요구 충족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시범 사업 운영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의 문화요구 충족을 위한 비대면 소규모 문화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안산시의 대표 관광지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여파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비대면 소규모 문화프로그램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

국인주민 대상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5인 이내의 소규모로 팀을 구성해 최대 이틀 이내의 문화체험 계획을 직접 세워 온라인으로 신청한 외국인주민을 선정해 실시한다. 문화체험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체험에 참여한 외국인주민은 안산의 주요 관광지에 대해 방문지의 특징을 20초 이내의 자국어로 소개하는 영상이나 인증 사진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팀별 최대 3만원 범위에서 체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 관광지 문화체험을 통해 외국

인주민 비대면 문화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위축된 안산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체험에 참여하는 외국인주민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홈페이지(<https://global.ansan.go.kr>) 및 외국인주민지원과(031-481-3298)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 “지역보건과 시민안전 지키도록 철저 대응”



윤화섭 안산시장은 26일 오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관내 A유치원을 방문해 “지역보건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민선7기 2주년 성과보고회를 뒤로 하고 식중독 사고로 폐쇄된 유치원 등 현장을 찾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A유치원은 지난 16일 상록수보건소로 식중독 사고가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100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했으며, 22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며, 9명이 퇴원한 상태다. 안산시는 사고 발생 이후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에 나서는 한편, 이달 말일까지 유치원을 폐쇄조치했으며 원생 및 교직원, 이들의 가족, 식재료 납품업체 직원 등 모두 295명과 환경검체 104건에 대해 검체를 채취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준 환경검체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인체검체에서는 49건이 양성, 147건이 음성, 99건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 시장은 “학교급식법상 조사나 처분 권한을 준 교육당국에 조속한 조사와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보건과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시 입장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권고 수준을 넘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유치원 폐쇄로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진 부모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1시께 화재 사고가 난 안산 시재활용선별센터를 찾아가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된 부서가 하나로 힘을 모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불은 옥외작업장 내에서 발생했다가 1시간30여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윤 시장은 이와 함께 전날 식중독 사고가 보고된 또 다른 유치원을 찾아 대응실태를 파악하고, 추가 감염예방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식중독 신속검사 진단결과 8건 중 1건에서 장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됐으며, 일시폐쇄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윤 시장은 이날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와 안산스마트허브를 잇따라 방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현황 등을 살펴봤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 식중독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안산시 청소년협의회에 대해 묻다.

안산시청소년협의회는?

안산 Global Youth Center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안산시청소년협의회 대표 (경기타원내일 대표) 이국희

안산시청소년협의회 설립 취지는 무엇인가요?

청소년은 사회에서 어떤 다른 취약계층보다 사회적, 국가적 돌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집단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긴 하지만 아동은 돌봄으로 지역사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지역사회에 수용되어있지 않고 학교와 학원에만 수용되어 있어요. 청소년관련 이슈에 대해서 공공의 영역과 민간영역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안산시청소년협의회(이하 '안청협')가 설립되었습니다. 청소년기관과 단체들이 이슈가 있을 때 시간별로 연대하기 위해서 안청협같은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활동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청협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의 장을 지역사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99년부터 청소년 기차단 활동, 합합 페스티벌 등을 10년 이상 하였고, 지역 내일신문에 학생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실어주기도 하였고 합합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 안산고, 경일고, 송호고 학생들이 1년 동안 준비하곤 했고, 안산 합합 페스티벌에서 뽑힌 아이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활동이 청소년 문화이고 많은 청소년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안산은 건국의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기 전에 이미 청소년봉사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청소년 자원봉사단으로 연간 약 15,000명이 활동 하였고, (웃음)

점점 더 많은 청소년을 아우르는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단체의 법적 지위가 없으니 활동이 지속되거나 발전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청소년 이용시설에 관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민간에서도 이러한 청소년 이용시설을 만들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안청협이 발족하게 되었는데요. 청소년 자유공간에 관한 문제에서도 안청협이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거버넌스, 허브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너너드럼' 대표 윤민진

'안청협'의 최근 이슈는 무엇인가요?

안청협에서는 청소년 자유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이슈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준 틀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의 공간 이야기를 하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왜 꼭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하나요? 청소년들이 학교, 학원을 벗어나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싶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청소년들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틈마다 자유공간이 있다면 청소년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만들어가고 청소년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청협'에서 다루고 있는 중점사업은 무엇인가요?

자유공간 이슈를 포함하여 2020 안청협의 중점사업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호주 등 해외의 아메리치시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빈 교실을 청소년 자유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셋째는 청소년노동인권 보장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시제조사와 하고 청소년지도자 대상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디지털 상범리자 위장, 합정수사법제화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고 해외시제를 수집하여 근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잘 추진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안산시청소년협의회와 법적 지위를 마련하는 것입니.

'안청협'에서 다루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 이슈는 무엇인가요?

안청협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단체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인데요. 청소년 자유공간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있고, 자유공간에서 선-이주인 청소년들이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호이해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자유공간이 우리에게도 열려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에 열린 자유공간이 되어야겠죠.

이번에 '청소년이 꿈꾸는 사월'이 주관하고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중요하고 더 시급하게 생각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있고, 당장 핸드폰이 없으면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말이 서툰 이주배경청소년은 자신이 한 노동에 대해 권익 보호를 받기 어렵고 임금체불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호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이주배경청소년을 포함하여 시각장애에 있는 근로 청소년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안청협에 속해있는 기관들이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청협이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자유공간도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 작업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유공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확보와 운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곳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은 행복하고 건강한 청소년 삶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6월 '이슈&인물' 인터뷰는 2020년 6월 12일 청소년 문화공간 '너너드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연락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310-1111
-이. 간: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위한 교육 지원 협력해요

안산시평생학습관과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교육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안산시평생학습관(관장 최라영)과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이승미)는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문화 청소년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상록구 지역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

원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안산시평생학습관과 교육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6월 15일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최라영 관장과 이승미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다문화 가

정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상호 지원, 인적, 물적 자원 지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항을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기관은 공동협력 사업의 첫 시작으로 다문화 청소년 프로그램 ‘안녕! 한국어 예비학교’를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승미 센터장은 “최근 상록구에 증가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자녀 등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초기 적응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평생학습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줘 이주배경 청소년 누구라도 적응의 어려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디딤돌을 놓이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산시평생학습관 최라영 관장은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협력해 제공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을 돕고, 더 나아가 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다문화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관장은 또 “학습자 인원의 5배수 크기의 강의실을 배정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자리를 지정하는 것은 물론, 학습관 입구에서 발열 체크, 손소독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홍보물 비치 등 감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감염병이 의심될 때?

이제, 콜톡하세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 실생활 질병상담 및 감염병 신고
-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 발신자 부담없이 누구나 이용가능
- 전화뿐만 아니라 카톡 문자상담까지!

지금 질병관리본부를 카카오톡에서 만나보세요!

STEP 1

카카오톡 실행

STEP 2

친구 목록 상단의 검색창 클릭

STEP 3

ID검색에서 KCDC질병관리본부 입력 후 친구추가!

@KCDC질병관리본부 검색!

발행일 2017. 4. 17. (월)

더 자세한 질병정보는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를 검색하세요.

자가격리 무단이탈 카자흐스탄 여성 고발

입국 나흘 만에 확진...수시로 외출한 사실 확인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외출한 사실이 확인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 여성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을 알면서도 함께 외출한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안산으로 온 A씨는 입국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지난 27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28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안산시는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 입국 뒤 이동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원구 고잔동 모처를 거주지로 신고한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입국 직후 같은 날 오후 9시30분에 집을 나가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고잔동과 중앙동 일대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어 지난 26일 오후 11시쯤 외출해 강원도 일대를 다녀온 뒤 다음날

오전 6시30분에 귀가했다.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확진판정과 무관하게 3일 내 진단검사와 함께 이달 8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안산시는 자가격리 안전보호업을 활용해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영상통화를 통해 철저한 수칙 준수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주간에는 집에 있다가, 야간 외출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A씨가 외출해 방문한 장소에 대해 방역조치를 모두 마쳤다.

안산시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A씨가 자가격리자인 것을 알면서도 함께 어울린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외출 당시 함께 다녔던 같은 국적의 여성 B씨는 A씨보다 앞서 안산으로 와 지난 10~24일 자가격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는 함께 어울린 일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19가引き起す變化、女性の健康を脅かす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 여성 건강 위협한다 '3가지 질환에 대한 대응'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코로나19)が世界を変えてしまった。政治、経済、社会全般はもちろん、個人の日常にまでコロナ19がもたらした変化は大きい。誰も準備していなかった、誰も避けることができない変化だ。

急な変化は、混乱とストレスを引き起す。当分は相当な混乱とストレスが続くという豫想が支配的だ。環境や生活の変化は、人體にも小さくない影響を与える。特に小さな変化やストレスにも敏感な女性には、より大きな影響を及ぼすことがあるので注意が必要だ。

生理不順

女性にとって目立った変化のひとつが生理不順だ。生理は女性の子宮と卵巢の健康を周期的に知らせてくれる指標だ。2~7日間で20~70mLの量が正常的な生理範囲だ。醫學界ではこの範囲外を生理不順とする。例えば新しい薬を服用したり、過度の運動をしたり、

更年期が始まると生理不順になることがある。

それ以外の状況で生理不順となる最も有力な原因はストレスだ。ストレスはホルモン分泌に問題を引き起し、生理を遅らせる。旅行や引越し、離職のような個人的な日常生活の小さな変化にも、生理が普段より遅れることがある。そうするとコロナ19による急な日常の変化も、生理不順の原因として作用する可能性がある」と専門家は警告する。

生理不順は女性の健康に異常があるという早期信号だ。コロナ19によるストレスが増大している今日、自分の生理周期により關心をもち、少しでも異常があれば専門医の診察を受けることを勧める。

主婦濕疹

コロナ19は女性の手の健康にも赤信号を点した。オンライン授業、在宅勤務と家族が家に居る時間が増えたので、主婦たちは水仕事が続く毎日だ。

毎食の準備に掃除が続く。主婦濕疹は皮膚にいくつかの物質が浸透し、アレルギー反應と炎症を起こす皮膚疾患だ。水や洗剤、食材に触れる主婦によく見られるため主婦濕疹と名付けられた。金属や化学薬品、プラスチック、土などの刺激を受けても主婦濕疹ができることがある。

特にコロナ19により使用が激増した手の洗淨剤や消毒剤も、主婦濕疹を悪化させる主要要因だ。

主婦濕疹を豫防する最善の策は、洗い物や洗濯時に素手ではなくゴム手袋を使用すること。また手を洗うときに面倒くさがらずに指輪を外そう。指輪の下に残る石鹸や洗剤が、濕疹を引き起す可能性がある。手を洗った後には清潔なタオルで指の間もしっかり拭き、必ず保湿液を塗ること。

不眠症

コロナ19の感染拡大により眠れないという人が多い。毎日のように感染者發生のニュースが耳に入り、日常生活

に制約が増えたため、熟睡できないのだ。横になっても眠くないので夜中に起き出してテレビを観たり、作業を始めてしまって昼夜逆転してしまうことも。

しかしそんな生活を続けていると、人體は免疫力を維持することが難しくなる。昼夜逆転して生活リズムまで狂ってしまうと、免疫力が落ちる危険はより高くなる。コロナ19感染拡大が危惧される時期に、免疫力減少は避けたいものだ。

専門家は熟睡するためには適切な運動を周期的に行い、食事時間を規則的に調節することが大事だとアドバイスする。最初は慣れなくても、毎日同じ時間に寝て起きることを体に覚えさせることが重要だ。適正水準の免疫力を維持するためには、睡眠時間を最低でも毎日6時間以上確保せねばならない。資料：國民健康保險公團

<한글 기사 36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생활쓰레기 배출일·시간 준수!! 깨끗한 안산만들기의 시작입니다.

☑ 생활쓰레기 배출은 지정수거일 전일 오후 8시 ~ 당일 오전 6시까지 내 집,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쓰레기		매일 수거(일요일 제외) [흰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일요일 제외) [오렌지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대형폐기물		월·목요일 수거 [납부필증 부착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http://waste.iansan.net) 후 배출 / 단, 1m미만 소형폐기물은 무상수거]
재활용품		화·금요일 수거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소량건설폐기물 (타일, 유리 등 안타는 쓰레기)		매일 수거(일요일 제외) [소량건설폐기물 전용미대에 담아 배출 후 해당 구청에 수거요청 접수] ·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 ☎ 031)481-5983 ·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 ☎ 031)481-6971
연탄재		수요일 수거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생활쓰레기를 **불법투기** 또는 **소각** 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산시 자원순환과** ☎ 031)481-2258~2259

재활용 품목 및 배출요령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나 소량건설폐기물 미대에 담아 배출

구 분	재활용이 되는 품목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배출 요령
종이류 	신문지, 책, 공책, 복사지, 종이상자	다른 재질과 혼합 구성된 종이(영수증, 벽지, 비닐 코팅종이 등), 오염된 종이, 부직포 등	비닐코팅, 스프링, 테이프 등 다른 물질 제거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
종이팩 	우유팩 및 음료수팩, 종이컵	이물질이 묻은 것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말려서 압착하여 배출
유리병류 	음료수·술병, 식료품병, 화장품병 등	도자기, 거울, 식기류, 전구 등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배출
캔·고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살충제·부탄가스용기, 스텐, 일반고철	페인트통, 폐유통, 합성철사 제품 등	캔은 다른 재질 뚜껑을 제거하고, 살충제·부탄가스 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플라스틱류 	플라스틱 용기류 (페트병 등), 상품 포장용기	일약포장재, 칫솔, 키세트 테이프, CD, 혼합재질 플라스틱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한 후 배출
스티로폼 	가전제품 포장재, 과일·농수산물 상자 등	이물질이 묻은 것, 컵라면 용기, 과일 개별 포장재 등	주소용지, 테이프, 오염물질 등을 제거한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닐류 	1회용 비닐봉투, 공산품 포장 필름류	흙,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것, 얼음팩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 제거 후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
폐형광등 폐건전지 	형광램프, 폐건전지	LED등, 백열전구	전용수거함에 배출

 **안산시 자원순환과** ☎ 031)481-3537~3538



2. 대한민국 통화와 물가

Mata uang dan Harga Barang di Republik Korea

다. 물가

Harga Barang

*물가가 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Mari kita bayangkan, Anda membawa uang 5,000 won dan pergi untuk membeli mainan yang pernah Anda lihat sebelumnya. Akan tetapi ternyata harga mainan itu sudah naik dan tidak lagi berharga 5,000 won sehingga Anda tidak bisa membelinya. Jika hal tersebut terjadi, cara apakah yang Anda pilih agar dapat membeli mainan tersebut? Mungkin jawabannya ada pada salah satu pilihan berikut.

1. Membeli mainan lain yang harganya lebih murah.
2. Tidak membeli mainan sebagai gantinya membeli komik.
3. Tidak membeli apapun dan menyimpan uang tadi, kemudian menabung sampai uang Anda cukup untuk membeli mainan tersebut. Pasti hal tersebut menyebalkan, bukan? Karena Anda tidak bisa membeli barang yang sebelumnya bisa dibeli dengan harga 5,000 won.

*Apakah yang terjadi jika sebagian besar harga barang-barang naik?

Seperti yang telah kita bahas, jika harga dari suatu barang (misalnya mainan) naik, maka kita bisa menggantinya dengan membeli barang yang lain. Akan tetapi, jika sebagian besar harga barang (misalnya buku komik dan lainnya) pada saat yang sama juga mengalami kenaikan, maka pilihan barang yang bisa kita beli akan semakin berkurang dan akhirnya akan membuat nilai dari uang yang kita miliki menjadi turun. Singkatnya, sebelumnya banyak yang bisa dibeli dengan uang 5,000 won sebelum harga-harga naik, tetapi sekarang barang tersebut tidak dapat dibeli. Menabung sampai jumlah uang cukup pun mungkin tetap membuat kita segan membelinya. Karena mungkin saja harganya akan kembali naik.

Jika 'Harga Barang' mengalami kenaikan sedikit demi sedikit hal tersebut tidak akan menjadi masalah yang sangat besar. Hal yang demikian dapat dikatakan sebagai 'tingkat inflasi rendah'. 'Inflasi' dapat ditunjukkan dalam satuan persentase (%). Misalnya harga mainan saat ini adalah 10,000 won per buah, jika tahun depan terjadi kenaikan 'Harga Barang' sebesar 1%, maka harga mainan

tersebut akan naik menjadi 10,100 won.

Jika perekonomian tumbuh stabil, 'Harga Barang' akan naik seiring dengannya. Jadi jika negara mengalami pertumbuhan perekonomian sebesar 5% dibandingkan dengan tahun lalu. Apabila 'Harga Barang'-nya juga mengalami pertumbuhan yang sama yaitu 5%, maka kenaikan 'Harga Barang' itu tidak akan terasa memberatkan.

그러나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이를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말하는데,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을 뜻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의 임금도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제품을 만드는데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됩니다. 제조비용이 늘어나면 다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가가 안정되어야 오늘 구입한 이 상품을 내년, 후년에도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Akan tetapi jika 'Harga Barang' naik dengan sangat cepat maka akan menimbulkan

berbagai macam permasalahan. Hal tersebut dapat dikatakan sebagai 'tingkat inflasi tinggi'. Artinya kita akan membutuhkan lebih banyak uang dibandingkan dengan dulu untuk membeli barang kebutuhan sehari-hari.

Jika 'Harga Barang' naik, maka upah buruh juga akan naik, dan jika upah buruh naik maka uang yang dibutuhkan untuk memproduksi suatu barang juga akan naik. Dan jika ongkos produksi naik, maka harga barang akan kembali naik dan begitulah seterusnya perputaran itu terjadi.

Karena itulah mengendalikan 'Harga Barang' dan menstabilkan harga merupakan hal yang sangat penting. Dengan harga barang yang stabil, maka barang yang kita beli hari ini akan dapat kita beli dengan harga yang sama di tahun depan, dan tahun-tahun berikutnya.

- 물가지수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물가지수란 물가의 움직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치화한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은 여러 가지 품목들의 가격과 우리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분석한 뒤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물가를 '우리의 생활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매일 소비되는 상품(쌀, 물, 야채 등)은 한 번 사면 꽤 오래 쓰는 물건(침대, 가구, 피아노 등)보다 더 중요하고, 따라서 물가지수에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가의 변동은 생산?소비?투자 등 한 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지수는 경기 흐름을 분석하거나 각종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통계자료입니다.

흔히 물가지수는 체온계에 비유됩니다. 우리는 열이 날 때 체온계로 몸의 온도를 잽니다. 열이 높으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갑니다. 마찬가지로 물가지수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면 생산 소비 투자 등 국민경제의 안정성에 이상 징후가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 결정하게 되지요.

- Apakah yang dimaksud dengan indeks 'Harga Barang'? Mengapa dibutuhkan?

Indeks 'Harga Barang' adalah standar yang dapat digunakan untuk mengetahui pergerakan harga barang dengan mudah. Bank Sentral Korea secara rutin meneliti dan menganalisis berbagai macam harga barang kebutuhan hidup dan kemudian mengumumkan 'Indeks Harga Barang'. Jika 'Harga Barang' dilihat dari sudut pandang sebagai 'indikator yang merefleksikan kehidupan kita', maka barang yang dikonsumsi sehari-hari (misalnya beras,

air, sayur, dan lainnya) akan lebih penting jika dibandingkan dengan barang yang dapat digunakan dalam jangka waktu lama (misalnya kasur, furnitur, piano, dan sebagainya), sehingga dengan demikian akan banyak hal yang dapat direfleksikan pada 'Indeks Harga Barang'.

Karena pergerakan 'Harga Barang' mencerminkan hasil dari kegiatan perekonomian

negara seperti produksi, konsumsi, investasi dan sebagainya, maka 'Indeks Harga Barang' dapat menjadi data statistik terpenting yang paling mendasar dalam menganalisa pergerakan perekonomian atau penyusunan kebijakan perekonomian.

'Indeks Harga Barang' biasanya diibaratkan sebagai sebuah termometer. Saat kita demam maka kita bisa membaca suhu tubuh kita dengan menggunakan termometer. Jika suhu tubuh terlalu tinggi, berarti ada gangguan pada kesehatan kita dan kita akan pergi ke rumah sakit untuk melakukan pengobatan. Sama halnya dengan 'Indeks Harga Barang', apabila tiba-tiba naik dengan cepat maka dapat diketahui bahwa ada yang tidak beres dengan kestabilan produksi, konsumsi dan investasi. Dengan mendeteksi kondisi tersebut, dapat ditentukan kebijakan apa yang akan diterapkan.

▶ 물가지수

Indeks Harga

- 그럼, 물가지수는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의 가격을 측정해서 만드나요?

모든 제품의 가격 변화를 추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비교적 자주 쓰는 대표적인 품목들을 중심으로 가격 변화를 추적하여 물가지수를 계산합니다.

- Kalau begitu, apakah 'Indeks Harga Barang' dapat menjadi tolok ukur harga dari barang-barang yang kita pakai?

Memperkirakan perubahan harga semua barang adalah hal yang sangat mustahil dilakukan. Karena itu hanya beberapa barang yang paling banyak dikonsumsi dalam kehidupan sehari-hari digunakan sebagai pembanding guna mengetahui pergerakan harga dan menghitung 'Indeks Harga Barang'.

외국인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소식, 이제 이주민이 쓴다

경기도와 아시아문화연구원,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위촉식 진행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도내 외국인주민 24명을 SNS기자단으로 위촉했다.

경기도와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원장 김용국)은 지난 6월 16일 연구원 교육실에서 제1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24명의 외국인기자단은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의료코디네이터, 강사,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

됐으며, 경기도는 이들에게 위촉장과 함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기자증 등 각종 취재물품을 제공했다.

이들은 페이스북, 위챗, 인스타그램 등 SNS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정보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경기도와지역사회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국내 외국인 관련 주요 정책, 바뀌는 제도, 상담 및 지원 관련 정보와 도정소식, 지역 축제-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각자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5월부터 불법체류자 코로나 무료검사,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 브리핑 등 중앙부처 및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책 내용을 번역해 홍보하는 작업으로 기자단 활동을 시작했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SNS와 영상콘텐츠 발달로 실시간 양방향 소통 방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맞춤형 홍보의 역할 역시 커져가고 있다"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이 한국사회와 외국인 주민을 긴밀히 연결하는 가교 역할은 물론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많은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아시아문화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기자단의 다양한 소식을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안산시 이주배경 청소년 온라인 교육 지원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코로나 시대 교육방식 변화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학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소집단 교육 등을 활용한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방식 변화를 모색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산시가 위탁중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휴관 및 대면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해 지난 3월초부터 과목별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왔다.

또 SNS 및 전화통화를 활용한 개별학습 지원 및 상담을 통해 지난달 23일 시행한 1차 검정고시 시험에서 초등 1명-중등 1명-고등 3명 등 총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 검정고시 합격은 새로운 수업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와 아이들의 새로운 도전과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로 다른 해에 비해 의미가 더욱 뜻깊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활용한 1대 1 실시간 화상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줌(Zoom) 등을 활용해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저연령 대상 1대 1 가정방문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안산시는 코로나19 대안으로 시작된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 활용 수업은 기존 오프라인 수업의 부족한 점을 채워줌으로써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더 효과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은 어려울 것 같았던 진로특강 진로상담의 경우에도 1대 1 화상수업 및 콘텐츠 활용 수업을 통해 심층적인 상담과 활동으로 이뤄져 참여자와 지도교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사회적 관계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더욱 고립되고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온라인으로 교사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학습 지원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게 하므로 온라인 및 소집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우리 가족 슬기로운 독서생활 다문화가족, 영상에 담아요"



다문화가족의 독서 생활을 영상에 담아보자. 안산시 평생학습관(관장 최라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독서캠프를 대신해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캠프'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에서는 매년 여름방학에 '아빠와 함께하는 1박 2일 독서캠프'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우리가족 슬기로운 독서생활' 등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영상물은 책을 매개로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문화 활동으로 책을 읽고 가족과 토론하는 내용은 물론 책 속 주인공 인형 만들기, 책 속 동물이나 식물 키우기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면 된다. 초등학생 자녀가 포함된 안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휴대폰 및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술과 기기를 활용해 3~5분 분량의 영상물을 제작해 신청서와 함께 7월 20일까지 이메일(eduansan@iansan.kr)로 접수하면 된다. 031-409-1877 이지은 기자

‘이주배경 청소년 공교육 진학 지원,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확대’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강은이 시흥건가다가 센터장 위촉장 받아

정부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공교육 체계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과 20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는 국무총리(위원장)를 비롯해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식품부, 국무조정실의 고위 공직자 10명과 ▲강은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영란 숙명여대 교수 ▲김진형 연합뉴스 상무이사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상석 공존플랜 소장 ▲이철우 연세대 교수 등 민간위원 6명이 참여하고 있다. 강은이 센터장은 이날 위촉장을 받았다.

부모나 본인이 이주를 경험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국내 약 54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공교육 체계로 수월하게 진입해 균등

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중언어를 비롯해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심화될 우려가 있는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했다.

정부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체계 진입을 돕기 위해 학교 배정 방식을 바꾼다. 지금까지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직접 거주지 내 중학교의 결원을 확인해 개별 학교장에게 입학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허가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시·군 단위 교육청장에게 입학을 신청하면, 교육청이 관내 결원을 고려해 학교를 배정한다. 취학 절차상의 편의를 높이고, 특정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편중되는 현상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학 학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력심의회위원회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위원을 기존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도 충원해 위원회 개최와 학년 결정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학 전 사전 준비교육 '징검다리과정'과 한국

어 집중교육 학급도 확대된다. 또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법무부가 교육부·여가부로 정보를 연계해 13개국 언어로 번역된 입학 안내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 경제적 참여 확대 ▲상호존중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결혼이민자의 역사가 20여년이 되어간다. 다문화가족은 그 구성원이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비율도 61%에 이르는 등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양성은 그 자체로 힘이 된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성취를 이뤄갈 수 있도록 또 차별을 겪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코로나19 속 다문화가족에게 도움 될 다양한 정보 모았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 및 지원 등을 실시한다.

#온라인 평생학습 강좌 운영

시흥시는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및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지식(GSEEK)을 통합 운영한다.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지식(GSEEK)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양하고 질 높은 웹/모바일 환경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교육, 청소년교육, 외국어, IT, 자기개발, 자격취득, 생활취미, 인문소양 8개 분야의 1,300여 개 학습과정을 제공한다.

온라인 강좌 신청은 시민 누구나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 홈페이지(www.gseek.kr)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가능하다.

회원가입 시 이점은 이수한 과목에 대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수강신청 후 수강 현황 목록, 학습 진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앱으로도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으며, 동영상은 내려받을 수 있어 데이터 없이도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지식(GSEEK)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평생학습과로 문의(031-310-2539)하거나 시흥시 홈페이지, 시흥시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 방문 시 ‘QR코드 찍으세요’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됐다.

시흥시중앙도서관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15일부터 시흥도서관에 출입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로그인 후 QR코드를 발급받아 도서관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된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로 암호화된 QR 사용, 이중 보관이 가능해졌고 개인정보의 노출이 원천적으로 방지되어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시흥시도서관 관계자는 “더불어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는 수기로 출입명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방문자 확인 방식을 병행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흥시중앙도서관은 시민의 안전은 물론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여름 공원 물놀이시설 운영 안 한다

시흥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여름철 시민들에게 개방, 운영하던 공원의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물놀이시설(갯골, 한울)을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시흥시는 물놀이시설이 유아, 어린이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다수의 이용자가 한정된 공간에 장시간 머물게 됨에 따라 타인과 신체접촉 가능성이 크며 물속에 불특정 다수가 들어가는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김영의 기자

‘Матер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до и после родов’

중앙정부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다양한 출산지원제도 6가지 살펴보아요



Возможно вы ни раз слышали новости о том, что в Корее сейчас происходит что ни есть самая настоящая демографическая катастрофа. Коэффициент суммарной рождаемости за последние 60 лет упал практически в 6 раз и,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ке на 2017 год, составляет 1,05.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понимает всю проблему и пытается всячески стимулировать рост темпов рождаем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и материально. Как оказалось, не многи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знают об основных выплатах, которы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сле постановки на учет по беременности. И в этой статье я попробую рассказать о видах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беременным и уже родившим женщинам.

Карт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частья

Это карта, которая представляет из себя набор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ваучеров, таких как: “Поддержка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по беременности и родам”, “Поддержка медицинских расходов по беременности и родам” и “Поддержка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новорожденных” и др. Поэтому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не только в больницах, но и в аптеке. Поддержка составляет 600 000 вон на каждую беременность. Компаний, выпускающих данную карту,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Самсунг, Лотте и др). Поэтому каждый выбирает из своих предпочтений.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либо лично посетив отделения банка, либо же через сайт <http://www.voucher.go.kr>, где также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со всеми деталями.

Скидка на страховой взнос на наземный вид транспорта

После подтверждения беременности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скидки при внесении страхового взноса на машину. Размер скидки разнится от страхового

й компании и вида программы. Но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может достигать до 15%.

임신 축하금

Это материальная помощь связана с поздравлением с беременностью и поддержко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для беременных.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с момента становления на учет по беременности,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вы являетесь резидентом города, где вы проживаете, не менее 3 месяцев. Для каждого города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размер выплаты разный. Например, г. Анян 100 000 вон, г. Гунпо 100 000 вон и т.д.

출산장려금

Данная выплат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сниж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бремени на ранних этапах после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и создания атмосферы, способствующей рождению. Для каждого города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размер выплаты разный.

출산선물

Подарок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каждая семья с новорожденным. Наполненность зависит от города проживания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Так, в городе Анян данная программа носит название “Счастливый ребенок” и заключается она в том, что после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вы получаете 100 000 вонусов, которые можно потратить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м магазине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е. вы можете выбрать то, что именно нужно вам и вашему ребенку.

경기도 산후조리비

Период действия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ы заканчивается 31 декабря 2020 года. Условием участия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до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необходимо прожить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не менее 1 года. Независимо от дохода размер выплаты составляет 500 000 вон на одного ребенка. Как видите,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существует множество программ для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рождаемости.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실제로 인구 통계학적 재앙’이라는 소식을 한번 이상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총 출산율은 거의 6배 감소했으며 2017년 통계에 따르면 1.05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재정적 문제를 포함하여 출생률의 상승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임신 확인 후에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신부와 이미 출산한 여성에 대한 지원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이 카드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과 같은 일련의 정부 바우처입니다. 따라서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임신할 때 마다 60만원입니다. 이 카드를 발행하는 회사는 많습니다.(삼성, 롯데 등)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카드회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웹 사이트(www.voucher.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 보험료 할인

임신을 확인한 후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규모는 보험 회사와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최대 15%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임신 축하금 지원

이 재정 지원은 임신부의 임신 지원 및 건강 지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도시 거주자인 경우 임신 등록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각 도시마다 지불금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안양시 10만원, 군포시 10만원 등입니다.

출산장려금

이 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후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도의 각 도시마다 지불금이 다릅니다. 시흥시는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부터는 1,000만원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편입니다.

출산선물

신생아가 있는 각 가족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경기도 거주 도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행복한 아기”라고 하며,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정부로부터 10만원의 보너스를 받아 전문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각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에서의 선물은 큰 수건 1개와 손수건 5개로 구성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이 프로그램의 만료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조건은 출산 전에 경기도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울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코로나 진단 검사받은 외국인.결혼이민자 신청!

시흥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긴급 지원키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받은 외국인주민. 결혼이민자 중 취약노동자라면 시흥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해야 하는 취약노동자에게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생계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조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의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지급 대상은 6월 4일 이후로 신청일 현재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해당일 이후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사의 소견에 의해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

리를 이행한 경우 해당된다.

신청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통보받은 이후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이메일(sprowell08@korea.kr) 또는 우편신청(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4층 일자리총괄과)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6월 18일 이후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홈페이지의 ‘고사·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통해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해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하는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려는 조치”라며 “이를 통해 더욱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일자리총괄과(031-310-6241)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스마트시티 시흥 리빙랩’ 추진 다문화가정 학생 소통 지원 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은 시민과 함께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스마트시티 시흥 리빙랩’ 사업을 시흥시와 함께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리빙랩이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 등이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스마트시티 시흥 리빙랩’ 프로젝트는 환경-에너지-생활복지 분야의 도시 문제 해결을 주제로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였으며, 팀 활동을 통해 도출된 우수 솔루션은 향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자유제안 과제로 검토 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추진되는 주제는 ▶시흥시 안전지도 만들기 ▶Io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 ▶다문화 학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이다. 이지은 기자

Corona 19 คุณภาพของผู้หญิง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 여성 건강 위협한다

การติดเชื้อ coronavirus ใหม่ (Corona19) กำลังเปลี่ยนโลกการเมืองและเศรษฐกิจแน่นอน, 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ที่นำโดย Corona 19 ได้ซึมเข้าไป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นั่นคือ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ที่ไม่มีใครได้เตรียมไว้สำหรับแต่ไม่มีใครสามารถหลีกเลี่ยง

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อย่างฉับพลันทำให้เกิดความสับสนและความเครียดมันถูกรอบง่าด้วยความคาดหวังว่าจะยังคงมีระดับความสับสนและความเครียดในระดับที่มากจนถึงขณะนี้จนกระทั่ง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ได้เกิดขึ้นในสังคมของเราและทั่วโลก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ใน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และชีวิตมีผลเล็กน้อยต่อร่างกายมนุษย์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ผู้หญิงที่มีความอ่อนไหวต่อ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เล็กน้อยหรือความเครียดอาจมีผลกระทบมากขึ้นดังนั้นจึงจำเป็นต้องให้ความสนใจ

ประจำเดือน

ความผิดปกติของประจำเดือนอาจมี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ที่เห็นได้ชัดในผู้หญิงการมีประจำเดือนเป็นตัวบ่งชี้ปกติของสุขภาพมดลูกและรังไข่ของผู้หญิง ช่วงปกติของประจำเดือนอยู่ที่ 20 ถึง 70 มิลลิลิตรใน 2 ถึง 7 วันในโลกการแพทย์ถือว่าเป็นสิ่งเจือปนทางสรีรวิทยาตัวอย่างเช่นความผิดปกติของประจำเดือนอาจเกิดขึ้นเมื่อมีการใช้ยาใหม่ออกกำลังกายมากเกินไปหรือเริ่มหมดประจำเดือน

หากคุณมีความผิดปกติของประจำเดือนแม้ภายใต้สถานการณ์เหล่านี้ความเครียดเป็นสาเหตุที่เป็นไปได้มากที่สุด ความเครียดอาจทำให้เกิดการหลั่งฮอร์โมนซึ่งสามารถชะลอระยะเวลาของคุณ แม้แต่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เล็ก ๆ น้อย ๆ 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ส่วนตัวเช่นการเดินทางการเคลื่อนไหวและการลาออกก็สามารถชะลอการมีประจำเดือนได้ เมื่อคำนึงถึง

สิ่งนี้ผู้เชี่ยวชาญบอกว่า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อย่างฉับพลัน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ที่เกิดจากโคโรนา 19 อาจทำหน้าที่เป็นสาเหตุของความผิดปกติของประจำเดือน

ความผิดปกติของประจำเดือนเป็นสัญญาณเริ่มต้นของปัญหาสุขภาพของผู้หญิง Corona 19 มีความเครียดเพิ่มขึ้นดังนั้นหากคุณสนใจรอบเดือนปกติและแปลก ๆ คุณต้องขอ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จากผู้เชี่ยวชาญ

แม่บ้าน

Corona 19 ยังส่งสัญญาณสีแดงเพื่อสุขภาพมือของผู้หญิงจากการศึกษาออนไลน์เพื่อการสื่อส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เวลาที่ทุกคนในครอบครัวอยู่ที่การเพิ่มขึ้นของบ้านดังนั้นแม่บ้านไม่มีวันให้วางมือของพวกเขา หันไปรอบ ๆ มันถึงเวลาสำหรับการรับประทานอาหารและการทำความสะอาดและการทำความสะอาดที่ไม่มีที่สิ้นสุดดังนั้นมันจึงเป็นเรื่องง่ายที่จะได้รับจากแม่บ้านกลาง

อาการของแม่บ้านเป็นโรคผิวหนังที่ทำให้เกิดการแพ้และอักเสบเนื่องจากสารต่างๆแทรกซึมผ่านผิวหนังบริเวณที่เป็นแผลน้ำหรือผกซ็อกหรือเรียกว่ากลากของแม่บ้านเพราะเป็นเรื่องธรรมดาในหมู่แม่บ้านที่มักจะสัมผัสส่วนผสมอาหารโลหะหรือเคมีภัณฑ์พลาสติก, กลากของแม่บ้านสามารถเกิดขึ้นได้แม้ว่าวันจะระคายเคืองมากเกินไป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การฆ่าเชื้อโรคด้วยมือและการฆ่าเชื้อโรคด้วยมือซึ่งมักใช้เนื่องจากโคโรนา 19 ในปัจจุบันถือว่าเป็นปัจจัยหลักที่ทำให้กลากของแม่บ้านแยลง

วิธีที่ดีที่สุดในการป้องกันโรคเรื้อรังกลากแม่บ้านคือการสวมถุงมือยางแทนที่จะใช้มือเปล่าในการล้างจานหรือซักผ้า นอกจากนี้เมื่อคุณล้างมือควรถอดแหวนออกแม้ว่ามันจะนำ

ราคาญก็ตามนี้เป็นเพราะสบู่หรือผงซักฟอกตกค้างได้วางแหวนอาจทำให้เกิดโรคเรื้อรังกลากได้หลังจากล้างมือเช็ดให้ทั่วด้วยนิ้วมือนิ้วด้วยผ้าขนหนูสะอาดและให้แน่ใจว่าใช้ครีมบำรุงผิว

โรคนอนไม่หลับ

หลายคนนอนไม่หลับตอนกลางคืนเพราะโคโรนา 19 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พวกเขาไม่สามารถนอนหลับฝันดีได้เพราะพวกเขากังวลเกี่ยวกับข่าวของบุคคลที่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ที่เข้ามาทุกวันและเขย่าวง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ของพวกเขา ฉันไม่สามารถนอนหลับได้แม้ในขณะที่ฉันนอนราบดังนั้นฉันจึงดูทีวีหรือทำงานตอนกลางคืนและวันทั้งกลางวันและกลางคืนเปลี่ยนไป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หากวันทีนอนไม่เพียงพอยังคงดำเนินต่อไปร่างกายมนุษย์ก็ยากที่จะรักษาภูมิคุ้มกัน หากจังหวะของชีวิตเปลี่ยนแปลงไปทั้งกลางวันและกลางคืนความเสี่ยงของการลดลงของภูมิคุ้มกันจะสูงขึ้น การลดลงของภูมิคุ้มกันต้องหลีกเลี่ยงในช่วงระยะเวลาของ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โคโรนา ผู้เชี่ยวชาญแนะนำว่าให้นอนหลับฝันดีคุณต้องออกกำลังกายเป็นประจำด้วยความเข้มปานกลางและปรับระดับอาหารเป็นประจำ แม้ว่าในตอนแรกมันจะยาก แต่ก็ก็เป็นความคิดที่ดีที่จะทำซ้ำตัวเองให้หลับและตื่นในเวลาเดียวกัน

ทุกวันเพื่อรักษาระดับภูมิคุ้มกันให้เพียงพอคุณต้องนอนอย่างน้อยหกชั่วโมงในแต่ละวัน

บริษัท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

<한글 기사 36면>

이아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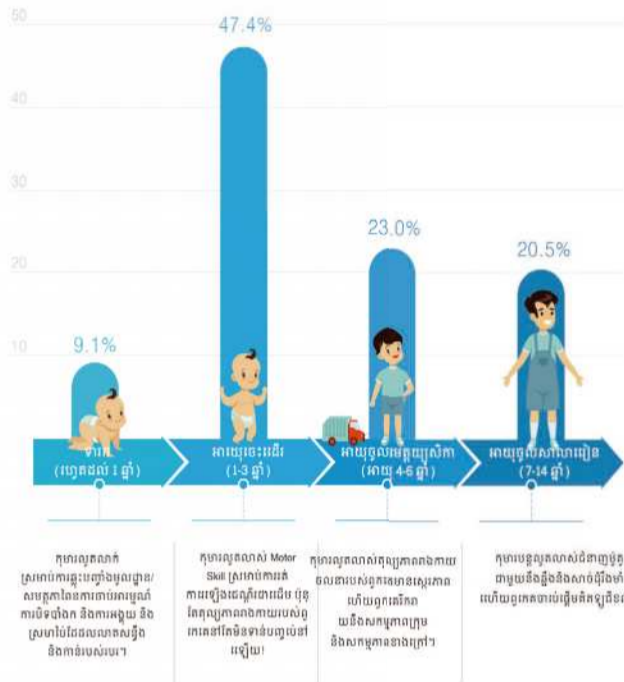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9393/9494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01

គ្រោះថ្នាក់ដោយដំណាក់កាលលូតលាស់របស់កុមារ

គ្រោះថ្នាក់ដោយដំណាក់កាលលូតលាស់របស់កុមារ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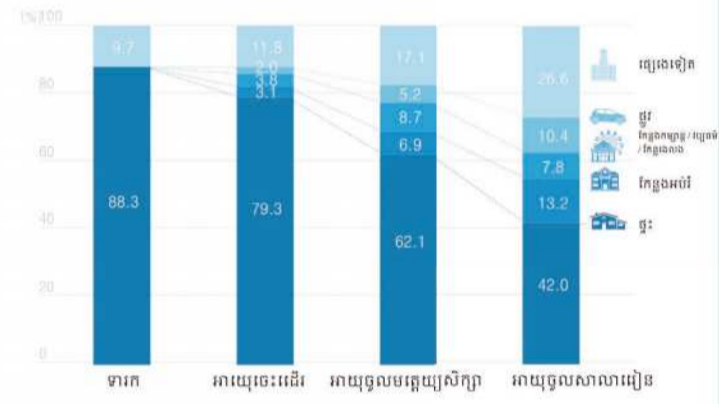
កុមារត្រូវបានប៉ះពាល់ទៅនឹងគ្រោះថ្នាក់ដោយដំណាក់កាលលូតលាស់របស់កុមារ យល់អំពីលក្ខណៈនៃដំណាក់កាលលូតលាស់របស់កុមារ និងចាត់វិធានការសម្រេចបាន។



កែតម្រូវគ្រោះថ្នាក់ដោយដំណាក់កាលលូតលាស់ (2017)



គ្រោះថ្នាក់ភាគច្រើនចំពោះកុមារកើតមាននៅក្នុងៗ ឪពុកម្តាយត្រូវបានប្រើប្រាស់វិធានការសម្រេចបានសម្រាប់កុមារ។



ខណៈពេលដែលដំណាក់កាលលូតលាស់ សមាមាត្រនៅក្នុងកុមារ ខណៈពេលដែលសមាមាត្រនៅក្នុងកុមារ / កម្រិត និងការធ្វើដំណើរលើក្រុមគ្រួសារនីមួយៗ គេអាចស្រាវជ្រាវ និងកុមារត្រូវបានប្រើប្រាស់វិធានការសម្រេចបានសម្រាប់កុមារ។

03

ការឆ្លើយតបបន្ទាន់ចំពោះគ្រោះថ្នាក់

ការឆ្លើយតបបន្ទាន់ចំពោះគ្រោះថ្នាក់ដោយការរលេច

នៅពេលកុមាររលេចបញ្ហា គ្រោះថ្នាក់ គោរពការណ៍។ កុំអោយពួកគេក្អក យកពួកគេទៅមន្ទីរពេទ្យឆាប់ ហើយប្រាប់ទៅវេជ្ជបណ្ឌិតអំពីអ្វីដែលពួកគេរលេច ពេលរលេច និងលេចដោយរបៀបណា។

នៅពេលដែលកូនច្រើនជាប់គ្នាដំបូង



- ស្រមោលទារកអាយុតិចជាង 1 ឆ្នាំ កាត់ទៅលើដំបូងដោយដាក់ក្បាលរបស់កូនក្រោមដោយកុំខ្លប់មាត់ និងចម្រុះឡើយ។ ត្រូវខ្លួនជាដំបូង ហើយដាក់កែវ កែវលើក្រមាសមុខឡើងលើក្រមាសរបស់កូនជាដំបូងដោយម្រាមដៃ 2 និងទី 3 របស់ម្តាយ។ ធ្វើសកម្មភាពឡើងវិញរហូតទាល់តែស្រមោលក្រោមដៃរលេច។
- ចំពោះទារកដែលមានអាយុលើសពី 1 ឆ្នាំ ត្រូវដាក់កែវលើដំបូងរបស់កូនដោយមុខក្រោម ដូច្នោះកែវទំនាក់ទំនងត្រូវបានសង្កត់ទប់នឹងដំបូង ហើយបន្ទាប់មកគួរកែទ័ពក្បាលខ្លួនរបស់កូនជាមួយនិងប្រាំតែដា។
- ស្រមោលកូនច្រើន សូមឱបកែវដោយដំបូងលើក្រោយ ដាក់ដំបូងដោយដៃម្តាយក្រោមកែវទំនាក់ទំនងក្រោយដៃដោយដៃម្តាយឡើង និងបញ្ជាក់របស់កូនឡើង។

ការឆ្លើយតបទៅនឹងការរលេច

- ភ្លាមៗប្រោះទឹកក្នុងរយៈពេល 15 ទៅ 30 នាទីហើយកុំអោយកែវរលេច។
- លាងសម្អាតកែវក្នុងដៃដល់រលេចកែវបានស្អាត ហើយត្របកជាមួយនិងបង់ស្កាតបន្ទាប់ពីដុះវាដោយទឹកស្អាត ឬទឹកអំបិល។

ប្រុងប្រយ័ត្ន

- ចាប់តាំងពីការរលេចសិក្សាភាពតិចតួចរហូតដល់ក្រដាសដាច់មុខ ត្រូវប្រាកដថាត្រូវយកទៅព្យាបាលនៅមន្ទីរពេទ្យ។
- សូមប្រុងប្រយ័ត្នដើម្បីឱ្យទឹកកកប្រក្រដាសដាក់កែវបានស្អាតដោយផ្ទាល់ជាមួយដៃដល់រលេច។
- នៅពេលដែលកែវរលេចកែវ ត្រូវស្រាវជ្រាវវិធានការសម្រេចបានសម្រាប់កុមារ។

ការឆ្លើយតបទៅនឹងការហូរឈាម ឬស្នាមដាំ

- ហូរឈាម** វិធីបញ្ឈប់ការហូរឈាមគឺមានសារៈសំខាន់ស្រមោលក្រាប្រាកដមុខរបួស។ លាងសម្អាតមុខរបួស ពិនិត្យជ្រៅ និងទំហំរបួស ហើយបញ្ឈប់ការហូរឈាម។
- ស្នាមដាំ** ចំពោះស្នាមដាំលើដើម ឬដៃ ចូរក្បាលកែវនោះអោយត្រជាក់ជាមួយស្លឹកក្រូចទឹកកក។ នៅពេលដែលអ្នកទទួលបានរបស់អ្នកទៅជាមួយខ្លួន ចូរដាក់សម្លៀកបំពាក់ល្អ ស្រមោល និងទទួលបានការត្រួតពិនិត្យសុខភាព។

CPR (ក្នុងករណីដែលសន្លប់ និងមិនដកដង្ហើម)

ទារក និងកុមារចុះដើរ:

ចុតដៃចំពោះដៃខ្នងដោយប្រើម្រាមដៃដំបូងដៃខ្នងក្រោមបន្ទាត់ក្បាលដោយដៃខ្នងក្រោមដៃខ្នងចុះមុខមាត់ប្រហែលមួយកាត់ (4 cm) ។ គ្របចម្រុះ និងមាត់បន្ទាប់ពីអ្នកចុះលើខ្នង 30 ដង។ ដកដង្ហើមខ្យល់ចូលពីមាត់ដៃខ្នងរយៈពេល 3 ទៅ 5 វិនាទី។ ធ្វើសកម្មភាពឡើងវិញតាមគ្រូបង្រៀន។

ក្មេង:

ដាក់ដៃដៃម្នាក់នៅលើផ្នែកខាងក្រោមខ្នង ហើយចុះលើខ្នងក្រោមដៃខ្នងចុះមុខមាត់ប្រហែល 1 កាត់ (5 សង់ទីម៉ែត្រ) ។ គ្របចម្រុះ និងមាត់បន្ទាប់ពីអ្នកចុះលើខ្នង 30 ដង។ ដកដង្ហើមខ្យល់ចូលពីមាត់ដៃខ្នងរយៈពេល 3 ទៅ 5 វិនាទី។ ធ្វើសកម្មភាពឡើងវិញ (នៅសមាមាត្រ 30:2) តាមគ្រូបង្រៀន។ ប្រេកង់ប្រុងប្រយ័ត្នចាប់ពី 100-120 ក្នុងមួយនាទី។

ត្រូវប្រាកដថាដំណាក់កាលគ្រោះថ្នាក់កុមារទាំងឡាយ។
 ទាក់ទងប្រព័ន្ធព័ត៌មានការងារស្រាវជ្រាវ (www.ciiss.go.kr) ត្រូវប្រើប្រាស់ការងារស្រាវជ្រាវ និងមិនបង់ប្រាក់ ឬទាក់ទងទៅអ្នកប្រើតាមទូរស័ព្ទលេខ 080-900-3500 ។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Pagpaparehistro ng
"haengbok Kard" para sa Bata**

Child Love Help Desk
(1566-3232 / shortcut number 1)

- **"Haengbok Kard"** : Isang kard na nagbibigay suporta sa mga bayarin sa pangangalaga sa bata (bayad sa matrikula ng sanggol) na ibinigay ng pamahalaan para sa mga batang preschool na may edad na 0-5 taong gulang.
- **Paraan ng Pagpaparehistro** : Pag-iisyu ng kard matapos magparehistro para sa suporta ng gobyerno.
- (Naglalabas na Ahensya) Mga Kumpanya ng Kard, Mga Bangko (BC Card / Kookmin Card / Nonghyup Card / Lotte Card / Shinhan Card / Woori Card / Hana Card)



Proyekto ng Book Start

Bawat Aklatan sa lugar

- **Target ng Proyekto** : 6 buwan hanggang 7 taong gulang (pre-schooler)
- **Panahon ng Proyekto** : Sa buong taon
- **Pangunahing Nilalaman** : Pamamahagi ng Bookstart ng mga libro, programa sa paglalaro ng libro, edukasyon sa magulang

Hakbang	Pangalan	Target
1 hakbang	Book Start	6-18 na buwan
2 hakbang	Book Start Plus	19-35 na buwan
3 hakbang	Box Start Treasure Box	36na buwan ~ 7 taong gulang

- **Nilalaman ng pakete** : 2pirasong larawang aklat , panyo (1hakbang), abiso, bag
- **Paano ipamahagi** : Ipinamahagi sa loob ng alatan sa oras ng pag gamit ng silid aklatan (Magrehistro bilang miyembro ng homepage ng aklatan (pangalan ng sanggol), dalhin ang ID card ng tagapag-alaga, ang petsa ng kapanganakan ng sanggol at mga dokumento na maaaring kumpirmahi ang relasyon)
- **Petsa ng Operasyon**

Libraries	Location	Telephone Number
Pambatang silid aklatan sa Joengwang	Infants and Toddlers Room (1F)	031-310-5186
Pambatang silid aklatan sa Daeya	Aimaru (1F)	031-310-5250
Silid aklatan sa Neunggok	Children's Resource Room (1F)	031-310-2556
Mokgam library	Children's Resource Room (1F)	031-310-2590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Tulong pinansyal para sa mga batang my kapansanan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Customized Welfare Team

- **Mga maaring magparehistro** : Nakarehistrong may kapansanan na may edad 18 taong gulang pababa na nakakatanggap ng suporta para sa pamumuhay, medikal, pabahay, edukasyon at pamilyang may mababang kita
- Kung ang halaga ng kita ay mas mababa sa 50% ng karaniwang pamantayang kita (Batayan para sa pamilyang may 4 na miyembro 2,237,587won o 4,587won pababa)
- Suporta para sa mga wala pang 18 taong gulang sa panahon ng pagpaparehistro
- Suporta sa mga batang may kapansanan sa panahon ng pagpaparehistro (Para sa may malubhang kapansanan, minor na kapansanan)
- Hindi inilapat ang suporta sa mga dependent ng may kapansanan
- **Paraan ng Pagpaparehistro** : Bisitahin ang nakakasakop na Administrative Welfare Office sa inyong lugar

May malubhang kapansan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g mga tatanggap 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o mga benepisyo sa medikal: KRW 200,000 bawat buwan • Mga tatanggap ng National Initial Live livelihood Security o Recipient benefit at ang Mas Mataas na Klase: KRW 150,000 bawat buwan • Ang mga tatanggap ng mga benepisyo sa pamumuhay o medikal na naninirahan sa mga saklaw na pasilidad: KRW 70,000 bawat buwan
May minor na kapansan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ga tatanggap ng Pambansang Pangunahing Pangkabuhayan ng Seguridad o benepisyo sa medikal: KRW100,000 bawat buwan • Mga Natatanggap na Pangkalahatang Pantahanan ng Pabahay ng Seguridad sa Pangkabuhayan at Pangalawang Sekondarya: KRW 100,000 bawat buwan • Ang mga tatanggap ng mga benepisyo sa pamumuhay o medikal na naninirahan sa mga saklaw na pasilidad: KRW 20,000 bawat buwan

Libreng isyu ng Resident Registration Card para sa mga sanggol

Civil Passport and
Civil Service Team (031-310-2351)

- **Mga Maaring Magparehistro** : Mga nagparehistro sa loob isang mula araw ng kapanganakan
- **Panahon ng aplikasyon** : Buong Taon
- **Nilalaman ng Suporta** : Pag-isyu ng mga card ng pagkilala sa sanggol bilang paggunita
- **Paraan ng Pagpaparehistro** : Bumisita sa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 **Mga Mga kailangang Dokumento** : ID card, larawan ng sanggol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Pilipino



Bayad sa Pangangalaga sa Bata (Day care Cente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Customized Welfare Team

- **Mga maaaring Magparehistro** : Mga batang 0-5 taong gulang na pumapasok sa daycare center
- **PAUNAWA**
- Sa magpaparehistro para sa pagbabago ng tulong pinansyal para sa pag-aalaga ng bata, kung magpaparehistro bago ang ika-15 araw ng buwan, matatanggap ang suporta sa nasabing buwan at kung magpaparehistro naman mula ika-16 na araw ng buwan matatanggap ang nasabing suporta sa kasunod na buwan.
- Ang aplikasyon para sa pagbabago ng serbisyo ay kinakailangan ayon sa sitwasyon ng pangangalaga sa bata (pangangalaga sa bahay ↔ nursery ↔ kindergarten)
- **Nilalaman Suporta** : Pagkakaiba ng suporta para sa mga bayad sa pangangalaga sa bata ayon sa edad (Mag sisimula sa Marso taong 2020)



Edad	(Pangunahing Oras sa Pag-aalaga ng Bata) Mga Bayad sa Pangangalaga sa Bata	(Pinalawak na Oras ng Pangangalaga sa Bata) Bayad sa Pangangalaga sa Bata
0 taong gulang na bata	470,000 won	3,000 won bawat oras
1 taong gulang na bata	414,000 won	2,000 won bawat oras
2 taong gulang na bata	343,000 won	2,000 won bawat oras
3-5 taong gulang na bata	240,000 won	1,000 won bawat oras

- **Paraan ng Aplikasyon** : Bumisita sa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sa inyong lugar o mag-apply online sa online.bokjiro.go.kr

Pinansyal na suporta para sa bata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Customized Welfare Team

- **Mga Maaaring Magparehistro** : Lahat ng mga bata na wala pang 7 taong gulang anuman ang antas ng kita
- **Nilalaman ng suporta** : 100,000won sa bawat bata / buwan
- **Paraan ng Pagpaparehistro** : Bumisita sa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Pagpaparehistro online sa pamamagitan ng welfare homepage o magdownload ng application

Suporta para sa gastusin sa edukasyon ng bata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Customized Welfare Team

- **Mga Maaaring Magparehistro** : Ang mga bata 3-5 taong gulang na pumapasok ng kindergarten
- **Nilalaman ng Suporta** : Suporta para sa Nuri course anuman ang antas ng pamumuhay
- **Paraang ng Pagpaparehistro** : Bumisita sa pinakamalapit na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sa inyong lugar o magparehistro online sa online.bokjiro.go.kr o sa pamamagitan ng nakadownload na application

22
23

Sanggol · Bata

Libreng parenta ng mga laruan

Kategorya	Pangunahing nilalaman
Hope toy library (070-7725-55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rget : Mga preschooler 0-7 taong gulang • Mga Paghigpit : 10 tao sa bawat pagpasok (5 tagapag-alaga, 5 sanggol) • Mga oras ng paggamit : 2oras sa isang araw at isang beses na pag pasok sa isang araw • Bayad : Libre para sa mga miyembro, at 2,000won para sa mga hindi miyembro
Palaruan sa Pagbabahagi ng Pangangalaga sa Ba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rget : Mga preschooler 0-7 taong gulang • Mga Paghigpit : 10 tao sa bawat pagpasok (5 tagapag-alaga, 5 sanggol) • Mga oras ng paggamit : 2oras sa isang araw at isang beses na pag pasok sa isang araw • Bayad : Libre para sa mga miyembro, at 2,000won para sa mga hindi miyembro
Program ng Karanasan sa Ba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lalaman: Fairy Tale Clay kasama sina Nanay at Tatay
Child Mom Cafe (Eunhaeng Branch/031-404-56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rget : Mga magulang na may mga sanggol at mga batang may edad na 0 hanggang 5 taong gulang • Taunang bayad : 10,000 nanalo • Mga oras : (pag-upa) Martes-Sabado (10: 00-17: 00) / (Pagbabalik) Martes-Sabado (10: 00-18: 00) • Paano gamitin : Serbisyo ng Paghahatid at pangkalahatang pag-upa (ngunit magbayad ng benepisyo kapag gumagamit ng serbisyo ng Paghahatid)
Paupahan ng gamit para sa mga bata "Kwento ko" (Jagunjari Social Welfare Center / 031-313-6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rget : Mga magulang na may mga sanggol at mga batang may edad na 0 hanggang 5 taong gulang • Taunang bayad : 10,000 won (libre para sa mga pangunahing nakikinabang sa pamumuhay, 50% pagbawas para sa mga mababang-kita na magulang at may kapansanan na pamilya) • Mga dokumento ng aplikasyon: Kopya ng rehistro ng residente (sa loob ng 3 buwan), member ID card • Mga Oras : Mon-Fri 09: 00 ~18: 00 / Sat 09: 00 ~ 13: 00 (12: 00-13:00 ng tanghali) • Bayad sa upa : 1,000 ~ 2,000 won

24
25

Sanggol · Bata

‘第二次灾难支援金,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

이재명 도지사 “재난지원금, 서민생활과 경제 활성화 큰 역할 했다”... 다문화가족도 지지



从三月份开始,我们陆续的收到了京畿道基本所得支援金,政府紧急灾难支援金,部分城市发放的灾难支援金等.这些支援金大家收到以后,在疫情期间一方面给国民的生活做了补贴,另一方面也活跃了社会经济,可以说是抗疫情期间,一举多得的一个政策.我想大家也和小编一样,收到支援金也有一段时间了,都消费的差不多了,所以心里会想,还有没有第二次,第三次等补助.<이재명 도지사와 마주 한 임병택 시흥시장.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6月22号京畿道李在明知士在京畿道的议会上首次公开谈论了是否会有第二次京畿道支援金的问题.他在议会上是这样说的,因为有政府支援金和京畿道支援金的补助,通过信用卡,储蓄卡,地区货币卡的方式发放给居民,使得京畿道民众在这两个多月期间顺利的度过了疫情难关,如果这些支援金花尽时,国民一定会再次发出需要政府帮助的声音,即使政府说再次发放支援金有困难,但是

京畿道已经在讨论由京畿道自主拿出10兆3685亿来再次发放补助金.(每人20万)

李知士主张,新冠疫情短期内结束是不太可能的事情,我们要打持久战,甚至要做好,新冠病毒一辈子伴随我们的心理准备.所以发放给全民消费性,地区消费性质的政府支援金,提倡全额消费支援补助金,这即是给京畿道民的福利政策,又是经济政策,所以要扩大发放支援补助金.作为韩国国民和京畿道居民的立场,我们希望李知士的再次发放补助金的提议能够顺利通过,疫情期间,如果没有国家的补助和支援,如果大家没有消费的能力,那么韩国的经济,国民的生活,后果真的不敢想象.最后希望韩国政府能够成为我们坚实的后盾,也希望疫情能够早日结束.

3월부터 다문화가족들은 경기도의 기본소득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및 일부 도시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등을 받았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 전염병 발생 기간에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한편 사회경제도 활성화 시켰기에 일거양득의 좋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기자와 마찬가지로 아마 지원금을 받은 지 꽤 되었으니 거의 다 소비했을 것 같다. 그래서 또 2차, 3차 보조금을 주시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최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 처음으로 2차 경기도지원금에 대해 공론화했다. 그는 의회에서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우리 경제가 두 달 남짓 잘 견뎌왔는데 지원금을 거의 다 소진한 7월부터는 국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와 장기간 어찌면 영원히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 정부 경제관료, 경제 전문가들은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추가적 조치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1인당 20만원)

이 지사는 전염병 발생이 단기간에 종식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는 지구전을 해야 하고 심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평생 동안 함께 할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에게 소멸적이고 지역소비성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창하는 것은 경기도민에게 주는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인 만큼 지원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과 경기도 주민의 입장에서 필자는 이재명 지사의 2차 보조금 지급 제안이 무난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발생 기간 동안 국가의 보조와 지원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소비할 능력이 없을 것이고 그에 따른 한국의 경제와 국민의 삶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다문화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전염병 발생 상황의 조기 종식을 기대한다. 원난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시간제 서비스	종일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제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보육 및 놀이활동 *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 준비된 간식 챙겨주기 - 시간당 9,890원 * 정부지원 유형별 요금 차등 지원 * 연 720시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개월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제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식 먹이기 * 기저귀 갈기 * 질병소독 * 목욕 등 - 시간당 9,890원 * 정부지원 유형별 요금 차등 지원 * 월 최대 200시간 지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일시연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성, 유행성 질병에 의해 아동의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제공 - 시간당 11,860원 * 증빙서류 제출시 정부지원 5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제공기관이 운영하지 않는 야간 및 주말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 직접 서비스를 신청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 * 6월 중순 오픈 예정 * 아이돌봄서비스 앱 설치 필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검색하여 설치)

신청 방법

정부지원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및 대기

아이돌보미 연계 → 이용료 사전 결제 → 서비스 이용 → 모니터링 실시

• 홈페이지 이용자명, 정부지원 신청자명, 국민행복카드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후 정회원승인 및 이용시간 파악을 위해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1-317-4516(선택번호 1번)
홈페이지 : <https://idolbom.go.kr>

시흥국제 청소년학교

학생모집!

모집대상: 14세~19세의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
모집기간: 상시모집
교육비용: 무료 (단, 교재비 중식 자부담)
교육일자: 2020.2~2020.12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5:00)
교육내용: 한국어교육 외 진로상담, 영어, 역사, 요리, 미술, 체육 등 (수준별 반 구성)
체험활동: 한국문화체험 및 진로,직업체험
입학절차: 학교방문(보호자동행) - 입학상담 - 입학신청서 작성
입학서류: 외국인등록증, 여권, 반명함사진(학생)
입학문의: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국제청소년학교)
031-434-0413
070-4047-3999 (중국어)

오시는길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59번길 5 (정왕동)



힘겨운 이주민의 삶에 부천시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은 '단비'

▲지난 6월 18일 부천종합운동장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접수창구, 비교적 한산한 점심시간임에도 이주민들이 많이 몰려 있다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시민 경제의 어려움 해소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경기도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6월 16일부터 시작된 재난기본소득 접수는 7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7월 6일 제외) 진행된다. 장소는 당초 부천시의회 1층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부천종합운동장으로 변경됐다. 지급대상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다. 체류기간 만료자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1인당 15만원(경기도 10만원+부천시 5만원)이며 그 외 등록외국인은 1인당 5만원 지급(부천시 5만원)한다.

지급형식은 충전된 선불카드(분실시 재발급 불가)로 분실 및 훼손 시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하나 선불카드 발급처(농협)에 기명 등록된 경우만 재발급이 가능하다. 부천시가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안산시 외에는 없는 일로 이주다문화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한국이주인권상선정위원회는 장덕천 시장을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 지역정책 수상자로 선정했다.

송하성 기자

부천시,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10일까지 입주자 모집

부천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주택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다문화가족은 꼭 도전해 보자.

임대주택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자격 기준의 우선순위대상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기모집기간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사업 등 2가지 유형을 공급하며, 공급 기관에 따라 공급 물량의 차이가 있다. 전세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13호, 경기주택공사에서 200호를 공급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은 경기도시공사에서만 제공하며, 오정동, 소사본동 소재의 총 30호의 주택을 지원한다.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접수 모두 7월 6일에서 1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031-214-8463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힘든 일이 있나요? 도움 받을 곳을 모르시나요?'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대상: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등
-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 지원

구분	내용
사례관리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등 긴급지원, 비자/이혼 등 다문화 가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해결 지원)
센터 프로그램 연계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언어발달교육, 서포터즈 지원, 자녀교육, 자조모임, 통번역서비스 필요한 프로그램 연계
상담	개인 및 가족상담(고부사소통, 부모-자녀관계) 부부상담 ⇨ 6월 상담시작 예정 미술을 매개로 한 미술치료 상담
외부자원 연계	법률상담, 긴급지원 및 공공기관 등 타기관 연계

※ 향후 후원 연계를 위한 수요조사 진행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센터로 연락주세요~

- 이용시간: 09:00~18:00 (월~금)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이용방법: 센터내방, 가정방문, 전화상담
- 문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070-4457-6110, 070-4130-2149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si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언어 쑥쑥!!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연령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언어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무료로 언어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 언어발달교실을 운영합니다.

- 서비스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기간: 연중 수시 모집
- 대상: 다문화가족자녀, 외국인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생후 30개월~만12세 미만)
- 장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발달교실(2층)
외부기관(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경우 「교육아동 2명 이상」시 지원 가능
※ 가격방문 불가

서비스유 및 서비스 절차

-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외국인가족(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등):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주신고증
- 북한이탈주민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선택) 부모가 사실혼 관계 등에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구비

구분	내용
1. 서비스신청	전화 및 내방 문의 → 평가 일정 확정
2. 초기면담 및 평가	평가(정신발달 시 증표) → 대기 및 교육사각
3. 교육선발	주 2회, 회당 40분 교육 편성(1회 6개월 진행)
4. 진전 및 종료평가	6개월 이상 교육 아동 → 진전평가 실시 →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연장 최대 3회 가능, 최대 교육기간 2년)
5.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언어교육서비스 종료 시 만족도조사 실시 사후상담 및 평가 실시

● 현재 교육을 진행 및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많은 관계로 언어발달교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경우 언어발달서비스를 중복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 및 문의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경기도 부천시 조중로 68번가길 4
Tel) 070-4457-6108-9

여성가족부지원·경기도·부천시위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si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슬기로운 한국어 생활 Part 3. Monologue>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것은 시로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

대면 수업이 그리운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사들의 이야기

언어와 문화 다른 학생과의 만남은 즐거움



Q. 한국어 강사로서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A.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글을 읽고 짧고 서툴지만 한국말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오래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잊지

않고 안부전화를 해서 근황을 전하고 보고 싶다고 말할 때, 한국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등등 쓰다 보니 매순간이 보람되네요~ 하하

Q.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요?

A. 한국 사람과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온 중국 여학생이 있었어요. 사춘기를 겪을 나이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스트레스로 아주 예민한 상

태였지요. 한국어를 배우러 왔는데도 제가 지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아주 공격적이었어요. 이해하려고 해도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받고 힘들었지요. 그런데도 수업에는 빠지지 않았어요. 서로가 힘든 시간이었는데 학기가 끝날 때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Q.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노하우가 있다면?

A. 한국어 강사의 가장 주된 임무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학생 개개인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작고 사소한 변화나 일상에도 관심을 갖고 대하다 보면 서로 간에 따뜻한 마음과 신뢰가 생기게 되고 학생들도 더 열심히 수업에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습동기도 유발되고요.

Q.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극복하는 방법은?

A. 학기 중에는 사실 슬럼프에 빠질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수업준비를 하고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하루하루가 바쁘고 역동적이지요. 그런데 학기가 마무리되고 방학이 되면 일종의 번아웃이라고 할까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되곤 해요. 그러다가 개강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기가 넘쳐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제 슬럼프 극복 방법은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Q.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 올해로 한국어를 가르친 지 11년차가 되었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기쁜 일도, 마음 아픈 일도 많았지요. 짧지 않은 시간인데도 순식간에 지나온 것처럼 느껴져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학생들을 만나 한국어를 가르치고 인연을 맺는 것은 언제나 긴장되면서도 즐겁고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어 강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한국어 강사 문진희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다가서는 진실한 사람



Q. 한국어강사로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A. 처음에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번역기를 쓴다거나 안 되는 한국어로 톡을 보내다 어느 순간 점차 번역기 없이도 소통이 가능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워지려는 서로 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 느껴집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 배움의 과정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모여 그 시간들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서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점점 한국어 실력이 향상돼 가는 과정을 지켜볼 때 가장 뿌듯하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인상적인 학습자가 있나요? 또 학습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A. 만삭의 몸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산예정일 임박 전까지 수업에 나왔던 파*나 씨가 기억에 남습니다.

글쓰기 숙제로 초대장 쓰기가 있었는데 미래의 결

혼식 초대 글을 작성하였고, 실제로 청첩장을 받아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파*나 씨 외에도 인생에 경조사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며 기쁜 소식을 전할 때 항상 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임신, 출산 소식을 전하고 결혼식, 돌잔치에 초대할 때마다 누구보다 진심으로 축하하며 같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심적으로 가깝게 여기지 않는다면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초대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에 여건이 된다면 기꺼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학습자 분들이 저를 떠올릴 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기 이전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친한 한국인 친구로 여겨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Q. 수업을 하면서 학습자들과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A. 모두 성인 학습자들이지만 아이처럼 귀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받아쓰기 후에 백점 맞은 받아쓰기 용지를 사진 찍어 남편한테 보여 주려는 모습들을 볼 때 해맑고 천진난만하다 못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남편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며 그런 노력들을 통해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진실한 모습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어버이날이나 시부모님 생신을 챙겨 드리려고 감사 메시지 작성, 선물 구입 방법 등을 물어보며 한국 문화에 적응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어떻게든 더 많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져 잘 유지되길 바라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함께 공부하는 학습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잊지 않고 꾸준히 안부를 전해 주는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식사 또는 티타임을 하고 싶다고 조심스레 연락이 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

학습자분들도 만나자고 어렵게 말했는데 약속은 정하지 않고 코로나를 이유로 미루기만 해서 행여나 거절의 뜻으로 오해하실까봐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자리를 빌려 해명 아닌 해명의 말씀 드립니다.

“기초반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너무 만나고 싶지만 지금은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야 하는 시점이라서 약속을 미루고 있는 점 이해해 주세요. 곧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속은 취소가 아니라 잠시 연기된 거예요. 조만간 센터에서 만나요!”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길었던 방학만큼 다시 만났을 때 몇 배 더 큰 반가움과 설렘이 교차할 거 같아요.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한국어 강사 배희진

다문화가정 및 미등록 이주아동 특성 반영한 장애의심아동 지원책 필요

이진연 경기도의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주민 자녀 발달장애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부천7, 더민주) 의원이 경기도에 다문화가정 및 미등록 이주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의심아동 지원 대책을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도내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국적취득자·다문화가정 자녀 포함) 가구원 24만5천여명 중 5만7천500여명(약 23%)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다.

이들 중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영유아층(만 6세 미만)은 2만3천여명으로 40% 수준에 달한다. 경기도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근거로 이들 중 10%인 2천300여명의 영유아들이 장애위험군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진연 의원은 “국제결혼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시작한 다문화가정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부간의 가치관과 언어적 문화적인 차이, 또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어 일터로 나서야만 하는 부모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언어발달과 사회성발달이 지체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에는 대인기피증, 애착관계 형성부재로 발달장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미등록아동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태어난 뒤에도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어린이집도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교육이나 놀이를 통해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언어와 표현도 자유롭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경우가 많다” 라고 하면서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모든 아동은 출생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 각종 보호와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미등록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장애위험영유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다문화가정 아동 및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들은 문화적인 차이로 자녀의 발달지체를 조기에 인식하지 못하여 후천적인 지체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들이 또 다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문화가정 아동 및 미등록 이주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고 있고 도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아동 중 장애의심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의심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우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마련과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다문화가정 및 미등록 이주아동이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송하성 기자

중국어반 운영하며 이주민에 나눔 실천하는 유한대학교

유한대 코로나-19 취약계층, 위기 극복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유한대학교(총장 김현중)의 후진학선도형 혁신지원사업단(단장 김성학)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응원하고, 위기극복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맞춤형 교육기부를 진행하고 있어 교육 수요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취약계층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교육기부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남북사랑학교와 컴퓨터 기초 실무능력 향상 강좌를 △대안전문교육기관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배움터(정검다리 거점 공간) ‘바라지’와 함께 3D 프린터 활용 작품 제작 강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남북사랑학교와 함께 컴퓨터 기초 실무능력 향상 강좌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한국정보문화연구원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3%가 북한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경험이 없다는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유한대학교는 남북사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실무능력 향상 강좌를 무료로 주 1회(매주 수요일, 2시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다 보니 한국어가 서툰 학생들을 배려하여 중국어로 수업하는 1개 반과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는 1개 반 총 2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탈북청소년 이경수(가명) 학생은 “컴퓨터 수업을 처음 들었는데 마냥 신기하고, 컴퓨터에 대하여 많은 걸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 개발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싶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유한대학교는 작년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선도형(3유형)에 선정되어 부천-광명-시흥 직업교육거점센터 중심으로 우수한 강사진과 최첨단 교육시설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장 친화적인 실무교육을 통해 교육과정 수료 후 교육 학습생들의 창업 및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천-

광명-시흥지역 유일한 후진학선도형 직업교육거점센터 교육기관으로 재직근로자,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박찬근), 남북사랑학교(교장 심양섭),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운영),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조정숙), 살레시오미래교육원(원장 황철현),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센터장 김충헌) 등 사회적 취약계층 기관과 거버넌스 협약을 맺고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2차 년도에도 기초에서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인 현장 실무형 평생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또한, 최첨단 교육 시설과 체계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멀티 실무자 될 수 있도록 평생 직업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부천시청 032-320-3000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327-1370 부천교육지원청 032-326-2108 부천여성전화 070-7733-4995 행복가정폭력상담소 032-612-1366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부천고용지원센터 032-320-8900 범죄신고 112 부천원미경찰서 1566-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Staying Connected to Fight Loneliness’

나만 떨어져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위해



Positive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family help us thrive. Without social connections, it's easy to feel lonely or isolated.

Many of us have been spending more time alone in our homes lately. While anyone can feel lonely, certain factors increase your risk. Major life changes or losses can increase feelings of loneliness.

Older adults are at greater risk because they're more likely to live alone. Mobility issues can make it harder to leave the house. And sensory

issues like vision and hearing loss can contribute to feeling isolated.

No matter what your age, it's important for your health to stay socially connected. Loneliness can take a toll. It's linked to higher rates of depression and heart disease, and can weaken your immune system. Here are some strategies to help stay connected if you're feeling lonely.

Get your heart going. Exercise has been shown to reduce stress and boost your mood. Whether it's sweating to a workout video or taking a walk around your neighborhood, exercise can help.

You might also consider getting a pet. Animals can be a source of comfort and companionship.

Many people are using technology to connect with friends and family virtually. Take time to reach out to others by phone or online. A call or video chat can remind you that you're not alone.

Providing social support or helping others in need can give meaning to our lives and help combat feelings of isolation or disconnection.

NIH USA

Stay Connected to Combat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people age they often find themselves spending more time at home alone. This can affect your health and well-being. Learn if you might be at risk and how to stay connected.

Share on Social Media

Read and share this infographic for tips on how to stay connected and combat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you age: <https://bit.ly/36lbn9u>

Are you at risk for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Check out this infographic for a list of risk factors and 5 ways to stay more connected: <https://bit.ly/3cT8X8w>

Feeling lonely or being isolated are bad for your health. Get tips for ways you can stay more connected to others as you age: <https://bit.ly/2LRuF12>

Transcript

Feeling lonely or being isolated are bad for your health.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have been associated with higher rates of depression, a weakened immune system, heart disease, dementia, and early death.

Are you at risk? Try to stay active and better connected if you:

- ▲live alone or are unable to leave your home
- ▲feel alone or disconnected from others
- ▲recently experienced a major loss or change
- are a caregiver
- ▲lack a sense of purpose

Ideas for staying connected

Find an activity that you enjoy or learn something new. You might have fun and meet people who like to do the same thing.

Get moving! Exercise decreases stress, boosts your mood, and increases your energy.

Volunteer. You'll feel better by helping others.

Stay in touch with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in person, online, or by phone.

Consider adopting a pet. Animals can be a source of comfort and may also lower stress and blood pressure.

Contact the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in your area. You can learn more about preventing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NIH USA

STAY CONNECTED

to Combat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Feeling lonely and being isolated are bad for your health.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re associated with higher rates of depression, a weakened immune system, heart disease, dementia, and early death.*

Are you at risk?

Try to stay active and better connected if you:

- live alone or can't leave your home
- feel alone or disconnected from others
- recently had a major loss or change
- are a caregiver
- lack a sense of purpose

Ideas for staying connected

Find an activity that you enjoy or learn something new. You might have fun and meet people with similar interests.

Get moving! Exercise decreases stress, boosts your mood, and increases your energy.

Volunteer. You'll feel better by helping others.

Stay in touch with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in person, online, or by phone.

Consider adopting a pet. Animals can be a source of comfort and may also lower stress and blood pressure.

For more information about preventing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visit <https://www.nia.nih.gov/health/participating-activities-you-enjoy>

*Ciaccio JT, Hawkey LC. Perceived social isolation and cognition. *Trends Cogn Sci.* 2009;13(10):447-54.

2020.06.24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로부터 우리집을 깨끗하게 우리집 방역하기, 집방!

2편 올바른 소독제 준비하기

1/5

2020.06.24 질병관리본부 KCDC

올바른 소독제를 선택하였다면,
안전하게 소독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중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두번째 단계,

올바른 소독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5

2020.06.23 질병관리본부 KCDC

소독은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감염성
병원체를 사멸**시켜 감염 노출(감염확산위험)을
더욱 감소시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중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첫번째 단계,

소독 전,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2/5

2020.06.24 질병관리본부 KCDC

올바른 소독제 선택하기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승인 받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효 농도	비고
염소계 화합물	차아염소산나트륨 (일반 가정용 락스)	0.05~0.5%	금속표면 손상에 주의 흡입에 의한 독성 가능
알코올	에탄올(에틸알코올) 이소프로판올	70~90%(알코올) 50%(이소프로필알코올)	피부 자극 및 심각한 눈 자극 유발 가능
4급 암모늄화합물계	벤질코늄염화물	0.05% 이상 함유	피부 자극 및 심각한 눈 자극 유발 가능, 흡입에 의한 독성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	피부 자극 및 심각한 눈 자극 유발 가능, 장구 및 흡입에 의한 급성 독성 가능
페놀화합물	크로록실레놀	0.12%	피부, 눈 자극 유발 가능

3/5

2020.06.23 질병관리본부 KCDC

소독 전 준비사항 1

집 안을 소독하기 이전에 반드시 아래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주세요.

일상 소독 시 필요한 개인보호구

방수용 장갑
(일회용 라텍스 장갑 또는 고무장갑)

보건용 마스크
(KF94 등급)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해 주시고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에는 **피부와 눈, 호흡기가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단, 세척하여 재사용 가능한 청소도구는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 소독 후 건조시켜 보관)

3/5

2020.06.24 질병관리본부 KCDC

올바른 소독제 만들기

올바른 소독제를 선택했다면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 직전에 희석**해야 합니다.

0.1% 농도 차아염소산나트륨 만들기

준비물

- 20mL 차아염소산나트륨 (1,000ppm)
- 1,000mL 배트병

작업 전 개인보호구 착용

- 방수용 장갑(일회용 라텍스 장갑 또는 고무장갑)
- 마스크 및 방수성 앞치마 등

만드는 방법

- 5% 용액 20mL를 배트병에 붓는다.
- 전용 더하기
- 1,000mL로 채운 후 뚜껑을 닫아 잘 섞는다.

4/5

2020.06.23 질병관리본부 KCDC

소독 전 준비사항 2

소독 전체 과정 중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고, 소독하려는 물체 표면은
소독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소독제의 효과가 증가합니다.

일상 소독 전 지켜야 할 것

충분히 환기하기

소독할 표면 청소하기

어린이,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기 중에 소독제를 분무 분사하는 것은
소독 효과가 미흡하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4/5

2020.06.24 질병관리본부 KCDC

소독 전 준비사항을 완료하고 올바른 소독제까지 만들었다면 올바른 소독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바르게 우리집 방역하기,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5/5

별빛마루도서관·수주도서관 건립 부천시 미래지향적 복합문화공간

부천시는 오는 6월 29일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별빛마루도서관과 수주도서관이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의 시공사는 3월 조달청 공사발주 의뢰, 5월 입찰 및 시공사 적격 심사를 거쳐 별빛마루도서관은 대성종합건설(주), 수주도서관은 피엔지건설(주)로 선정되었다.

별빛마루도서관은 총사업비 315억 원을 투입해 옥길지구 내에 연면적 6,209㎡(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지어진다. 이 도서관은 놀자창의를 테마로 창의공방(MakerSpace), 소통공방, 목일신문학공간 등 다양한 시민창의공간으로 특화 조성할 계획이다.

수주도서관은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해 고강선 사유적공원 내 연면적 6,196㎡(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지어진다. 또한, 도서관과 함께 선사유적 체험관, 수주문학관, 오정시민학습원을 복합 조성해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서 지역 내 부족한 체험형 교육·전시공간을 확충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공간의 패러다임을 탈피하고자 도서관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 인테리어를 통합하며 이용자 중심의 공간디자인을 특화했다. 또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친환경도서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부천시 최초로 제로 에너지 및 패시브 건축 기법을 도입했다.

이번 도서관 건립 공사는 총사업비가 2~3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건축공사로,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이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시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지은 기자

안전한 전통시장 안심하고 장 봐요 부천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지원

부천시는 지난 24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방역물품 및 마케팅 사업비를 지원하며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다.

부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고안해왔다.

이번에 지원한 물품은 전통시장에 마스크 3만 장, 손 소독제 1,600병이며, 시장당 1천만 원의 활성화 마케팅 사업비도 함께 전달했다.

부천시는 이번 전통시장 지원으로 침체된 시장 경기를 회복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분위기를 조성해 방문객들과 상인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일우 부천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장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비치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쾌적한 쇼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세계난민의 날, 난민 바로 알고 이해하자"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난민에 따뜻한 관심을 촉구



이름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스스로 이를 어기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난민정책과 처우는 어떠한가? 국내 난민은 어떤 경로를 이용하던 일단 국내에 입국하면서 공항이나 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입국 후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난민신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하면 국내 난민은 네 가지 형태로 나눠 분류해 보면 첫째, 난민신청자(G-1)가 있고 둘째, 난민인정자(F-2)가 있다. 셋째, 난민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강제 퇴거조치 할 수 없는 인도주의체류(제주예멘난민) 난민(G-1)이 있다. 이들은 실상 자국에 정치 및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면 자진 출국하라는 체류자격이다.

넷째, 재정착난민이 있다. 유엔난민기구(HCR)에서 유엔임시난민수용소 난민들을 OECD국가들 중심으로 수용권고사항으로 한국은 2015년부터 재정착난민(F-2)

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내국인 대부분은 난민들이 들어오면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난민신청자에 한하여 월 418,400원으로 6개월 미만지원과 의료비지원이 전부이며 난민심사기간이 늦어지면서 6개월이 경과되면 취업자격을 주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인도주의 체류자격을 받은 난민들은 그야말로 더 이상의 지원 없이 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재정착난민은 조금 다르다. 이들은 정부가 나서서 데리고 온 난민이기에 입국하면서 곧바로 난민인정체류자격(F-2)이 부여되며 법무부외국인지원센터에서 약 5개월여 정착교육을 받은 후 각 도시로 스스로 흩어져 정착하게 된다.

이들에게만 특별히 정착지원금으로 초기 1년 치 월세 보증금 천만 원과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보증금은 1년 후 반드시 회수 조건이다.

이로써 국내난민들의 정착과 체류과정을 살펴 볼 때 정부나 국민들이 난민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많으며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난민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이웃으로 그 어디에서인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에게 좀 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코로나 블루 심리 방역, 부천시 청소년 "파워 업!"

부천시는 7월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청소년의 심리건강을 증진시키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고자 '코로나19 청소년 심리건강 지키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센터장 양미진)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상담 호소문제 영역 중 '가족' 관련 상담은 전년 대비 45.3%, 불안이나 우울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은 전년 대비 23.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청소년들은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친구들과의 유대감 약화, 온라인 수업에 따른 원활한 학교 생활의 어려움, 장기간 가정 생활로 인한 가족 간 갈등 등으로 우울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청소년이 느끼고 있는 상황은 '코로나19'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blue)'의 합성어인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는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코로나 블루 집중 심리치유 기간'을 운영하여 코로나 블루 관련 심리검사, 개인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심리방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부천시

For foreign residents in Bucheon, More Anti-disaster Basic Income will be provided

Marriage immigrants and permanent residents 150,000 won per person <small>(Gyeonggi Province- 100,000 won + Bucheon City- 50,000 won)</small>	Other registered foreigners 50,000 won per person <small>(Bucheon City- 50,000 won)</small>
--	--

Registration period June 1 to July 31

Payment subjects and amounts
- Payment of 150,000 won per person for marriage immigrants and permanent residents (100,000 won-Gyeonggi Province + 50,000 won-Bucheon City)
- Other registered foreigners- 50,000 won per person from Bucheon City
※ Marriage immigrants, permanent residents and other registered foreigners who were registered in Bucheon City before May 4, 2020 and maintained the registration until the application date

Payment form A Charged prepaid card
※ In case of loss or damage, re-issuance is possible only if the name is registered at the prepaid card issuer (Nonghyup)

Expiration date August 31, 2020

Where to use At stores with less than 1 billion won in sales located in Bucheon City (excluding department stores, supermarkets,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etc.)

How to register Apply by visiting the Foreign Anti-Disaster Basic Income Integrated Support Center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 (Weekdays: 9 a.m. - 6 p.m.)
Please proceed to Bucheon Stadium 2nd Floor, 482, Sosa-ro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2층)

Monday Last digit of birth year 1,6	Tuesday Last digit of birth year 2,7	Wednesday Last digit of birth year 3,8	Thursday Last digit of birth year 4,9	Friday Last digit of birth year 5,0
--	---	---	--	--

※ However, on the first week of implementation, on Saturday and Sunday (June 6 to June 7), normal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from 9 a.m. to 6 p.m.

Documents for application Application form, Identification card,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Agreement
※ Identification card: Alien registration card, domestic residence report for foreign nationals, permanent residence card
※ Certificate of marital status for immigrants other than F-2-1 and F-6

Application by proxy Documents to verify family relation. (If not verified, application is not accepted)
※ For minors, application is available by his/her legal representative (Documentary evidence to be submitted)

Note You can only apply by visit
※ If you come with someone who speaks Korean well, or fill out an application in advance a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or the Migrants Support Center, it will be processed quickly and conveniently.

Bucheon City Call Center: 032-320-3000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부천시

富川市给本市外国人,多发灾难基本补贴!

结婚移民者和持有永久居住权者 每人 150,000 韩元 <small>(京畿道10万韩元 + 富川市5万韩元)</small>	除结婚移民和永久居住权的登录外国人 每人 50,000 韩元 <small>(富川市5万韩元)</small>
---	--

申请期间 6月1日~7月31日

申请资格和金额
- 结婚移民者和持有永久居住权的人, 每人可申请15万韩元 (京畿道10万韩元+富川市5万韩元).
- 除结婚移民者和持有永久居住权者, 在富川市居住且持有外国人登录证的外国人, 每人可申请5万韩元.
※截止5月4日, 在富川市登记地址, 且申请日为止一直居住在富川市的结婚移民者, 永久居住权者和持有外国人登录证的外国人。

支付方式 一次性充值卡
※ 领取充值卡后, 建议在农行网页或上门登记, 以免因遗失或破损, 而无法申请余额。

使用期限 截止 2020年 8月 31日

使用地点 富川市辖区, 年销售额10亿韩元以下的商场、饭店等(百货商店,大型超市,娱乐场所除外)。

申请方法 地点: 外国人灾难基本所得综合支援中心(외국인 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
时间: 9:00~18:00(星期一~星期五),
地址: 苏沙路482, 富川综合运动场 2楼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2층)
方式: 五天轮换制

星期一 出生年度尾数 1,6	星期二 出生年度尾数 2,7	星期三 出生年度尾数 3,8	星期四 出生年度尾数 4,9	星期五 出生年度尾数 5,0
-----------------------------	-----------------------------	-----------------------------	-----------------------------	-----------------------------

※ 实施申请的第一个星期六和星期日(6.6~6.7/09:00~18:00)正常办理业务。

申请材料 申请表、身份证明、个人信息使用同意书。
※ 身份证明: 外国人登录证, 外籍同胞在韩居住申报证, 永久居住证, 持有F-2-1和F-6签证的结婚移民者需另行提交结婚关系证明书。

代理申请 需提交可以证明家庭关系的资料(无法确认时, 不能申请).
※ 未成年者, 其监护人可代理申请(另行提交证明材料)。

注意事项 仅限上门申请
※ 为了便于快速处理申请业务, 最好与韩国语较好的人同行, 或在多文化家庭支援中心和移民支援中心提前填写申请表。

富川市 咨询中心 032-320-3000

오산건가다가에서 듣는 유익한 온라인 비대면 강의 3가지 '눈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어민강사 양성과정, 드림키움 프로젝트, 셀프파워 부모교육 등



모국어 강사 양성과정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 오산건가다가)는 오는 7월 10일까지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모국어(원어민)강사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언어별 특성 및 해당 국가의 문화소개법과 모국어(외국어) 교수법을 지도하여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국어(원어민)강사 양성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교육으로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하루 3시

간씩 매주 월수금요일 총 10회기 진행된다.

한국어 능력 중급 수준 이상의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지원할 수 있다. 12명을 선발하게 교육생들은 강사의 자기소개법, 언어별 나라소개법, 특징소개 인사말, 숫자 문자 교수법, 단원별 학습법, 어린이 언어 교수법 등을 배우게 된다.

기업 외국어교육 전문가로 이혜숙 비즈토크 대표 외 2명이 강사로 나서 온라인으로 교육한다.

드림키움 프로젝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또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드림(Dream)키움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젝트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유형 검사를 통해 자신의 학습유형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1학년 학생 및 부모가 참여할 수 있으며 초등 5~6학년생 5명과 중학교 1학년생 5명을 선발해 학습유형 검사와 학습유형 워크숍 등에 대해 배운다.

다만 초등학생은 나만의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중학생은 공부동기, 나의꿈 책갈피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7월 1일까지 접수이므로 서둘러야 한다. 070-4336-1406

셀프파워 부모교육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 학부모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셀프파워 부모교육 '평화로운 의사소통, 비폭력대화'를 오는 7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한다.

참여대상은 학령기(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20명으로 7월 2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네이버의 각 가정 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수강할 수 있으며 6회기에 걸쳐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들 ▲비폭력대화 모델연습 ▲공감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네가지 선택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사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박기원 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070-4918-9170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도 사용하면 좋은 오산 지역화폐 '오색전', 지역경제 도와요

3개월만에 10만장 발급, 재난소득 효과 시민 50%이상 사용, 7월엔 이벤트 실시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이 3개월 만에 10만여장 발급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에 따르면 '오색전' 발행규모는 6월 초 현재 125억6천500만원(일반발행(개인)이 충전한 금액) 107

억6천만원, 정책발행(산후조리비 등을 지자체 등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금액) 18억500만원)에 달한다.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최초 100%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3월 말 기준 2만1천837장에 불과한 카드 발급량은 12만1천623장으로 급증했다.

이는 약 22만명 시민 중 50% 이상이 최단기간 지역화폐를 발급받은 것이다.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된 '오색전'은 오직 카드로만 발행된다. 오색전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9억원 발행되는 등 모두 73억여원이 충전, 사용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발행규모(재난기본소득 지급액 425억6천700만원 제외)가 급격히 늘고 있다.

1월 17억8천300만원, 2월 16억800만원, 3월 19억4천200만원으로 월평균 2배 가량 늘었고 소비액 역시 1월 13억6천700만원, 2월 13억7천100만원, 3월 16억1천1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5월 현재까지 발행규모는 지난해 전체 발행규모의 2배에 달하며 소비액 역시 98억4천800만원으로 지난

해 전체 소비액 60억1천700만원을 훌쩍 넘겼다.

특히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4월에는 31억1천700만원, 5월 41억1천500만원으로 발행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다.

7월에는 핫써머 특별이벤트도 실시한다.

첫 번째 이벤트는 더위 타파를 위한 쿨한 이벤트로 구간별 사용금액 순위에 따라 총 1억원의 경품을 2000명에게 지급한다.

두 번째 이벤트는 오색전 응원댓글 이벤트이다. SNS에 오색전 영수증과 해시태그를 게시 후 오색전 홈페이지에 응원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늘어나면서 개인충전 금액이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충전금액의 약 80%가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비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准妈妈课程及礼物 **다문화가족 예비맘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해요**

대한적십자사와 롯데, 100만원 상당 신생아 선물과 초보 엄마 수업 진행



2020년7월~2021년6월예산기의准妈妈看过来, 福利来喽! 大韩红十字社为妈妈们准备好了新生儿礼物口还有新手妈妈课程. 大家不要错过一定要申请哦, 据小编的经验, 这些礼物价值至少在100万左右, 因为小编之前都是自己花钱准备的哦. 礼物构成如下: 奶瓶消毒器, 背带, 音乐垫, 电动摇床, 体温计, 恒温水壶, 宝宝尿尿垫. 如果是双胞胎还给一台双胞胎用的婴儿推车.

除了礼物以外还有准妈妈课程: 应急措施, 宝宝辅食

制作等. 这些课程都是免费的, 并且有了宝宝也特别实用.

申请对象是预产期在2020年7月~2021年6月之间基本所得收入在70%以下的产妇. 下图是2020年中位收入基准图, 供参考, 不超过这个收入范围的有资格申请.

分为两批申请: ▲第一批: 2020年5月18~6月30号 (2020年12月预产期) ▲第二批: 2020年9月1号~10月16号 (2021年1月到6月预产期) ▲申请方式: 网上递交申请书-审核-出结果-寄物品-使用后期(必须) ▲具体事项请参考网站 www.redcross.or.kr

活动期限数量有限, 准妈妈抓紧时间准备材料申请吧! 小编之前生宝宝的时候一个是语言不好看见宣传也不知道是什么, 再一个也不知道从哪里得到情报, 所以没能得到福利, 都是自己买的, 这些礼物和课程真的是准妈妈们的必需品, 机会不要错过哦!

2020년 7월~2021년 6월 출산예정인 예비 엄마들을 위한 복리후생이 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예비 엄마들을 위해 신생아 선물과 초보 엄마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여

러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선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젓병 소독기, 어깨끈, 음악 패드, 전기동요 침대, 체온계, 항온주전자, 아기 방뇨 패드. 쌍둥이라면 쌍둥이용 유모차도 줍니다.

선물 외에 예비 엄마 수업도 있다: 응급조치, 아기 이유식 만들기 등. 이 수업들은 모두 무료이며 아기를 있는 엄마들에게 특히 실용적입니다.

신청 대상은 출산 예정일이 2020년 7월~2021년 6월 사이 기본소득이 70% 이하인 산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redcross.or.kr

활동 기한이 한정되어 있으니 예비 엄마들은 서둘러 서류 신청을 준비하세요! 기자는 전에 아기를 낳았을 때 말이 안 통해서 홍보를 봐도 뭔지 모르고 또 하나는 어디서 정보를 얻을지 몰라 복지를 못 받아서 혼자서 다 샅습니다. 이 선물과 수업은 예비 엄마들의 필수품이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원난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경기도 7월 5일까지 도심지 유기동물 입양문화센터 명칭 공모



Проблема брошенных животных стоит остро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в том числе и в Корее. Многие люди воспринимают животных как какой-то аксессуар или же игрушку. 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иходит понимание, что любому питомцу необходим должный уход и дрессировка, животное либо усыпляется, либо выбрасывается на улицу. По сравнению с Россией, в Корее встретить уличных собак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о. Обычно их сразу же отлавливают. В отличие от уличных кошек, которые живут, наверное, в каждом переулке.

Не правда ли, было бы прекрасно, если у каждого животного был свой любящий хозяин и проблема брошенных животных сошла на нет? Возможно, ситуация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изменится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потому что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было объявлено, что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центр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о втором полугодие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ие центр-приют для бездомных живот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о, где люди и животные живут в полном благополучии. Центр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в городе Сувон, район Ингедонг.

Помим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функции данного центра, как создание правильной культуры и привитие уважения к животным, можно будет приютить по нравившегося питомца. Поэтому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помещения с животными, комнаты красоты, сауны, игровые площадки, комнаты для консультаций, офисы и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о животных. Не правда ли, что достаточно необычно для приюта? Ведь это целый центр, цель которого привить любовь людей к животным!

Помимо этого, в честь открытия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проводит конкурс на самое оригинальное название для центра-приюта. Название должно полностью раскрывать направление политик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ю и защите животных. Если в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то обязательно попробуйте поучаствовать!

Подать свою идею необходимо с 16 июня по 5 июля 2020 года через домашнюю страницу "경기도의 소리" (<https://vog.gg.go.kr/>). Критериями оценки являются новизна, соответствие теме, символичность, дружелюбность и тд. Победителю будет вручен сертификат на 500 000 вон, второе место - 200 000 вон и 10 человек получат по 30 000 вон за старание.

Такие центры помогут изменить точку зрения людей по отношению к животным. Чем больше люди начнут уважать и любить своих питомцев, тем меньше будет количество животных в питомниках и тем меньше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эвтаназия к ним. Поэтому привлечение внимание людей к этой пробл

еме является очень хорошим решением!

버려진 동물의 문제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일종의 액세서리나 장난감으로 인식합니다. 애완동물이 적절한 보살핌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부담을 느껴 동물을 안락사시키거나 길거리에 버립니다. 러시아에 비해 한국에서 길거리 개를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개들은 즉시 잡힙니다. 아마 거리 고양이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각 동물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주인이 있고 버려진 동물의 문제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상황은 가까운 미래에 바뀔 것입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길 잃은 동물들을 위한 보호소센터를 개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과 동물이 번영하는 공간. 센터는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올바른 문화를 만들고 동물에 대한 존중심을 심어주는 등 센터의 교육 기능 외에도 원하는 애완동물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특별실, 미용실, 사우나, 놀이터, 상담실, 사무실 등을 갖춘 동물문화센터가 설치됩니다. 보호소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합센터이며, 목적은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개원을 기리기 위해 경기도는 동물문화센터에 명명할 가장 독창적인 명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경기도 복지 및 동물 복지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애완동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참여하세요!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https://vog.gg.go.kr/>)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거리 멀어져도 마음 가까이, 언어교육 서비스

파주건가다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운영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는 파주시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정서, 심리 및 사회성 발달 문제를 조기 발굴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언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영유아 및 학령전기 아동은 언어발달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휘 및 구문(문법)발달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은 학교 교과와 연계하여 세계사 지식을 함양시킴으로써 담화능력 및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킨다.

다문화가족 0세~만 12세 자녀 대상으로 주 2회 언어수업을 40분씩 진행하며 대상자를 연중 수시 모집한다.



다문화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대기 순번에 따라 기초선 평가 후 6개월간 교육지원을 하게 되는데,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원팀에서는 현재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이해를 통한 언어발달 촉진’ 및 ‘글로벌 인재 성장지원’을 위한 소그룹 부모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고 센터 문이 열리면 발달전문가를 초빙하여 언어발달 이해 및 가정 내 언어촉진법 등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기타 언어발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센터 언어발달지원팀(031-949-9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파주시, 올여름 공원 내 물놀이시설 개장 안 한다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는 여름철 방학 동안 운영해왔던 물놀이장과 에어바운스를 올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개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그동안 운정신도시와 문산, 탄현, 금촌, 교하지역에서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물놀이시설과 에어바운스를 개장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장하지 않는다. 다만 물놀이형이 아닌 경관형 분수는 운영한다.

이병천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올여름도 찜통더위가 예상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물놀이시설을 운영하지 못해 아쉽다”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내년에는 물놀이로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Бесплатное обучение в течение всей жизни! GSEEK ‘경기도 지식’

Еще более четырех сотен веков назад один философ Фрэнсис Бэкон сказал “Знание - есть сила!”. Эти слова являются актуальными и по сей день. Человеческая личность обладает безграничным запасом знаний и информации. Чем образованнее человек, тем шире круг его твор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стремление познать окружающий мир растет с каждым разом.

Однако не всегда можно найти образование по своему карману. Обычно человек хочет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будь это иностранные языки или же игра на укулеле. Наверное многие говорят себе “Со следующего месяца начну изучать новый язык/найду себе хобби и т.д.” Однако постоянно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то в деньгах, то в свободном времени и планы саморазвиваться откладываются в далекий ящик.

И именно для таких людей был создан сайт GSEEK (<https://www.gseek.kr/>) от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до, слоган которого “Онлайн-обучение в течение всей жизни”. Дома! Бесплатно! Изучаешь только то, что ты именно хочешь! Не правда ли это прекрас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ширить свой кругозор и стать разносторонним человеком?

Особенности программы GSEEK заключаются в:

▲Различные курсы в 14 областях (кулинария, IT, хобби и др.) ▲Все курсы абсолютно бесплатно! ▲Любой житель страны може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курс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на неограниче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курсов

В каждой категории всего по одному курсу? Нет же! Хотя областей всего и 14, каждая разделена на подкатегории, которые также имею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видео-курсов. Говорят, на этом сайте как минимум 1000 различных лекций.

Не пугайтесь слова “лекция”. Ведь в понимании многих это полуторачасовые монотонные и нудные занятия. На сайте занятия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видео длительностью 10-15 минут, что помогает не устать и с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 своё внимание. Потратив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в день мы сможем узнать что-то новое и расширить свой кругозор во многих областях.

Также на сайте часто проводятся различные ивенты, где можно выиграть денежные призы и купоны. Поэтому не откладывайте своё саморазвитие на завтра, а начинайте учиться прямо сейчас!

400여 년 전에 한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끝없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창의적인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주변 세계를 알고 싶어 하는 의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신의 경제력 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양한 활동 분야(외국어 또는 우쿨렐레 연주 등)에서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언어/취미를 배우기 시작할 거야”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여유 시간 등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자기 개발 계획은 먼 상자에 나뒹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GSEEK 웹 사이트(<https://www.gseek.kr/>)를 만들었으며 “평생 온라인 학습”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집에서! 무료로! 원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다재다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GSEEK 프로그램의 기능은(특징) 다음과 같습니다.

▲14개 영역(요리, IT, 취미 등)의 다양한 과정 ▲모든 과정은 무조건 무료 ▲해당 국가에 거주자는 누구나 교육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은 무제한입니다

울리아 경기도외국인SNS기자단

군인 가족 자녀돌봄 '군부대어울림공동육아나눔터'

파주건가다가, 돌봄 사각지대 보완해 실질적 지원 실시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는 지리적 입지 조건으로 문화시설 이용이 어려운 파주시 관내 군인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군부대어울림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한다.

'군부대어울림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실질적 자녀 돌봄으로 2015년 6월 개관했다.

군부대어울림공동육아나눔터는 다양한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으로 매월 요리활동, 공예활동, 오감발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부모와 자녀에게 안전한 놀이활동, 육아정보, 정보 나눔 기회를 제공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며 품앗이 그룹활동으로 자녀와 엄마가 함께하는 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군부대어울림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공간운영이 제한되고 있으나 비대면으로 만들기 키트와 온라인 강의를 통한 대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군부대어울림공동육아나눔터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70-4287-9161)로 문의하면 된다.

군부대어울림공동육아나눔터(파주시 파주읍 애롱길3연풍리군인아파트 3동 102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두원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파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파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 문화적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파주시, '찾아가는 주거복지 맞춤형 상담센터' 운영한다

주거문제는 가족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주거가 열악한 다문화가족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사 갈 필요가 있다.

파주시와 LH파주권주거복지지사(지사장 박형선)는 지난 6월 16일, 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맞춤형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의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에 맞춰 우선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28개 임대아파트 단지 등에 위기가구 발굴 및 주거복지 상담 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상담 및 안내, 청년 일자리 업무 등의 원스톱 상담을 매주 목요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아파트 등을 순회하며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LH파주권주거복지지사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기관 등과 함께 다각적인 상담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및 가족품앗이 그룹모집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지역 내 공동의 돌봄 공간을 마련하여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소통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이용자의 육아 지원 및 상호 교류의 장입니다.

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재능, 물품 등을 교환하여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발달을 돕는 그룹활동

-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이용안내 -

- 대 상: 취학전·후 아동 및 부모 (파주시 거주)
- 시 간: 월요일 01:00~18:00 (6월28일OPEN)
화~금 09:00~18:00
- 주요서비스 내용
 -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 부모에게 육아정보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 제공
 - 도서, 장난감 등 자녀양육관련물품비치 및 대여
 -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연계 및 지원
- 이 용 료 금: 무료
- 위 치: 파주시 파주읍 애롱길3연풍리군인아파트 3동 102호 마복공동육아나눔터



- 가족품앗이 활동안내 -

- 대 상: 파주시 거주 가정 중 재능나눔, 돌봄나눔을 통해 자발적 양육공동체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족
- 장 소: 그룹별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활동가능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제공)
- 품앗이활동내용: 놀이, 학습, 체험활동, 예체능품앗이 등 그룹품앗이전체프로그램, 리더양성교육

※참여문의 : 연풍리마복공동육아나눔터 전화 070-4287-9161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텃밭가족봉사단모집

“ 제철채소 키우기 ”

텃밭 수확물을 키워
지역사회이웃과 나눠요!



다문화가족 3, 다양한가족 3
6가족 모집!

토요일, 월 2회 활동(총 8회)
6~10월 예정

가족단위 참가 필수!

봉사단 발대식(교육) 필수 참여!

활동하지 않는 가족구성원
가입불가!

3회 이상 불참 시
봉사단 자격 제외!

지역사회 행사, 센터 행사 참여!

봉사시간 발급!

접수문의: 031-949-9164 교육팀 이다빈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군포건가다가 최고!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유익한 프로그램 비대면 실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코로나19로 대면 집합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미취학~초등학교 저학년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진행한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4세 이상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 15가족이 대상이며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참가자들은 7월 3~16일에 온라인 부모교육으로 ‘다누리배움터 7월 일반과정’을 진행하며 7월 17~24일에는 자녀교육으로 ‘다문화 활동북 체험 및 세계나라 소품&악기만들기’를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7월 16일

까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는 해당 기간에 1차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7월 16일까지 온라인 교육 수료증을 센터 이메일로 제출하면 2차 자녀교육 ‘너랑 놀래 같이놀래와 세계나라 만들기 체험’ 등의 소품만들기 체험 키트를 받을 수 있다.

수령한 재료를 활용하여 2차 교육을 진행한 후 7월 27일까지 활동사진,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동화구연 자조모임

센터 측은 다문화가족 소통 교류 공간인 다가온에서 동화구연 자조모임을 진행한다.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족 등 군포 거주 학부모 10명이 대상이며 우리 자녀를 위한 엄마표 동화구연 교육과 지역주민 학부모 자조모임이 진행된다.

계획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20회기에 걸쳐 전문 교육과 구성원 자조모임을 실시하는 것으로 잡았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진행할 예정이다. 상황이 언제 바뀔지 알 수 없으니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 장소는 군포시 당정로28번길 22에 위치한 다가온 2층 프로그램실이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센터 측은 또 디지털 범죄의 수법과 유형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방법을 알리는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우리가 NO 해야하는 이유 (부모역할지원사업)’로 이름붙여진 이 프로그램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부모 30가정이 대상이며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참여자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실시되며 홈페이지 및 전화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교육 키트를 수령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는 일이 없도록 방문 일자를 조율한다.

교육을 진행한 후에는 활동일지와 만족도 조사를 제출해야 한다. 활동일지의 필수 사항에 맞게 진행일지를 보낸 15가정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증정한다. 031-395-1811

센터 관계자는 “프로그램 재료 등을 수령한 후 무단 취소하거나 활동일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다른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된다”며 “유익한 프로그램이니만큼 신중하게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하성 기자

新型冠状病毒肺炎带来的变化威胁女性健康 다문화가족 건강변화에 대해

新型冠状病毒肺炎(COVID-19)正在彻底改变世界。新型冠状病毒肺炎不仅给政治, 经济和社会带来了变化, 对每个人的日常生活也给带来了变化。这是谁也没有预料的, 但又事谁也无法逃脱的变化。

突如其来的变化会导致混乱和压力。人们普遍认为, 这次变化在韩国社会和世界各地安顿下来之前, 短期内会持续相当程度的混乱和压力。环境和生活的变化对人体也有不小的影响, 尤其是对那些敏感于细微变化或压力的女性来说将会带来更大的影响而更需要注意。

月经不调

对女性来说, 明显的变化可能会导致月经不调。月经是定期告知女性子宫和卵巢健康的指标。2~7天内出现流量为20~70mL是属于正常范围。医学界认为, 如果脱离这一范位, 就视为月经不调。假设你服用新的药物, 过度运动, 或者更年期开始, 都有可能会出现月经不调。但是如果不是在上述情况下而经历的月经不调, 最大的原因就是压力所致的。压力会导致荷尔蒙分泌上的问题, 从而延缓月经。即使在旅行, 搬家, 离职等个人日常生活的小变化中, 月经也可能比平时来的晚。专家解释说, 如果考虑到这一点, 新型冠状病毒肺炎带来突

发的日常生活变化也有可能成为月经失调的原因。月经失调是女性健康出现异常的早期信号。由于新型冠状病毒肺炎压力越来越大, 所以这时应该比平时更要留意自己的月经周期, 并且若觉得有异常现象就应该寻求专业医生的帮助。

主妇湿疹

新型冠状病毒肺炎对女性的手部健康也亮起了红灯。从学校的网上开学到单位职员在家办公, 全家人呆在家里的时间越来越长。因此, 最近主妇们手就更加闲不住了, 经常泡在水里。转过身来想歇会儿又是吃饭时间, 打扫及清理房间的事也没完没了, 这样就很容易被主妇湿疹所困扰。主妇湿疹是通过有病变的皮肤渗透多种物质, 而引起过敏反应和炎症的一种

皮肤疾病。大部分家里一般都是主妇们经常用水, 洗涤剂, 食材等所以经常会出现这种现象, 因此被称为“主妇湿疹”。如果受到金属, 化学药品, 塑料, 泥土等的过度刺激, 也会引发主妇湿疹。特别是, 最近因新型冠状病毒肺炎而频繁使用的洗手液和洗手消毒剂也是导致主妇湿疹恶化的主要原因。

预防主妇湿疹的最佳方法是在洗碗或洗衣服时不要空手去做, 而是戴上橡胶手套。另外, 洗手

时, 即使很麻烦, 也最好摘下戒指。因为留在戒指下面的肥皂或洗涤剂可能会引起湿疹。洗手后, 用干净的毛巾仔细擦拭手指之间, 然后涂上保湿剂。

失眠

因为新型冠状病毒肺炎, 很多人晚上睡不好觉。因为每天都能听到确诊病例的消息, 所以担心不已。再加上日常生活模式也发生了变化, 所以无法熟睡。即使躺着也睡不着觉。因此, 会在半夜起来看电视或工作, 昼夜被颠倒的日子也会反复出现。然而, 如果持续这样一个没有充分睡眠的日子, 人体很难保持免疫力。如果日夜颠倒, 连生活节奏都被打破, 免疫力下降的风险只会更高。在新型冠状病毒肺炎不断扩散的时期, 一定要避免类似情况而导致免疫力下降。专家建议, 为了保持睡眠, 应该定期进行适当的运动, 并有规律地调整吃饭时间。即使刚开始是不习惯也要坚持做到每天都在同一时间睡觉, 起床。这样反复锻炼身体也是一种方法。为了保持适当水平的免疫力, 睡眠时间必须至少每天要保持在6小时以上。

资料来源: 国民健康保险公团

翻译: 金姬善

<한글 기사 36면>

김희선 기자

코로나19 '비대면 화상면접 서비스'로 채용방식 변화

취업 준비 중인 다문화가족도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도전



군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구직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비대면 화상면접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포시는 인터넷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면접 서비스를 6월 18일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7월부터 관내 기업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채용방식의 변화는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한곳에 모여 진행하던 집합형 채용박람회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비대면 온라인 화상면접은 면접관과 구직자가 인터넷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구인기업은 회사에서, 구직자는 군포시 일자리센터에서 각각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유형균 군포시일자리정책과장은 “화상면접이 인력채용에 필요한 시간과 경비, 면접자, 구직자 간의 불필요한 대면 회수를 줄이는 등, 코로나19로 방문과 접촉을 기피하는 기업과 구직자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6월 18일 화상면접 시범운영을 통해 인터넷 통신상태 및 화질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참여자의 만족도 등을 참고하여 7월부터 시청에 화상면접 부스를 설치해 관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상면접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1주일 전에 군포시 일자리센터(031-390-0227)로 구인신청서를 제

출하면, 직무에 적합한 인재 추천과 함께 화상면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일자리정책과(031-390-03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군포시는 내년 초 청년자립 활동공간 'I-CAN 플랫폼'을 본격 착공한다. 총공사비 180억원을 들여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I-CAN 플랫폼'은 지역 내 청년 자립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과 자립공간으로 산본동 옛 우신버스차고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에 연면적 5580㎡로 지상 1층을 청년운영카페와 공유주방 등 청년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층은 세미나실과 쉼터 등 청년 집중공간, 3층은 스튜디오와 공부방, 창업공방 등 청년창업보육 공간으로 조성한다. 4층은 창작, 작업 독립공간이 들어선다.

김영의 기자

군포시 드림스타트, 영양결핍 아동들에 영양꾸러미 지원해요

군포시 취약계층아동 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는 저체중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구성된 영양꾸러미를 지원한다. 군포시와 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는 6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고, 영양결핍 우려 아동 50명에게 올 연말까지 매달 3만원 상당의 영양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의 영양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군포시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식품 등 7종으로 구성된 영양꾸러미를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공급업체를 통해 각 가정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에서는 영양꾸러미 식품을 이용한 요리 활동 사진 등을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회신한다.

김영의 기자

2020년 부모역할지원사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우리가 NO해야하는 이유

#제2의N번방예방교육

디지털 범죄의 수법이 다양화 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범죄인지 인식하지도 못한 채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 위험 대처 방법과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방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상 및 인원 : 초등 고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 30가정

#장소 : 참여자 가정 내 (가정 내 교육)

#접수 기간 : 2020년 6월 29일 ~ 7월 10일 (오전 10시 ~ 12시)

#진행 기간 : 2020년 7월 6일 ~ 7월 10일 (5일간)

#비용 : 무료

#활동 방법

활동일지를 "필수사항"에 맞게 작성해주신 15가정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활동일지 필수 사항#

1. 느낀점 50자 이상 적기
2. 자녀와 함께 교육영상을 함께 보는 모습 인증샷 찍기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가짜 안전 수칙 빈칸 채워 인증샷 찍기
4. 얼굴 퍼즐 만들어 인증샷 찍기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7월 (1~2회기)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참여가족 모집

- 대상** | 군포시 미취학 아동(4세 이상)~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족 (15가족)
- 장소** | 참여자 가정 내
- 내용** | 1회기 : 부모 '다누리배움터 7월 일반과정 종합신청' 온라인 교육(7/3~7/16)
2회기 : 자녀 '다문화 활동북 체험 및 세계나라 소품&악기만들기'(7/17~7/24)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gunpo.familynet.or.kr>)
- 이용요금** | "무료"
- 신청기간** | 2020년 06월 26일(금) ~ 접수 마감시 까지

1회기 : 부모교육 '다누리배움터 일반과정 (2시간)'



온라인 다누리 배움터 일반과정(종합신청) - 4차시 이수 (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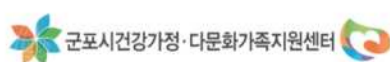
2회기 : 자녀교육 '너랑놀래 같이놀래' & 세계나라 만들기체험



- 뽀로로 '너랑놀래 같이놀래' 활동북 체험, 동영상 시청
- 세계나라 악기만들기, 소품만들기 체험 키트 활동

- ☺ 1회기 부모교육 수강일 : 7/3(수)~7/16(목)
- ☺ 2회기 교육키트 배분일 : 7/17(금)~7/18(토) *수료증 제출 후 참여자 별도 안내
- ☺ 2회기 자녀교육 진행일 : 7/17(금)~7/24(금)

*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시설 단체신청(자녀교육)은 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은 부모-자녀 교육으로 1~2회기 통합신청되며 각 회기 따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문의사항 | ☎031-392-1811
담당자 | 가족지원3팀 전 안 사회복지사

A NEW ROUTINE DISTANCING IN DAILY LIFE

Stay home for 3~4 days if you're sick.

Keep a distance of two arms' length between you and other people.

Wear a facemask in: ① any indoor publicly used venue ② outdoor environment if you can't keep 2 meter distance from other people

Wash your hands for 30 seconds. Cough/sneeze into your sleeve.

Ventilate your space at least twice a day and disinfect regularly.

Keep in touch with family and friends while maintaining physical distancing.

A new routine to keep COVID-19 away, let's make it happen together.

全新的日常生活防疫

身体不适时居家休息3~4天 与他人保持两臂的健康距离

在“室内公共设施及无法保持2米间隔的室外” 必须佩戴口罩

洗手30秒, 咳嗽时用衣袖遮挡口鼻 每天通风换气两次以上, 周期性消毒

身远心不远

战胜新冠肺炎疫情的全新日常 齐心协力, 共同打造。

新たな日常生活の中での距離確保

具合が悪ければ3~4日自宅で過ごす 健康のために他者とは腕2本分の距離をとる

「不特定多数が利用する屋内施設」や 「2mの距離をとるのが難しい屋外」では必ずマスク着用

手洗いは30秒、咳をするときは袖で覆う 毎日2回以上換気を行い、定期的に消毒する

距離は離れても心は近くに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打ち勝つための新たな日常、 みんなで作りましょう



Cuộc sống thường nhật mới giữ khoảng cách trong sinh hoạt

Nếu bị đau hầy ở nhà 3~4 ngày giữ khoảng cách khoảng hai cánh tay

trong các phòng công cộng hoặc *bên ngoài những chỗ giữ khoảng cách 2m* bắt buộc đeo khẩu trang

Rửa tay trong 30 giây, khi ho che miệng bằng tay áo mỗi ngày thông gió trên hai lần, khử trùng định kỳ

cho dù khoảng cách có xa nhưng tấm lòng rất gần

Một cuộc sống mới để chiến thắng Corona 19 Chúng ta cùng nhau tạo nên.

ອຸພາບຊີວິດໃນການຮ່ວມຮູ້ ການຄຸ້ມຄອງ: ອຸພາບຊີວິດໃນການຮ່ວມຮູ້ ການຄຸ້ມຄອງ

ບຸລິສເບີລີ ມຸກຄຸມສຸກຳຮ່ວມຮູ້ ກະໂນວາ 3~4 ວັນ

ກຸງາອາວຸດອຸພາບຊີວິດສຸຂະພາບ ຮູ້ກຸງາອາວຸດສຸຂະພາບ ທີ່ສຳຄັນ ໃນສະຖານທີ່ ທີ່ບໍ່ສາມາດຮັບຮອງການຮ່ວມຮູ້ ມາດຕະການ ທີ່ຕ້ອງຮັບຮອງ

ການລາຍໄພ 30 ວິນາທີ, ເຕລູກຸກ ພັກໄຜ່ກຸ້ມຄອງ

ເປັກກຸງາອາວຸດອຸພາບຊີວິດສຸຂະພາບ ເປັກກຸງາອາວຸດອຸພາບຊີວິດສຸຂະພາບ ທີ່ສຳຄັນ ຕາມຄຸ້ມຄອງສາຍພັນສາຍພັນ

ເອາະເປັກກຸງາອາວຸດອຸພາບຊີວິດສຸຂະພາບ ໂຕອິດເຮັດຕິດຕາມ

ເປັກກຸງາອາວຸດອຸພາບຊີວິດສຸຂະພາບ, ເປັກກຸງາອາວຸດອຸພາບຊີວິດສຸຂະພາບ ເຮັດອຸພາບຊີວິດ ການຄຸ້ມຄອງຮ່ວມຮູ້

Режим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Если плохо чувствуете себя, оставайтесь дома на 3-4 дня

Соблюдайте дистанцию между людьми на расстоянии двух метров

Обязательное ношение масок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помещениях и в открытых местах, где затруднительно держать дистанцию в два метра

Мойте руки в течение 30 секунд, при кашле прикрывайтесь рукавом одежды

Периодически проводите дезинфекцию и проветривайте помещение не менее 2-х раз в день

Мы вместе, несмотря на расстояние

Мы вместе создадим новый режим, который поможет в нашей общей борьбе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दैनिकि जीवनमा एक नयाँ दैनिकी दूरी

यदि तिपाईं बरिमी हुनुहुन्छ भने 3~4 दिन घरमा बस्नुहोस्। तपाईं र अरुहरू बीच दुई हतयिार लम्बाइको दूरी राख्नुहोस्।

यदि तपाईं बरिमी हुनुहुन्छ भने 3~4 दिन घरमा बस्नुहोस्। तपाईं र अरुहरू बीच दुई हतयिार लम्बाइको दूरी राख्नुहोस्।

30 सेकेन्डको लागि आस्ता हातहरू धुनुहोस्। तपाईंको आस्तीनमा खोकी/हाच्छुटि गर्नुहोस्। कमलमा दैनिकी दुई पटक तपाईंको टाउँके नुटलिट गर्नुहोस् र नयिमति रूपमा कीटाणुनाशक गर्नुहोस्।

शारीरिक दूरी कायम गर्दा परिवार र मतिरहस्यै सम्पर्क राख्नुहोस्।

COVID-19 दाहा राख्नुको लागि नयाँ दैनिकी दूरी हामी सबैलाई यो सम्भव बनाओ।

ດຳລົງຊີວິດແບບໃໝ່ ເວັ້ນລະຍະຫ່າງໃນຊີວິດປະຈຳວັນ

ຖ້າບໍ່ສະບາຍຕ້ອງຢູ່ບ້ານ 3~4ມື້

ຍະວ່າງຫ່າງກັນສອງວາເພື່ອສຸຂະພາບ

'ສາມາດຮັບຮອງ' ຫາກ ບໍ່ສາມາດ ຮັບຮອງ ທີ່ບໍ່ສາມາດ ຮັບຮອງ ການຮ່ວມຮູ້ ມາດຕະການ ທີ່ຕ້ອງຮັບຮອງ

ລ້າງມື 30ວິນາທີ, ໂອຈາມໃສ່ແຂນເສື້ອ

ຖ່າຍເທອາກາດມື້ລະສອງເທື່ອ, ຂ້າເຊື້ອທຸກຮອບອາທິດ

ເຖິງລະຍະຈະຫ່າງໄກແຕ່ເຮົາຍັງຫ່ວງໄຍກັນ

ດຳລົງຊີວິດແບບໃໝ່ເພື່ອເອົາຊະນະໂຕໂລນຳ, ພວກເຮົາຈະຮ່ວມມືເຮັດມັນໄປນຳກັນ.

Шинээр эхэлж буй өдөр тутмын амьдралд өөр хоорондоо зай барих

Өөдвөл 3-4 өдөр гэртээ байх

Хүн бүр өөр хоорондоо хоёр алхам зай барих

Олон иймтэй барилга байгуулам дотор 2м-н зай барих боломгүй тохиолдолд маск зүүх

30 секунд гараа угааж, ханиалгахдаа амаа хувцасны ханцуйгаар халхлах

Өдөрт 2-оос дээш удаа агаар сэлгэж, байнга ариутгал хийх

Бие хол ч сэтгэл ойр

Корона 19-ийг даван туулсан шинэ өдрүүдийг, Та бид хамтдаа бүтээнэ.



วิธีการดำรงชีวิตแบบใหม่ เว้นระยะห่าง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 ในการใช้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

ถ้าไม่สบายให้พักอยู่บ้าน 3~4 วัน ให้เว้นระยะห่างกัน สองช่วงแขน

ภายในอาคารที่ผู้คนเป็นจำนวนมาก หากพื้นที่เว้นระยะห่าง 2 เมตร ไม่สามารถทำได้ให้เว้นระยะห่าง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และหลีกเลี่ยงการแออัด

ล้างมือ 30วินาที, ให้ยกแขนเสื้อขึ้นมาปิดเวลาไอ

ระบายอากาศอย่างน้อยวันละ 2 ครั้ง, ซ้ำเชือโรคเป็นครั้งระยะ

แม้ว่าระยะทางจะไกล แต่หัวใจอยู่ใกล้

วิธีการดำรงชีวิตแบบใหม่ เพื่อเอาชนะ โควิด-19 เราาร่วมกันปฏิบัติไปด้วยกัน

Panibagong pang-araw-araw na pamumuhay Panatilihin ang distansyang panlipunan sa pang-araw-araw na pamumuhay

Kung ikaw ay may sakit manatili sa bahay ng 3~4 na araw.

Dumistansya ng hanggang dalawang braso.

Ang pagpapalit ng mask ay ipinang-uutos sa mga lugar na kung saan may kalibangang mga tao. Ang dalawang medyang itayo at sa mga panloob na pasilidad na ginagamit ng kalahatan.

Hugasan ang kamay ng 30 segundo, takpan ang bibig sa pag-ubo gamit ang iyong manggas ng damit

Bentilasyon ng hindi bababa sa dalawang beses araw-araw, regular na pagdidisimpekta.

Malayo man ang distansya sa bawat isa, malapit naman ang mga damdamin.

Isang panibagong paraan ng pang-araw-araw na pamumuhay upang talunin ang Corona 19, Sama-sama tayu sa papapatupad at gawin ang mga ito.

YANGI KUNDALIK HAYOTDA O'ZARO MASOFA SAQLASH REJIMI

Agar o'zingizni yomon his qilsangiz, 3~4 kun uyda bo'ling


Odamlar orasida o'zaro 2metr masofani saqlang atrofi yoqip aholi zich joylashgan jamoat joylarida o'zaro 2metr masofa saqlang va albatta maska taqishni unutmang

Yo'talganda kiyim yengi bilan og'izni berkitib, 30 soniya davomida qo'llarni yuving

Xar kuni 2martadan ortiq xona xavosini almashtiring va doimiy dezinfeksiya tutishni unutmang

Masofa uzoqlashsada qalban yaqinmiz

Korona-19 ga qarshi kurashish uchun yangi kundalik xayot rejimini, Biz birgalikda yaratamiz.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 여성 건강 위협한다, 다문화가족도 주의!

갑작스러운 변화, 혼란과 스트레스가 주부습진, 불면증, 생리불순 등 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는 물론, 개개인의 일상까지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가 파고들었다.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변화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과 스트레스를 불러온다. 변화한 모습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안착될 때까지는 당분간 상당 수준의 혼란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환경이나 생활의 변화는 인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작은 변화나 스트레스에도 민감한 여성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생리불순

여성들에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변화로 생리불순이 있을 수 있다. 생리는 여성의 자궁과 난소 건강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다. 2~7일 동안 20~70mL 양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생리 범위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벗어나면 생리불순으로

본다. 가령 새로운 약을 복용하거나 운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갱년기가 시작되면 생리불순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생리불순을 경험한다면 가장 유력한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에 문제를 일으켜 생리를 늦출 수 있다. 여행이나 이사, 이직 같은 개인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에도 생리가 평소보다 늦어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코로나19에 따른 갑작스러운 일상의 변화 역시 생리불순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생리불순은 여성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조기 신호다. 코로나19로 스트레스가 많아진 만큼 평소 자신의 생리 주기에 더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주부습진

코로나19는 여성들의 손 건강에도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온라인 개학부터 재택근무까지, 온 식구가 집에 머무는 시간

이 늘다 보니 요즘 주부들은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다. 뒤돌아서면 식사 시간이고, 청소는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으니 주부습진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주부습진은 병변이 있던 피부를 통해 여러 가지 물질이 침투하면서 알레르기 반응과 염증을 일으키는 피부 질환이다. 물이나 세제, 식재료를 자주 만지는 주부들에게 흔히 생기기 때문에 주부습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금속이나 화학약품, 플라스틱, 흙 등에 지나치게 자극을 받아도 주부습진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이 잦아진 손 세정제나 손 소독제도 주부습진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주부습진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설거지나 빨래를 할 때 맨손으로 하지 말고 고무장갑을 끼는 것이다. 또 손을 씻을 땐 귀찮더라도 반지를 빼는 게 좋다. 반지 밑에 남는 비누나 세제가 습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손을 씻은 뒤엔 깨끗한 수건으로 손가락 사이

사이까지 꼼꼼히 닦은 뒤 반드시 보습제를 바른다.

불면증

코로나19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는 사람도 많다. 매일 같이 들려오는 확진자 발생 소식에 걱정이 앞서는 데다 일상생활 패턴까지 흔들리니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니까 한밤중에 TV를 보거나 일하게 돼 밤낮이 바뀌는 날이 반복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지속되면 인체는 면역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밤낮이 바뀌어 생활리듬마저 깨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위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시기에 면역력 감소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중국어 33면, 태국어 18면, 일본어 13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문화가족, 안심하고 책 빌린다!

광명시, 도서관 '비대면 안심대출서비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다문화가족도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책을 빌려 알찬 시간을 보내보자.

광명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비대면 안심대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지난 5월 6일 도서관 일부 개방으로 도서대출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5월 30일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다시 휴관에 들어갔다.

이에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로 24시간 무인예약 대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출할 수 있는 도서 수량이 한정돼 있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소한의 접촉으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책 배달 서비스와 방문 수령 서비스를 한다.

광명시도서관 자료대출회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 도서관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리브로피아)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광명시 공공도서관 5곳(하안, 광명, 철산, 소하, 충현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대출 권수와 대출기한은 1인 7권까지 14일 이내이다.

책 배달 서비스는 신청 후 2~3일 이내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방문수령 서비스는 신청한 도서를 다음날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 각 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소하도서관은 신청한 도서를 소하도서관 주차장에서 수령할 수 '북 드라이브 스루 안심 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

북 드라이브 스루를 포함한 방문 수령 시에는 도서대출 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반납은 무인 반납기와 무인 반납함을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광명시는 KTX광명역, 호반써밋 아파트 앞,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등 5곳에 무인 도서대출기기인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 재개 시까지 대출 도서를 2권에서 5권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도서관은 광명시통합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4일로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회원카드 및 리브로피아 회원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 요리교실

★ 대 상: 한국거주 3년 이하 결혼이민자 16명 (2018년 이후 한국 입국)
 ① 2019년 다문화 요리교실 참여하지 않은 분
 ② 7회기 모두 참여 가능한 분

★ 장 소: 광명시평생학습원 요리교실

★ 준 비 물: 앞치마, 행주, 음식 담아갈 그릇

★ 문 의: 02-6265-1366

회기	일시	내용
1회기	7월7일(화) 13:30-16:00	닭 볶음탕, 말치볶음
2회기	7월9일(목) 13:30-16:00	장조림, 제철 곁절이
3회기	7월14일(화) 13:30-16:00	잡채, (미역국)
4회기	7월16일(목) 13:30-16:00	소고기무국, (제육볶음)
5회기	7월21일(화) 13:30-16:00	오징어부추전, (된장찌개)
6회기	7월23일(목) 13:30-16:00	김밥, (주먹밥)
7회기	7월28일(화) 14:00-15:00	평가회의

※ ()에 있는 메뉴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맛벌이 가족, 가족문화프로그램 '숲 체험' 심리적 방역 도와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 가족의 행복한 시간' 운영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지난 6월 20일 관내 맛벌이 가족 3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문화 프로그램인 '우리 가족의 행복한 시간'을 진행했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시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는 광명시 맛벌이 가족의 심리적 방역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족 숲 체험으로 광명시 도덕산 일대 배수지공원 야생화단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숲 체험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수도권 방역 강화 기준'을 준수하며 가족 단위별 숲 체험으로 이뤄졌다.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은 3가지의 재미요소가 있었다. 첫 번째는 가족미션으로 '숲빙고' 수행하기이다. 9개의 빙고판에 숲속에 있는 다양한 모양의 나뭇잎을

수집하여 붙이는 것이다. 미션을 수행하며 숲속 자연물도 관찰하고 가족의 단합심도 길러볼 좋은 기회로 다양한 자연물이 붙여진 빙고판은 하나의 작품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었다.

두 번째는 '가족사진 촬영하기'이다. 숲속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한 가족은 자연을 배경 삼아 3장의 즉석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가족마다 마음에 드는 장소를 골라 아름다운 가족사진도 찍고 소장할 수 있어 더운 날씨였지만 1석 2조의 기쁨이 함께 있어 참가 가족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미션 수행하기'다. 숲길을 걸으며 수집한 자연물과 촬영한 사진을 활용해 '가랜드'를 완성하고 오늘 하루 함께한 가족에게 '가족 롤링페이퍼'를 작성하는 것이다.

롤링페이퍼에는 '엄마가 힘든 만큼 제가 엄마를 도와주고 엄마를 사랑할게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맞춰 주면서 살아가자 앞으로 나도 많이 표현하며 살게 사랑해~', '너희는 소중한 보물이다' 등 가족을 향한 따뜻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었고 평소 전하기 쑥스러웠던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3가지 재미요소를 놓치지 않고 모두 즐긴 가족들은 '코로나로 인해 아쉬움이 많았지만, 덕분에 알게 된 장소를 가족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도 쉽지 않고 답답했었는데 숲길도 걷고 자연도 관찰하며 뜻깊은 시간이 되었네요. 집 근처에 이런 좋은 곳이 있구나 싶었어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감이 있었는데 숲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족과 즐겁게 지낸

것에 대해 만족감이 높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서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맛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가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 향상 및 관내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다.

2차 프로그램은 7월 18일에 진행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mfc.familynet.or.kr>) 프로그램 안내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gmfc79@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6265-13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하안동 어린이 체험놀이터' 10월에 문 연다

다문화가족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놀이터 기대



광명시 도덕산 캠핑장 입구에 '어린이 체험놀이터'가 생긴다.

광명시는 도덕산 캠핑장 입구(구 양묘장 부지) 3478㎡ 부지에 5억8천여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 체험놀이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놀이공간에는 짚라인, 트램폴린, 건너기 시설물 등 체험형 놀이시설을 만들고 이용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중형버스 2

대 포함해 차 2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6월 16일 공사를 시작해 오는 10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공사에 앞서 획일화된 놀이터 시설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체험놀이터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어린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지난해 7월 하안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8월에는 학부모 160명 및 어린이집 교직원 214명을 대상으로 놀이시설 선호도 설문조사를 했다.

또한, 9월에는 '우리 동네 놀이터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놀이터 조성에 관심 있는 청소년, 보육시설 원장, 학부모 등 100여 명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명시는 워크숍, 설문조사,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놀이터 설계를 하고 지난해 11월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계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놀이터가 조성되면 도덕산 캠핑장과 연계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많은 아이가 신나게 뛰어놀며 밝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사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광명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결사 반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30일 광명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차량기지 이전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승봉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광명시 한복판에 차량기지가 들어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환경과 성장 잠재력이 처참히 밝힌다"며 "광명시민 한 뜻으로 차량기지를 막아내자"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차량기지를 광명시가 받아야 하는 정당성과 당위성이 떨어진다. 31만 광명시민의 일관된 요구를 무시한 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이전을 강행할 수는 없다"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반대했다.

이지은 기자



김포건가다가, 가족환경 변화 이해하기 교육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 및 다문화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살 수 있음 이해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6월 27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공모사업인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을 시범운영했다. 김포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들이 증가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가족의 인식개선 및 문화감수성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누구랑 살면 어때?”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해교육은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 대표이자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인 이영호 강사가 진행했다.

이날 수업은 프로그램 대상자들이 가족과 가족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특성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대가족 혹은 핵가족, 단일민족에서 보다 더 폭넓은 가족들이 있음을 배웠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변형된 가족구성원들과 다양한 국적의 가족들이 한 가족으로 살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서로 다른 생활양식에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공

통점을 서로 발표하며 서로의 가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었다.

이날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된 ‘에프의 집’이라는 카드게임이었다. 다양한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통해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형태를 알아보고,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론 수업에 그치지 않고, 게임을 통해서 보다 더 쉽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에 이어 오후에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나의 삶은 나의 것! Don't stop me now!’라는 주제로 자조모임을 진행했다.

다문화 한부모 자조모임은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간의 지지를 도모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문화 한부모가정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영호 센터장이 강의를 맡아 ‘한부모가정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조모임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호응이 좋아 7월에도 다문화 한부모가정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족수용성을 높이며,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이지은 기자

김포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50만 장 배부, 1인당 40장씩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등 관내 취약 계층을 위해 마스크 50만 장을 배부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총 1만 2,737명이며 1인당 40장 씩 KF80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마스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시는 7월 중순까지 배부를 마칠 계획이다.

국민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을 보유한 대상자며,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장애인연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기준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설대상자도 7월 중 지원될 예정이며 1인 당 지원기준은 동일하다. 또한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 직접수령이 어려운 대상자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마스크 수급이 좀 나아졌다지만 어려운 분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아직도 크다”며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더욱 꼼꼼한 핀셋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김포시사회적경제기업, 취약 계층에 먹거리 꾸러미 기부

김포시사회적경제기업인 농업회사법인 김포농식품(주)과 과수원길협동조합은 지난 26일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꾸러미 30박스, 감자 10kg 65박스를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

농업회사법인 김포농식품(주)가 기부하는 김치, 제육볶음, 장조림, 강된장 등 유기농 농산물로 만든 반찬꾸러미와 과수원길협동조합이 기부하는 햇감자 10kg 65박스는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농업회사법인 김포농식품(주)의 배효원 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있을 취약계층 분들에게 힘이되는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좀 더 손쉽게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김포시청 031-980-2114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96-5923 김포외국인주민지원센터 031-986-7660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031-987-6241 김포이주민센터 031-982-7661 김포여성의전화 031-986-0136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99-09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MANDATORY QUARANTINE INSTRUCTIONS

FOR ALL INCOMING TRAVELERS TO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ll incoming travelers, regardless of nationality, shall be subject to mandatory 14-day quarantine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and ending at 12:00 of the 19th day. (For example, if you arrived on 1. June, you are required to stay under mandatory quarantine until 12:00 of 15. June.) (*The exact time may differ in the case of facility quarantine and will be announced by the quarantine facility.)

ONCE YOU ARRIVE AT AIRPORT

- ✔ Wear a facemask at all times and avoid contact or talking with other people.
- ✔ You are required to be tested if you have suspected symptoms.
- ✔ FOREIGNERS ON SHORT-TERM VISIT are required to enter mandatory quarantine (at their own expense) at a facility design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LL INCOMING TRAVELERS (regardless of point of origin or nationality) are required to receive a COVID-19 test. For travelers entering through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you will get tested at an open walk-through screening station located at the airport during the hours 9:00-19:00 or at a temporary accommodation facility during 19:00-09:00.

Note) Those who have valid quarantine exemption are required to be tested and will be subject to active monitoring for 14 days by designated public health officials. The designated official will check and monitor their health conditions for 14 days.

*Valid quarantine exemptions are:
- Pre-approved waiver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r
- A1 (diplomat on duty) or A2 (government official on duty) visa or a "quarantine exemption document" issued in advance by a Korean Embassy.

- ✔ FOREIGNERS ON LONG-TERM VISIT (i.e. living in Korea) are required to enter mandatory quarantine in their homes.

If you do not have symptoms at the time of entry, you may leave the airport and enter your mandatory home quarantine. However, you are required to visit a screening center and get tested within the next 3 days (i.e. during your home quarantine period), regardless of symptoms.
* Further actions may follow contingent on test result.

- ✔ FOR ALL PERSONS SUBJECT TO MANDATORY FACILITY QUARANTINE:
- Use the designated transit vehicle to move to your designated quarantine facility.

JUNE 12, 2020



韩国入境人员 隔离注意事项

隔离人员生活守则

- ✔ 隔离人员遵守事项
 - 禁止脱离隔离地点, 以防病毒感染与传播
 - 隔离人员须在独立空间生活, 共同使用的空间, 务必经常通风
 - 若不能在独立空间独自生活, 请向所在地管辖地保健所请求帮助
 - 接受诊疗等若必须外出时, 请务必先与所在地管辖地保健所联系
 - 与家人或同居人分开使用个人用品(个人毛巾、餐具、手机等)
 - 出现发热、咳嗽、呼吸困难等状况时, 立即通知所在地管辖保健所
- ✔ 隔离人员的家属及同居人须知事项
 - 家属及同居人应尽量避免与隔离人员的接触
 - 必须与隔离人员接触时, 须佩戴口罩, 保持两米以上的距离
 - 注意观察隔离人员的健康状况
 - 经常擦拭桌子表面、手把、浴室工具、键盘等经常触摸的物品
 - 若家属或同居人从事与多数人接触的工作(学校、补习班、托儿所、幼儿园、社会福利设施、月子中心、医疗机关等), 直到隔离人员解除隔离, 请停止工作

个人卫生守则

- ✔ 用流动的水勤洗手, 每次洗手不少于30秒
- ✔ 咳嗽时请用衣袖遮住口鼻
- ✔ 未洗手前不可触摸口鼻眼等
- ✔ 室内经常通风
- ✔ 出现发热、呼吸困难等相关症状或到医疗机构接受诊疗时, 请务必佩戴口罩

居家隔离期间请务必遵守相关隔离措施, 不得擅自脱离隔离场所, 违反者将佩戴“安心电子手环”, 若拒绝佩戴手环将被送至指定设施接受隔离。(“隔离设施使用费自负”)

若不遵守上述事项, 根据相关法令, 可被处于一年以下的有期徒刑或一千万韩元以下的罚款。若违反内容涉嫌非法行为, 造成韩国有关当局需采取追加防疫措施或因传染扩散等带来国家损失可追究民事赔偿责任。

2020.06.12.



- ✔ FOR ALL PERSONS SUBJECT TO MANDATORY HOME QUARANTINE:
- When you leave the airport, do not take public transportation. Use a personal car or designated mode of transit (designated airport limousine bus or KTX train).
- Get home directly from the airport. Do not make stops in other locations.
- As soon as you arrive home, call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to inform them that you are under quarantine.
- Install the "HOME 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n your phone. (This is mandatory)



ABOUT THE HOME 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All persons subject to mandatory home quarantine (all Korean nationals and all foreign nationals on long-term visit) are required to install the "HOME 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on their mobile phone and comply with the quarantine rules for 14 days of quarantine. (ID: CORONA) (if there is any change to your phone number or where you live, you must notify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as soon as possible.)

HOME QUARANTINE GUIDELINES

- ✔ INSTRUCTIONS FOR PERSON UNDER MANDATORY HOME QUARANTINE:
- To protect other people in your community from possible infection, do not leave your quarantine location (i.e. your home) as much as possible.
- If you need to leave home for an essential need (such as getting medical care), contact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first.
- Make sure to secure an independent living space.
- If there is any space in your home that is shared with other household members (such as family members, roommates, and cohabitants), make sure that the common space is frequently ventilated.
- If you are unable to secure an independent living space, ask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for help.
- Keep your personal items (such as towels, eating utensils, and mobile phones) separate from other household members.
- Immediately report to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if you begin to show fever, cough, shortness of breath, or other respiratory symptoms.
- ✔ INSTRUCTIONS FOR HOUSEHOLD MEMBERS LIVING WITH PERSON UNDER MANDATORY HOME QUARANTINE:
- To your best ability, avoid any physical contact with the quarantined household member.
- In situations where you have to come in contact with the quarantined household member, make sure to wear a facemask and keep a distance of at least 2 meters between you and the person.
- Closely monitor the health condition of the quarantined household member.
- Keep clean all frequently touched surfaces and objects including tabletops, door knobs, bathroom fixtures, bedside tables, and keyboards.
- If your work setting involves frequent contact with many peopl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chool, private classes, preschool, kindergarten, social welfare facility, postpartum care center, and health care institution), limit or reduce your work capacity as best as possible to minimize contact with others until your household member is released from mandatory home quarantine.

GENERAL INFECTION PREVENTION TIPS

- ✔ Wash your hands thoroughly with soap and running water for over 30 seconds.
- ✔ Cover your nose and mouth using your upper sleeve when coughing.
- ✔ Do not touch your eyes, nose, or mouth with unwashed hands.
- ✔ Frequently ventilate your rooms.
- ✔ Wear a facemask if you have fever or respiratory or respiratory symptoms, or when you visit hospitals, clinics, or pharmacies.

*If you leave your quarantine location without permission during your mandatory home quarantine period or otherwise fail to comply with quarantine guidelines, you will be required to wear a Safety Band (a location-tracking wristband that wirelessly connects to your phone's Home 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If you still refuse to comply, you will be ordered to quarantine at a designated facility at your own expense.

- ※ Failure to comply with this action may result in:
- Criminal penalty of imprisonment up to 1 year or a fine up to 10 million won according to Article 79-3, subparagraphs 3 through 5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Civil damages in the event that your failure to comply constitutes violation of law and causes damage to the state due to further transmis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or additional measures of disease control/prevention; and/or
- (For foreign nationals) Revocation of visa or residence permit, deportation, and/or prohibition of entry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Act.

JUNE 12, 2020



韩国入境人员 隔离注意事项

根据《关于预防和管理传染病的法律》, 为防止新冠肺炎疫情扩散, 自入境日至第14天12时, 您必须接受隔离。(关于设施隔离的详情将由个别隔离设施另行通报)(例如: 6月1日入境者须从入境日至6月15日12时接受居家隔离。)

抵达机场后注意事项

- ✔ 短期滞留的外国人须在韩国政府指定的设施内接受隔离。(自费)
- 短期滞留外国人须在入境日期起三天内接受检测, 通过仁川机场入境国内的人员从上午9点至下午7点可在开放型选别所接受检测, 从下午7点至上午9点可在临时生活设施接受检测。
- ✔ 免隔离对象*在接受检测后, 接受所在地保健所14天的健康管理(主动监测)。*免隔离对象: 持有A1(外交)、A2(公务)签证, 或获得韩国大使馆开具的“隔离免除书”者
- ✔ 长期滞留外国人须接受居家隔离, 并在入境后三天内接受检测。
*将根据检测结果采取相应的措施。
- ✔ 必须佩戴口罩, 尽量减少与他人接触或对话。
- ✔ 从机场回家时, 建议自驾或乘坐指定的机场大巴或KTX(指定车厢)。
*回家路上禁止造访其他场所, 请在直回家。
- ✔ 到家后, 立即向所在地管辖保健所致电通报自己是居家隔离对象。
- ✔ 请务必利用指定的交通手段移动至指定的隔离设施。
- ✔ 请务必安装韩国行政安全部的“自行隔离人员安全保护应用软件”。
- ✔ 在14天的隔离期间内, 须遵守“自我检测”和“自行隔离对象生活”守则。



自行隔离人员安全保护应用软件使用指南

*回国的韩国公民和长期滞留外的国人请务必安装韩国行政安全部的“自行隔离人员安全保护应用软件”, 在14天的隔离期间内, 须遵守“自我检测”和“居家隔离人员生活”守则。(ID: CORONA) (若实际居住地址或联系方式有变动, 请务必向所在地管辖保健所通报。)

2020.06.12.

"가정경제, 어떻게 할까?" 다문화가정 아빠의 고민 덜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빠와 함께하는 경제교육' 실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6월 20일 10시 센터 교육실에서 다문화가족 12가정을 대상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경제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교육기부기관인 JA Korea의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아버지와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빠와 함께하는 경제교육은 '우리 마을'을 주제로 ▲직업빙고게임 ▲새로운 도넛 생각하기 ▲마을기업 스티커 붙이기 등 마을에 있는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고 마

을경제의 흐름을 살피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아이들의 흥미를 높이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아빠와 함께하는 경제교육에 이어 오후에는 다문화가족 아버지를 대상으로 가정경제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를 맡은 재무금융관리 전문가 정찬용 씨는 올바른 가족소비생활 계획과 100세 시대에 필요한 재무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 인생곡선의 이해 ▲필요한 재무준비 ▲현명한 재테크 방법 등을 교육했다.

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만큼

마스크착용 의무화, 체온측정과 손씻기를 수시로 하고, 미리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다문화가정 아버지는 "체험형 경제교육을 통해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특히 가정경제교육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재무관리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공동육이나눔터, 도움이 필요한 기정에 무상으로 돌봄 제공!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MBC 우리가 희망입니다 방송에 나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코로나19 극복 MBC특별생방송 'We Believe 우리가 희망입니다'에 출연했다.

이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대비하고, 경제 활성화와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에서부터 서로를 위로하는 랜선 공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국민에게 회복과 재건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MBC문화방송이 기획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김포건가다가는 먼저 온라인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센터 직원이 교육지원에 나선 모습이 그려졌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다문화가정 엄마 까리모바딜도라 씨의 아들 민호가 온라인 개학을 했으나 수업방식이 낯선 엄마를 위해 센터에서 러시아어 통역을 담당하는 나시바 씨가 매일 오전 방문해 민호를 도왔다.

나시바 씨는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민호가 온라인 수업에 꼭 빠져있는 동안 동생 민지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공동육이나눔터에서 시간을 보낸다.

공동육이나눔터는 원래 가정 내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 품앗이, 등하교 동행 안심 품앗이, 장난감 리사이클링, 지역 리더 양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소그룹

형태의 가족 품앗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돌봄센터로 전환하여 맞벌이든 육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을 무상으로 돌보고 있다.

그리고 오후 6시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이웃의 가계일을 돕는 엄마를 대신해 퇴근한 민호 아빠가 육아의 바톤을 이어받았다.

프로그램의 나레이션은 "육아 및 가사 분담을 통해 가족의 행복을 일궈 나가고 있다는 아빠,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하는 육아 속에서 아이들은 또 한번 성장한다"고 말하고 끝을 맺었다.

김포건가다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피는 것이 센터의 가장 큰 일"이라며 "어디에서든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김포시청 031-980-2114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96-5923 김포외국인주민지원센터 031-986-7660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031-987-6241 김포이주민센터 031-982-7661 김포여성의전화 031-986-0136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99-09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과천 다양한 가족, 온라인 행사로 안전 지키고 즐거움 키워요"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교육, 가족프로그램 등 운영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통번역사 인재양성과정 온라인 개강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6월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했던 취업교육을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진행되는 취업교육은 9월 말까지 취업 기초소양 특강과 통.번역 강의로 진행된다. 취업기초소양 특강은 과천시 일

자리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는데 자기 탐색 및 입사서류 쓰는 법, 면접전략, 결혼이민자 취업성공사례, 한국 직장문화 및 노무상식 관련한 정보가 제공됐다.

통.번역 강의는 총 30회기로 초입 2주간 기본기를 익힌 후, 분야별 집중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통번역 기법 학습, 통번역사의 자세와 매너 학습을 통해 실전 연습을 하게 된다. 특히 관광통역과과정, 법원통역과정, 의료통역과정, 스피치과정, 통역현장실습, 일반번역과정, 기본서류번역, 선배통역사와의 만남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 강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진행되며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지 온라인수업 시스템 운영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전에 어플 설치 안내와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유했으며, 대면 수업이 가능해질 때까지 온라인수업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도할 계획이다.

첫날 수업을 마친 학습자들은 “지난 4월부터 통.번역 수업을 무척 기다려왔는데 온라인이라도 수업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수업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다”라며 “아이들이 온라인개학을 하여 학습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더 열심히 배우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센터 담당자는 “그동안 수업을 하지 못하여 안타까웠는데 이제나마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고, 어렵지만 잘 적응해 주는 학습자들에게 고맙다. 30회기의 교육을 마치고 나면 우리 결혼이민자들의 통.번역 기술력이 향상되고 일 자리를 찾아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데 도움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수업은 한계가 있기에 코로나-19를 모두가 잘 극복하여 센터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서 수업하기를 손

꼽아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여름 밤의 패밀리 댄스 연다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7월 가족사랑의 날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한여름 밤의 패밀리 댄스’를 진행한다.

과천시 거주 및 재직 중인 15가족 선착순 접수하며 신청은 7월 10일까지다. 형광 팔찌 세트가 담긴 키트를 1가족 당 1개씩 수령해 밤에 형광 팔찌세트를 테이프로 몸에 부착한 다음 불을 끄고 자유로운 음악에 신나게 댄스를 하면 된다. 춤추는 영상과 소감문은 센터로 보내면 된다.

키트는 7월 15일 받을 수 있으며 활동을 진행한 후 7월 20일까지 영상, 소감을 발송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http://gchfsc.familynet.or.kr>) 받으며 가장 열정적인 5가족을 선정해 아이스크림 및 팔빙수 기프트콘도 준다. 02-503-0070 김영의 기자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20년 7월 프로그램 계획

사업명	일시	접수 기간	대상	인원	내 용
가족상담	연중	수시	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	·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가족사례관리	연중	수시	도움이 필요한 관내 거주 가족(다문화가족 포함)	-	· 개인 및 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다양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문제 해결 지원 및 대처 능력 강화 · 심층상담 및 필요자원 연계 등
과천시 마을돌봄나눔터 (레미안수르/부림동)	월~금 학기 중 (13:00~19:00)	접수완료	인근 거주하는 초등학생	레미안수르 33명, 부림동 28명	·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숙제지도, 도서 및 학습 공간 이용, 급간식지도, 요일별 프로그램
"Cheer Up!! 나 그리고 우리"	8월~12월	수시	2년 이상 임신, 출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부	10쌍 부부 (20명)	· 신개념 심리정서지원, 대재능력 강화프로그램 · 부부 이해 및 소통 프로그램 · 임신 및 출산, 난임 이해 프로그램 · 부부 술 체험, 요가 등 신체 활동 프로그램
아버지-자녀를 위한 전자적 가족 되기	7월~8월	수시	아버지와 자녀	12가족 24명	· 아버지로서의 자기 이해 교육 · 자녀와 함께하는 신체 및 요리 활동 · 아버지-자녀 소통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만드는 레온 수재칭	7월 15일~7월 20일	6월 29일~7월 10일	관내 거주 및 재직 중인 가족	15가족	· 7월 가족사랑의 날 첫 번째 프로그램 · 가족의 역할 분담 정해서 다함께 레온 수재칭 만들기
한여름 밤의 패밀리 댄스	7월 15일~7월 20일	6월 29일~7월 10일	관내 거주 및 재직 중인 가족	15가족	· 7월 가족사랑의 날 두 번째 프로그램 · 밤에 형광팔찌를 활용한 가족 댄스 파티
소중한 우리, 행복한 성 "소행성"	7월~11월	수시	관내 유아, 아동 및 청소년, 성인	1회/20명	· 지역내 학교, 관공서 등 연계기관 모집 · 성교육 강의, 성폭력 예방 인형극, 성교육 체험 버스 등
공동육아나눔터	연중	수시	관내 부모 및 자녀	-	· 공간 운영 및 상시프로그램 진행
가족풍선이	7월~12월	수시	관내 유아·아동 및 부모	1그룹/3가정 이상	· 가족풍선이 그룹 회원 모집 (활동: 육아, 놀이, 학습 풍선이 등 전체모임, 전체 프로그램 등

문의 02-503-0070

2020년 7월 가족사랑의 날 두번째 프로그램

한여름 밤의 패밀리 댄스

대 상 과천시 거주 및 재직 중인 15가족 (선착순)

활동방법

1. 형광 팔찌 세트가 담긴 키트 1가족당 1개 수령
2. 밤에 형광 팔찌 세트를 테이프로 몸에 부착, 불을 끄고 자유로운 음악에 신나게 댄스~
3. 춤추는 영상과 소감문 센터로 발송!

신청기간 2020년 6월 29일(월) ~ 7월 10일(금)

신청 접수 및 확정 (6.29~7.10) **키트 수령** (7.15) **활동 진행** **영상, 소감발송** (7.2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https://gchfsc.familynet.or.kr>)
회원가입-프로그램안내-가족사랑의 날 두번째 프로그램신청

필수사항

- 홈페이지 신청시 동행인 추가에 가족구성원 모두 작성
- 참여 후 영상 및 소감문 발송 필수 (영상 및 소감문 발송하지 않은 가족은 추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 가장 열정적인 5가족 대상 아이스크림 및 팔빙수 기프트콘 증정.

문의 가족교육팀 정혜원 사회복지사 02-503-0070

"안양의 다양한 가족, 가족과 함께 행복 키우며 코로나 이겨내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참여 아버지, 적십자 다문화가족 여행 등 운영



힘들 때일수록 가족은 커다란 힘이 된다.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육아참여 아버지를 위한 모임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육아참여 아버지들을 위한 모임’을 운영한다.

‘육아참여 아버지들을 위한 모임’은 7월 16일 첫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자조모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자는 육아휴직 아버지 10명, 한부모(미혼부 포함) 아버지 10명, 맞벌이 또는 외벌이 가족의 아버지 20명 등 총 40명이다.

자조모임은 그룹별로 3~4명씩 한 조가 되어서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며, 코로나19로 인해 그룹별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될 수 있다.

자조모임은 7월 자조모임 리더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월

2회 이상 자조모임 활동이 7월부터 10월 까지 이뤄진다. 상담은 8월 아버지를 주제로 집단상담이 진행되며 7월에는 한부모 아버지 집단상담과 사춘기 자녀를 둔 아버지 집단상담이 개최될 계획이다.

교육은 9월 스마일 육아코칭이 진행된다. 문화 프로그램으로 7월에는 신생아 손 싸개, 발싸개 제작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9월에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예술작품 체험프로그램이, 10월에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생태계체험 프로그램이 각각 진행된다.

지역공동체 활동으로는 아빠 육아참여 인식개선 캠페인과 10월 사업고고대회 및 평가회가 예정돼 있다. 031-8045-6377

#적십자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여행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적십자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여행’을 8월 내 1박 2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여행은 강화도 일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만 5세 이상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10가정 총 40명 대상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 참여해야 하며, 한국인 부모 또는 모의 참석이 어려우면 할아버지, 할머니 중 대체 참석할 수 있다.

센터는 동일 프로그램 미참여자 가정 위주로 선발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는 취소될 수 있다.

안양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코로나19로 대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 보자.

김영의 기자

多数人认为韩国社会的差别顺序是残疾人-移民者-老人-女性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사회 차별인식 조사결과 발표, 이주민 차별 여전

据一项调查结果显示, 每10名韩国人中就有7人认为韩国社会的歧视现象非常严重。特别是对移民者的歧视被认为仅次于残疾人。这是国家人权委员会去年以韩国国民为对象, 对韩国社会的人权实态进行调查后得出的第一个结果。

19日, 据人权委透露, 去年首次实施的“2019年国家人权实态调查”结果显示对于韩国是否存在严重的歧视问题有13.7%的人回答“非常严重”, 55.4%的人回答“多少有些严重”, 69.1%的人回答“严重”。29.2%的人认为“不太严重”, 1.6%的人认为“一点也不严重”。

关于侵犯人权的严重性, 54%的人认为“严重”, 46%的人认为“不严重”。在“韩国受到人权侵害或歧视最多的群体”的提问中, 回答者中选择最多的人群是残疾人(占29.7%), 其次是移民者(占16.4%), 老人(占13.4%), 女性(占13.2%)。

对于“在韩国受到人权侵害或歧视最容易的群体”问题的回答中, 回答最多的是贫困层(占29.6%), 其次是学历低的人(占18.9%), 有前科的人(占

16.2%), 非正式员工(占12.9%)。

半数以上的应答者认为韩国国内歧视或人权侵害现象非常严重, 但对本人的人权大体上还是认为比较受尊重。在“您认为自己在韩国人权受到多少尊重?”的提问中有71.3%的人回答“受到尊重”(非常受尊重3%, 受尊重68.3%)。有28.7%的人回答“不受尊重”(完全不受尊重2.3%, 不受尊重26.4%)。回答者的学历或收入等社会经济地位越高回答时认为本人的人权受到尊重的比率也越高。对于国内人权状况的变化, 持有肯定性预测的人占上风。有62.4%的应答者认为韩国的人权状况正在“好转”, 有15.4%的应答者认为韩国的人权状况正在“恶化”, 有22.1%的应答者认为“差不多”。在人权委的主持下, 统计厅于去年8~9月进行的实态调查全国共有1.377万名成年男女参与。

人权委计划, 将调查结果作为今后人权政策的基础资料加以利用, 并在今后每年进行实际情况调查, 积累有关国内人权状况的基础资料。

另外, 国家人权委员会在地方自治团体的《灾难紧急支援金政策》中做出了

“排除外国居民是侵犯居民平等权的行为”的决定。国家人权委员会表示, “通过外国人登记申报地址的外国人是属于地方自治法第12条规定的‘居民’; “地方自治法”第13条和有关外国居民的条例中, 保障使用所属地方自治团体的财产和公共设施的权利, 以及从该地方自治团体平等地获得行政福利的权利; 在地方自治团体为克服新型冠状病毒肺炎灾难状况而采取的人道主义支援政策中很难找到能够对外国居民给予不同待遇的合理依据”。还表示“而且在充分预测灾难使他们处于脆弱状态的情况下, 如果不能提供适当的支援, 该地区内居住的外国居民生活导致脆弱的可能性进一步恶化”。

对此人权委于2020年5月21日在第8次全体会议上制定并执行了在新型冠状病毒肺炎灾难情况下为稳定居民生活和搞活地区经济的灾难紧急支援金政策。对登记为居民的外国居民给予不同的待遇属于没有合理理由的歧视相当于侵害平等权因此建议政府改善相关对策防止在实施灾难紧急支援金政策中排除外国居民。翻译 金姬善

청년들 주거 걱정 안녕

안양시와 주택공사 협약

다문화가족 중 무주택 청년층은 집값 부담을 덜게 됐다.

안양시는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안양 청년인터레스트’(人.터.REST)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3일 안양시청에서 최태호 안양시장, 박정배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이영철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장 간에 청년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안양시는 협약에 따라 연 2% 이내 이자를 주거급여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다. 지원금 외 이자분은 본인 부담해야 한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대출 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할 수 있고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7월 중순 이후 약 한 달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해 만 19세~39세 청년층을 상대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홈페이지(anyang.go.kr/청년정책관실 8045-578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Центр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мой опыт.

결혼이주여성에게 도움 되는 다양한 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해요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Корею возросло количеств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пар. Причин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И государство всеми способами пытается поддерживать такие браки. Поэтому, практически, в каждом городе есть центры поддержки и помощи меж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Та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особенно полезны для тех, кто впервые прибыл в Корею и испытывает затруднения в общении с корейским народом, в культуре и просто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Одно из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центра - это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Занятия проходят бесплатно и обычно 2-3 раза в неделю по 2 часа. Я посещала центр в городе Анян,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Семейный центр длится с марта по декабрь, включая каникулы в августе. На церемонии окончания обычно дарят книгу, в которой собран весь список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проходили в центре, фотографии и сочинения студентов. Один год - это примерно один уровень языка.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тех, кто прибыл по брачной визе, был создан учебник, в котором есть и грамматика, и необходимый словарь. Проучившись 2 уровня в этом центре у меня сложилось достаточно хорошее мнение о нем. Во-первых, вс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достаточно подробно объясняли весь материал и пытались найти подход к каждому ученику. Во-вторых, после успешного окончания курса выдавался сертификат, что тоже может иметь пользу в будущем.

Следующее - это знакомство с культурой и особенностями быта Кореи. Занятия,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как в виде лекций, так и в виде практик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преодоление трудностей в адаптации в новой среде. Программ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и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например : проблема расизма в Корею и как с этим справиться; поиск работы иностранцу в Корею. Я посещала несколько таких лекций. Первый мой опыт был связан с изучением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месяцев раз в неделю известный шеф-повар давал урок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корейских блюд и обучал основам. Такие занятия очень помогли и в бытовой сфере. Помимо готовки я посещала ку

рс, связанный с проблемам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ностранцам, где нам подробно объяснили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работу и как действовать при нарушении трудов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аботодателем. Также в центре проводятся множество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супружеских пар (беседы, культурное просвещение, рукоделие и т.д), для отцов с детьми (совместные поделки, пикники, и лекции), для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о образе жизни во время беременности и после родов); для детей (обучение различным языкам) и для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И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бесплатные.

Также такие центры предоставляют консультации 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ю по различным вопросам и помощь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 (семейные, юридические, иммиграционные и т.д.) Предлагаются услуги по поиску работы и переводах.

Для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насилия в отношении женщин-иммигранток, постоянно действуют горячие линии. Есть множество центров, гд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помощь иммигрантам, оказавшимся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Это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е, оказание медицинской и правовой помощ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риюта.

최근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도시에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한국에 처음 온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문화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센터가 지원한 서비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한국어교육입니다. 수업은 무료이며 보통 일주일에 2~3번이고 하루 2시간씩입니다.

기자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했습니다. 학기는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되며 8월 방학도 포함됩니다.

졸업식에서는 센터에서 진행되었던 전체 행사 목록, 사진 및 학생의 글이 포함된 책자를 나눠 줍니다. 1년

과정은 한 단계 정도의 수준입니다. 특별히 결혼 비자로 온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문법과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교재를 만들어 줍니다.

이 센터에서 2단계 과정을 공부 한 결과, 기자는 이 센터에 꽤 좋은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첫째, 모든 교사는 모든 수업자료 등 교재를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각 학생에게 맞춤형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두번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는 인증서가 발급되었으며, 이 인증서는 앞으로도 유용 할 것입니다.

다음 과정은 한국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교육입니다. 수업은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수업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인종 차별 문제와 이를 다루는 방법, 한국에서 외국인이 구직하는 방법 등입니다.

기자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첫 경험은 한국 요리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일주일에 한번 유명한 요리사가 한국 요리의 특징에 대해 알려주고 기본 요리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수업은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리수업 이외에도 외국인 고용 문제와 관련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참석했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일자리 찾는 방법과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대처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센터에서는 부부교육 및 가정교육(대화, 문화교육, 바느질 작업 등), 아버지와 자녀(공예, 피크닉 및 강의), 임신부(임신 중 그리고 출산 후 생활양식)를 위한 많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들 위한 외국어 교육과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육은 무료입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다양한 문제에 대한 조언과 문제 해결(가족, 법률, 출입국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구직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핫라인이 항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소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울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안양시 # 센터 이용 에티켓

- 첫째, 마스크 필수 착용해주세요.
- 둘째, 기침은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 셋째, 손소독제 사용과 방문자 관리대장 체크해주세요.
- 넷째, 꼭 필요한 대화만, 애정은 마음으로 느껴요!
- 다섯째, 생활 거리두기!! 정해진 자리에 앉아주세요.
- 여섯째, 텀블러 등 개인용품 소지해주세요.
- 일곱째, 해야할 일이 끝나면 집으로 가요.
- 여덟째, 반가운 표시는 맑은 웃음과 꿀꿀치로 연사해요.

센터 이용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개 준비 중
#보고싶은 #우리가족

안양시 # 센터 코로나19 방역 준비

매일
1회 센터 내부 소독 & 4회 센터 환기

입장 시
손소독제 사용 & 방문자 관리대장 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한 좌석배치

Старт проекта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креативные команды Кёнгидо'

경기다문화크리에이터 1기 발대식과 교육 진행, 다문화가족의 시선으로 경기도를!



17июня в Центре обу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здоровья в г.Сувон прошла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проекта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креативные команды Кенгидо 1 выпуска 2020 года" и первый день обучения.

"В связи с усилением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мер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связанных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запланированная дата церемонии - 8июня - была перенесена на 17 июня по совету г.Сувона, а обязательная явка заменилась "с вольным участием".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что очень строго были соблюдены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меры: измерение температуры и дезинфекция рук перед входом в учебное помещение, расстановка мест для слушателей через одно место для соблюдения безопасной дистанции, с пластиковым стеклом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контакта и возможност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а также строгое наличие масок как у слушателей, так и у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роме этого, все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заполнили

анкеты собственного диагноза для профилактики коронавируса.

Как оказалось, в этом году было неожидан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заявок, поэтому организаторам пришлось нелегко с выбором. В итоге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разделили и обучен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3 местах.

В Сувоне прошла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и презентация основных целей и тем, а также ознакомление с расписанием и требованиями к предстоящ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2020 для 15 креативных команд 1 выпуска. После нее ученица открыла успешный блогер Gillian. Она рассказала на своем опыте о секретах успешного влога (Видео+лог) а также вместе с участниками на практике составили план влога. И почему-то только мне пожелала удачи. (может, оттого, что только я ее об этом попросила?)

Во время обеда с командами из Китая, Вьетнама и Узбекистана за дружеской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й беседой участники креативных команд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и поделиться опытом.

Я очень люблю учиться, но выдержать 8мичасовой день обучения скажу Вам, задача не их легких.

Обучение после обеда было связан

о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видеосъемкой и редактированием видео, вместе с выдающимся учителем, у которой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спешных учеников по всему ютьюбу, Ким Суджин. Для меня, человека, у которого видеоредактуры занимаются дети-школьники, но никак не я сама, основ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видеосъемки, редактирования и монтажа видео- область очень интересная и малоизвестная. Поэтому регулируя скорость, размер и время видео, вставляя звук, титры и специ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соусы), время пролетело совсем незаметно и настал час(вернее 2часа) последнего блока 1 дня обучения: управление и установка аккаунта в ютуб. Его проводил автор книги "Электронный маркетинг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аналитики Гугл", выдающийся маркетолог И Тэль.

Так как у меня есть несколько аккаунтов в ютуб, то тема была не новой для меня, но вот как работать с каналами в ютуб- я в этот раз научилась впервые! (или почти научилась).

Что хотелось бы сказать об увиденном и услышанном? Учитывая, что выбрал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многокультурных мечтателей, чтобы увидеть их взгляд на регион Кёнгидо, то ожидается очень важная и инт

ерес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15 команд представят свои видеопроекты в течение 3 мес на 5 различных тем как минимум на 2 языках: корейском и своем родном языке.

Кроме того, впереди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пройдут еще 2 дня обучения. Очень хотелось бы поскорее их прослушать, но всему свое время.

2020 경기다문화크리에이터 1기 발대식과 1차 크리에이터 교육이 지난 6월 17일 안전보건교육센터에서 진행됐다.

다문화크리에이터 신청자가 많아서 3팀으로 나누어 교육을 받는다. 발대식에서는 사업목적과 내용을 소개하고 일정 및 활동 등을 안내했다. 이후 성공한 유튜브 활동가 Gillian이 1차 교육을 진행했다.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활동방법, 인기 있는 브이로그(비디오+로그) 채널의 비밀을 알려 주었으며 실습 유튜브 영상을 기획하는 방법을 설명했다.(중략)

이번 발대식과 크리에이터교육을 받으면서 다문화가족과 고려인의 시선으로 경기도를 소개하는 과정이 매우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크리에이터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다. 15개 크리에이터 팀이 3개월 이내 이중언어(한국어와 모국어)로 5개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7월과 8월에는 2차와 3차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김인순 도의원,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 인권 부문 수상, 다문화정책 발전 공로



김인순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1)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0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 시상식'에서 인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인순 의원은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위원으로 활동하며, 모든 도민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

을 했다.

다문화가족 민원인 통해 인식 전환 주도

화성시에 거주하며 이주민 남편을 둔 이현숙(가명) 씨는 처음 외국인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김인순 도의원에게 연락이 닿아 개선이 필요함을 알렸다.

이 씨의 민원을 접한 김인순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드는 일이지만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재난기본소득 문제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수차례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섰다.

결국 이재명 지사가 화답했고 다문화가족과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내렸다.

이현숙 씨는 "다문화가족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

고 들어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잡아주셨다는 사실에 큰 기쁨과 감사를 느낀다"며 "특히 김인순 도의원님이 민원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또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인숙 도의원은 또 화성시 관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시설인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건립비 30억 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는 등 그동안 다문화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시상식 인권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인순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 가족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다문화 정책과 문화가 경기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8면>

송하성 기자

화성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화성시 155세대
(2인 이하 가구 50세대 / 2~4인 가구 100세대 / 5인 이상 가구 5세대)

(1)이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불입 참조)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사(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됨

(2)공급유형별 공급주택

-2인 이하 가구(1형):전용면적 50㎡ 이하

-2~4인 가구(2형):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3)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4)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26) 현재 사업대상지역(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 3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동거인도 신청 가능)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3.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1)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2020.07.06.(월)~2020.07.10(금)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2)신청서류 (모든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06.26)이후 발급분 제출)

4.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경기지역본부 화성권 ☎031-831-2465, 2445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시정연구실·민생실·의사자료실

코로나19 없는 학교를 위한
등교 이후 학교 대응 수칙

준비물: 개인 용품, 손 세정제, 마스크

학교에서는?

등교 시

- 모든 학생 발열 검사
- 36.5°C 이상의 발열 시 보호자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등교 후

- 교실 간 이동, 불필요한 활동 자제
- 교내 1일 1회 이상 소독
- 외부인 교내 출입 금지
- 유증상자는 별도 격리장소에서 관리

가정에서는?

- 자녀의 건강상태 확인 후, 만일 의심증상이 있다면 등교시키지 마시고 선생님께 연락주세요.
- 자녀에게 개인위생 교육을 해주세요.
- 증상 악화 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으세요.

학교 급식 중에는?

- 급식실 출입 이전에 발열 검사
- 식당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 적정 간격 유지, 식사 시 대화 자제
- 접촉이 많은 시설, 기구 등은 매일 소독
- 식당 내 환기 강화

2020.05.14. 질병관리본부 KCDC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을 신설합니다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 14일간 자가격리 권고로 자택에서 자가 증상 모니터링하기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핸드폰 등) 사용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후 2m 이상 거리 유지
- 건강 수칙을 지키고,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병력 알리기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는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 발현 시 보건소 연락

6/8

2020.05.14. 질병관리본부 KCDC

이러한 분들은 더 적극적인 검사를 권고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 가족(동거인)·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4/8

2020.05.14. 질병관리본부 KCDC

지역사회 환경관리 지침
일상 속 소독의 생활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사회 예방적 일상 청소·소독 방법

-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공간에 무분별한 소독의 효과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소독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실내에서는 충분히 자주 환기하며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 을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자주 닦기**

* 엘리베이터 버튼, 문 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화장실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곳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확산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면적이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청소·소독 시에는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밀봉하여 버리고, 공간 사용 전까지 충분한 환기를 시키며, 작업자는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7/8

2020.05.14.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새로운 일상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것입니다

다시, 한 마음으로 실천해 주세요!
#함께해요 #생활 속 거리 두기

개인방역 5대 기본 수칙

- 아픈면 3~4일 집에 머물기
-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8/8

‘Урок по России в Асия тамунацентре’

화성에서 만나는 세계의 문화, 즐거운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러시아의 날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в Асия тамунацентре(Кёнгидо г.Хвасон) открылась программа

"Вместе с девочками, вместе со всем миром. 1 урок- день Узбекистана". Вместе с иностранны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можно было прослушать урок по истории, приготовить блюдо и на личном опыте узнать культуру страны.

В прошедший четверг 18 июня прошла программа "Вместе с девочками и, вместе со всем миром. 2 урок- день России". Все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научились приветствию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узнали об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е Дня семьи в России, приготовили вместе вареники, поводили вместе хоровод и сделали матрешек.

В условиях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оведение такой программы, конечно, требует соблюдения повышенных мер профилактики. Поэтому все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были в масках, измерили температуру и дезинфицировали руки, также всех попросили занять места, соблюдая безопасное расстояние через одно место, а перед готовкой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мыть руки с мылом.

Данная программа проводится уже 2 год и направлена на укреплени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и иностранок и понимание другой культуры через знакомство с историей и культурой другой страны, а также совместн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блюд и личного опыта. В этом году в связи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начало программы пришлось несколько раз менять и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ограничить.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иностранки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Ю.Корея, Китай, Вьетнам, Япония, Индия и др)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уроке про

Россию.

Слушательницы узнали, что 8 июля в России отмечается День семьи. История Дня семьи нашла отклик в сердцах всех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потому что взаимовыручка и терпение, доброта и любовь в семье очень важны и приняты в любом обществе.

Вареники лепить было несложно, ведь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есть похожие блюда из теста, но девочки из Китая показали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лепке. В Китае много традиционных блюд из теста и они очень схоже с нашими, такими как пельмени и вареники. Сами вареники пришлось по вкусу всем без исключения, но вот соус из сметаны многим был непонятен, поэтому его заменили привычным соусом из каньяна.

Пока вареники варились, все девочки отправились узнавать, как играть в национальные игры. Водить хоровод и играть в ручеек неожиданно все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но многие устали и сказали, что это не игры вообще, а настоящий спорт). Но при этом почемужему-то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икто не хотел.

Ну и в завершении Дня России встретились с нашей матрешкой. Вот что-то, а русских матрешек успели полюбить во всем мире. И конечно, как же здорово иметь дома свою раскладную матрешку, да еще и украшенную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а свой вкус.

Очень приятно, когда твоя страна и культура интересна другим людям.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находишься в такой дружеской и радостной атмосфере, забываешь, что мы все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разных культур и это очень здорово! И если бы не коронавирус, ка

к хорошо было б, если б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людей смогли бы это узнать и участвовать в этой замечательной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программе.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Вместе с девочками, вместе со всем миром" ожидается увлекатель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в страну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соседнюю с Ю.Кореей Японию.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вместе с иностранным sns-репортером Кенги до Еленой~

지난 5월 28일 화성시에 위치한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는 다문화통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주민 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은 역사, 요리, 체험까지 다양한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회 우즈베키스탄의 날에 이어 6월 18일 2회에는 ‘언니랑 세계랑 2차 러시아의 날’이 진행됐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러시아 인사말, 가족의 날 문화와 역사, 한국 만두와 비슷한 러시아요리 ‘바레니키’, ‘하라붓’이라는 신나는 전통 놀이 그리고 전통 인형 마트료시카 색칠하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방역을 위해 모든 참여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과 체온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한 자리를 비워 두었습니다. 요리를 하기 전에 손을 비누로 씻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요리, 놀이체험을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알아보면서 이해하기 위해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몇 번 바꾸고 참가자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나라(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 등)에서 온 언니들이 러시아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러시아에서 7월 8일은 가족의 날로 기념합니다. 가족의 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참여자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가족으로서 배려와 인내심, 돕기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러시아 바레니키는 한국 만두와 비슷합니다. 많은 나라에 이런 반죽요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레니키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 언니들이 잘 만들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요리 중에 만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여한 언니들과 반죽 속에 감자를 넣어 같이 삶는 러시아 바레니키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워크림 소스는 먹기 힘들어서 익숙한 간장소스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바레니키를 준비하는 동안 언니들이 러시아 놀이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라붓이라는 러시아 공동놀이를 재미있게 했는데 놀이가 아니고 운동이라며 많이 피곤하답니다. 그래도 즐겁게 잘 놀았습니다.

마침내 마트료시카와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인형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인기도 많습니다. 언니들이 마트료시카를 직접 색칠하고 집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와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참 기쁩니다. 이런 즐겁고 사이좋은 분위기에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것을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이 재미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언니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7월 16일에 열리는 3회 다문화통합프로그램은 이웃나라 일본이 주제입니다.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엘레나와 함께 갑시다.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양한 이주민 차별과 맞서 온 사람들,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 시상식

△왼쪽부터 김용국 원장, 허재면 안양외고 교사, 구릉굽더마하돌 씨, 성준모 도의원, 신상록 이사장, 이정호 신부, 이자스민 전 의원, 김해련 시의원, 김인순 도의원, 김현삼 도의원

성별과 국적과 종교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 보편적 인권 찾기 위한 노력 함께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이주민 차별과 맞서 온 사람들이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을 받았다.

한국이주인권상선정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지난 6월 29일 오후 경기도의회 4층에서 '2020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기다문화뉴스가 주관하는 한국이주인권상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바람직한 다문화사회의 기준을 제시하며 외국인주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온 시민사회 인사 및 이주민 당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5개 분야에서 10명이 상을 받았다.

먼저 중앙정책 분야에서 상을 받은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은 국회활동 외에도 최근 총선 정국에서 이주민 이슈를 부각해 일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오늘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하고 왔다”며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

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주민들을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과 이 상을 함께 받았다”고 말했다.

지역정책 분야에서는 장덕천 부천시장, 김현삼 성준모 경기도의원, 김해련 고양시의원 등이 공동수상했다.

김현삼 경기도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작년에 이주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했다가 저를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엄청난 문자폭탄을 받았다”며 “성별과 국적과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기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한 신념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성준모 경기도의원은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구에서 마찬가지로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했다가 문자폭탄을 받았다”며 “소외받는 이주민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더 열심히 찾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련 고양시의원은 “지역구가 공항이 가깝다보니 난민, 이주민, 다문화가족 등이 많이 거주한다”며 “이주민들이 많아진 만큼 이주배경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제대로 돌보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노력, 쉬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결단을 내린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인권 분야에서는 김인순 경기도 의원이 상을 받았다. <작은 사진>

김인순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처음에 이주민을 배제한 채 집행돼 논란이 많았다”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사돼서 기쁘다. 이전부터 다양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을 위해 일해 온 분들의 노고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일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다국어로 제작한 안양 외국어고등학교가, 이주민 당사자 분야에서는 네팔 출신 구릉굽더마하돌 씨가 상을 받았다.

구릉굽더마하돌 씨는 22년 전 한국에 와 옷 공장에서 하루 14시간 씩 시다로 일하는 등의 험난한 생활을 거쳐 현재는 자수성가한 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이주민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10여년 이상 지역사회에서 이주민을 돌보고 지원하는 일을 해온 신상록 사단법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과 김용국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장이 공동수상했다.

신상록 이사장은 “처음 다문화 대안 학교를 만들 때 어려웠지만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소망이 있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날까지 올 수 있었다”

며 “오늘 상 받은 분들을 생각하니 새삼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지치지 않고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원장은 “우리 모두는 내국인도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다문화가족이다”며 “표준화된 문화를 한국의 단일문화라고 생각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제정돼도 소용이 없다. 제도 보다 앞선 인식을 바꾸는 일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이주인권상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호 신부는 이날 고단한 삶을 사는 이주민을 지원해온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정호 신부는 2017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다.

이 신부는 “어떤 상은 엄청난 상금을 주지만 민간에서 만든 한국이주인권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하지만 오늘 이주 다문화사회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 사태로 축하 행사를 생략하고 외빈 초청 없이 간략하게 치러졌다.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송하성 기자